

ECONBRAIN

COVER STORY

代를 잇는 起業家정신-LS그룹

“아름다운 사촌승계로 새 역사를 쓰다”

EQUITY

2012년 주식자산
증감 총정리·분석

FOCUS

삼성 이견희 회장 취임 25주년
‘대한민국 밥그릇’을 일군 승부사

SPECIAL FEATURE

임진년을 빛낸
차세대 리더 10인



500대
주식부호리스트



구자홍 LS그룹 회장

구자열 LS전선 회장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

故 구평희 E1 명예회장

故 구두회 에스코 명예회장

12

Vol.66.December 2012



9 771976 463014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제네시스 이후, 세단의 기준은 바뀌었다

제네시스 이후, 대형세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

제네시스 이후, 드라이빙은 즐거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제네시스 이후, 퍼포먼스로 럭셔리 세단을 논하게 되었다

ENJOY THE PERFORMANCE



세계가 인정한 현대차의 품질, 수입차와 직접 비교해보고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 수입차 비교 시승 센터 • 서울목동 02)2644-7365 • 서울강남 02)3452-7365 • 분당 031)705-7365 • 서울서북부 031)908-7365 • 인천서부 032)425-7365 • 대전 042)621-7365 • 광주 062)366-7365 • 동대구 053)525-7365 • 부산동부 051)517-7365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친환경·경제운전으로 연비는 높이고, 주유비는 낮추고!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V6 람다(3.3 GDI 신연비 기준 : 복합 9.6km/ℓ (도심 : 8.4km/ℓ, 고속도로 : 11.7km/ℓ), 기존 연비 기준 : 10.7km/ℓ | CO₂배출량 : 184g/km | 배기량 : 3,342cc | 공차중량 : 1,750kg | 자동8단(4등급) ▶ V6 람다(3.8 GDI 신연비 기준 : 복합 9.3km/ℓ (도심 : 8.1km/ℓ, 고속도로 : 11.4km/ℓ), 기존 연비 기준 : 10.3km/ℓ | CO₂배출량 : 191g/km | 배기량 : 3,778cc | 공차중량 : 1,795kg | 자동8단(5등급) ■ 위 연비는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신연비 기준은 시내와 고속 주행의 두 가지 연비를 측정 후, 이를 다섯 가지 실주행여건(5-Cycle)을 반영한 보정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실연비에 가까운 측정방식입니다 (5-Cycle : 시내, 고속도로, 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 저온조건 주행)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십시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LSpartnership®으로! 다함께! 미래로! 세계로!

더 큰 목표, 더 큰 성과를 만들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LS의 진정한 파트너 정신입니다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CONTENTS

VOL. 66 DECEMBER 2012

30

COVER STORY

대를 잇는 起業家정신-LS그룹
구태회·평회·두회-구자홍·자열



이번 호 '대를 잇는 기업가 정신'에서는 재계 역사상 첫 '사촌승계'를 실현한 LS그룹을 다룬다. '태평두'로 일컬어지는 구태회, 구평회(작고), 구두회(작고) 등 1세대들이 세운 LS그룹을 재계 순위(자산규모) 13위로 키운 2세대 구본홍·구자열 회장과 똘똘 뭉친 사촌들의 대를 잇는 기업가정신을 살펴본다.

10

SYMPOSIUM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경제민주화 법은 기업가정신 죽이는 악법"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경제민주화는 경제발전기능 차단할 것"
복거일 경제평론가·작가
"자본주의 내부 위협은 소득 양극화 때문"



정규재 논설실장



좌승희 이사장



복거일 경제평론가

ECONBRAIN

SYMPOSIUM

- 10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 12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 14 복거일 경제평론가·작가
- 16 종합토론

EQUITY

- 20 재벌 총수
- 23 1천억대 주식부호
- 28 주식부호 500인 리스트

COVER STORY

- 34 LS家 사촌간 경영승계
- 36 구자홍 회장의 기업가정신
- 38 구자열 차기 회장의 기업가정신
- 40 사업부문제 사촌경영
- 43 1세대 기업가정신

SPECIAL FEATURE

- 46 임진년 재계를 빛낸 차세대 10인
- 47 이재웅 삼성전자 사장
- 48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 49 조원태 대한항공 전무
- 50 김동관 한화솔라원 실장
- 51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
- 52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 53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 54 정지이 현대유엔아이 전무
- 55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 사장
- 56 설윤석 대한전선 사장

www.econbrain.com

28

500대 주식부호 리스트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

옛날엔 많은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꿨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아이들이 같은 꿈만 꾸게 된 걸까요?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과학자가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나라의 기초는 과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노벨프로젝트로 과학의 꿈을 다시 키웁니다

HYUNDAI
MOBIS



현대모비스 노벨프로젝트란?

노벨상을 받을 만한 과학 분야의 인재를 초등학교생 시절부터 키워 주기 위해 현대모비스에서 2005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현대모비스 직원들이 직접 공학교실을 열어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 기준 33개 초등학교가 함께 하고 있으며 현재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는 물론이공계 기피현상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벨프로젝트가 궁금하시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20 EQUITY

삼성전자 최고가 경신...총수일가 지분가치 13조5천억원



11월22일 삼성전자 주식이 141만7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이근희 삼성 회장의 지분가치는 11조661억 원에 달해 지난 4월 이후 다시금 11조 원대를 넘어섰다.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삼성리움미술관 관장도 1조4989억 원 상당으로 연초 주식부호 순위 15위에서 일약 10위권으로 뛰어 올랐다.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20위에서 16위로 상승했다. 이들 이 회장一家의 주식자산을 모두 합하면 13조5704억 원 상당에 달한다.

78 DONATION

‘寄附는 Give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보다 어렵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다. 부는 나눌 때 배(倍)가 된다는 속뜻을 현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에는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특별한 단체가 있다. 한마디로 존경받는 부를 나누는 자들의 모임이다. 미국에는 ‘기빙 플레지(Giving

Pledge)’라는 자선 단체가 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생전이나 사후에 기부하기로 약정한 부자들의 모임이다. 부자는 ‘부를 나누는 자’의 준말임을 이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들이 있어 인류의 인간애가 풍요롭다. 존경받는 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와 기빙 플레지를 소개한다.

FOCUS

- 58 인물로 본 삼성전자 43년
- 59 이근희 회장취임 사반세기
- 63 故 이병철·이근희 회장
- 64 정재은·윤종용 前 삼성전자 사장
- 65 강진구 前 삼성전자·이윤우 전 반도체총괄 사장
- 66 진대제 前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대표이사
항창규 前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
- 67 최지성 삼성전자·권오현 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부회장

공감 36.5

- 68 CSR은 선택 아닌 필수
- 69 현대차그룹 사공헌 활동
- 73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 77 CSR 뉴스 브리프-관정재단·효성

DONATION

- 78 ‘寄附는 GIVE다’
- 79 아너 소사이어티
- 82 기빙 플레지

ZOOM IN

- 84 SK그룹
- 85 LG그룹
- 86 GS그룹
- 87 두산그룹
- 88 대한항공
- 89 코오롱·대성·한라그룹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모두가 **우리** 꽃인 것처럼...

채송화도 봉숭아도 담장 위에 나팔꽃도
어느 것 하나 정겹지 않은 것들이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이제 모두에게 사랑받는 우리 꽃이 되었습니다
함께해요 다문화 사랑해요 LG



나팔꽃

고향: 인도

만드라미

고향: 인도

접시꽃

고향: 중국

채송화

고향: 남미

봉숭아

고향: 동남아시아

사랑해요 LG



30 SPECIAL FEATURE

임진년 재계를 빛낸 차세대 3.0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도 저성장 늪에서 허덕이는 가운데 임진년 한 해도 저물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의 외부요인과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면서 기업들 성적표가 예년만 못하다. 마땅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나마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다. 바로 경영 전선(戰線) 전후방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차세대 리더들이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송년특집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3세 가운데 올해 뛰어난 경영 성과를 이끌어 낸 10인을 선정, 이들의 활약상을 정리했다.

58 FOCUS

‘대한민국 밥그릇’三星을 초일류기업으로 키운 승부사



올해는 삼성전자 창립 43주년에 이근희 회장 취임 25주년을 맞는 해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1일 창립기념을 맞았다. 이 회장은 12월 1일로 취임한 지 25년째가 됐다. 이 회장은 승부사적 기질로 고비 때마다 과감한 결단과 ‘新경영론’을 들고 나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호암 이병철 창업회장에 이어 오늘의 삼성전자를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만든 이 회장의 사반세기를 되짚어본다. 또 삼성전자를 이끌어 온 주요 공로자들을 찾아 ‘인물로 본 삼성전자 43년’을 꾸몄다.

의 사반세기를 되짚어본다. 또 삼성전자를 이끌어 온 주요 공로자들을 찾아 ‘인물로 본 삼성전자 43년’을 꾸몄다.

ECONBRAIN

LAW SUIT

- 90 SK그룹 · LG그룹 일가
- 91 한화 · 금호석유화학

CAR LIFE

- 92 세르지오 호사 한국GM 사장 간담회
- 93 BMW · 벤츠 신차 소개
- 94 아우디 · 토요타 신차 소개
- 95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시승기

LUXURY

- 96 세계의 명품①-불가리

COLUMN

- 102 정종호의 CEO 건강경영
- 104 문형남의 같이 만드는 가치
- 106 이성환의 생활법률
- 108 전형구의 독서경영

www.econbrain.com

차세대 리더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10천간 중 검은색을 뜻하는 '임(壬)' 과 12지지 중용을 의미하는 '진(辰)' 이 결합해 탄생한 2012년 임진년 흑룡해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4.11 총선과 12.9 대선을 치르는 정치일정과 맞물려 표(票)폴리즘을 앞세운 정치권의 '재계 길들이기' 가 예전과는 다르게 '경제민주화' 란 시대정신으로 이어지면서 사뭇 다른 양상으로 재계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는 S, H, K, D, T, O, L, W 등 재벌 총수들의 탈세, 배임, 횡령이 드러나면서 '오너리스크' 에 대한 우려와 승자독식으로 '富'를 일구고 있는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정서가 큰 몫을 했습니다.

재벌기업들은 국민들의 反재벌 정서를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나 재벌총수를 보필하는 측근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맹종,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는 이제 안 됩니다. 불법, 편법을 알면서도 온갖 꼼수를 내서 재벌총수의 마음을 사로잡아 반대급부를 챙기는 측근들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총수에게 탈법, 편법을 조장하고 검은 지갑을 만들어 주고 또 눈감아 주고... 재벌총수들이 왜 그렇게 법정을 드나드는 지 모두 측근들과 연계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재벌총수들의 전문경영인 등용에 실적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경영인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다보니 근로자와의 마찰, 하청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중소기업 영역 침투 등 각종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몸집을 키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승자독식주의에 만취해 富의 사회 환원도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복지재단을 만들어 사회공헌을 한답시고 온갖 행사를 하고는 있지만 무늬만 사회공헌일 뿐 진정성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재벌의 성장과 궤를 같이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325조4000억 원입니다.

올해 삼성그룹의 매출규모는 383조9000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그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메가톤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독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와 현재의 MB정부를 거치면서 재벌들은 몰라보게 급성장 했습니다.

올해는 주요 그룹마다 재벌가의 차세대들이 대거 경영전면에 나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을 깔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는 바로 이들 차세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EconBrain〉을 발행하는 것도 바로 이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금껏 쌓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입니다. 〈EconBrain〉은 이들이 정도경영, 투명경영, 창조경영, 기술경영, 글로벌경영, 사회공헌 등을 통해 '희망! 대한민국' 을 만드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척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EconBrain〉이 지속적으로 '代'를 잇는 起業家정신' 을 연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올 한해 〈EconBrain〉에 보내주신 따뜻한 배려와 분에 넘치는 격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conBrain 발행인 최영규

Ceo & Publisher Choi Young-Kyu

Editorial
Report Part
Editor in Chief Yoo Seong-Ho
Reporter Ahn Ji-Yong
Min Mi-Kyung
Lee Woo-Sung
EconBrain Article Center

Editorialist Kim Kyoung-Woong
Editorial committee Moon Hyoung-Nam
Lee Sung-Hwan
Jeon Hyoung-Gu
Jung Jong-Ho
Chae Kwang-Hoon

Art & Design/Editor Kim Jung-Youn

Illust Writer Choi Ji-Hoon
Designer Choi Ji-An

A/D & Marketing
Chief Manager Kim Hyo-Sung

Management
Chief Manager Gegal Youn-Young
Manager Choi Ja-Ryoung

TYCOON TV

President Kim KI-Won
Chief Manager Yim Young-Kyun
Producer Kim Young-Won

COOPERATION MEDIA 

등록번호 서초 라 00181
등록일 2007년9월18일
발행처 (주)타이콘 비즈 네트워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
경중빌딩 3층
대표전화 02)535-8119
FAX 02)535-8110
인쇄처 한솔인쇄문화

All copy-right reserved
ECONBRAIN

이 책자에 수록된 모든 컨텐츠는
타이콘비즈 네트워크 소유물이므로
무단사용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8 공감 36.5

함께 느끼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감동하는 아름다운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을 소개하는 '共感 36.5'의 두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현
대자동차그룹과 정몽구현대차재단이다. 4대 무브 운동을 기반으로
사회 구석구석을 찾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담았다.



84 ZOOM IN

- ① 최태원 SK그룹 회장 “계열사 중심 성장 플랫폼”
- ② 구본무 LG그룹 회장 “어려울 때 진짜 실력 드러나”
- ③ 허창수 GS그룹 회장 “성장잠재력·지리적 이점 많아”
- ④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글로벌시장 신성장 사업이 관건”
- ⑤ 조원태 대한항공 전무 “KAI 인수 테크센터와 경쟁 발전”
- ⑥ 이규호 코오롱 4세·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癸巳年엔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되길

아담 스미스, 리카도, 맬서스, 스펜서, 베블렌, 마르크스, 레닌.... 이들은 지난 200여 년간 국부론, 투하노동가치설, 인구론, 신호이론, 제도학과, 자본론, 신경제 정책 등의 경제 논리로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론가들이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만큼은 이들의 논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시장은 이들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론 이들의 논리는 먼 미래를 위한 예측이 담겨 있기도 했다. 반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불확실성'과 매일 전투를 하고 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매 순간, 건건이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지식을 쌓아 사회에 진출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 청년들의 좌절이 시대정신으로 싹트고, 묻지 마 폭력을 걱정하면서 퇴근길 종종걸음을 걸어야 하는 시대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찾는 걸 포기(윤리와 도덕의 상실!)하는 게 속편하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사람 목숨을 쉽게 유린하기도 한다.

정치권은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권력만 탐하기 때문이다.

공권력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뇌물과 횡령, 성추문의 한복판에 서는 등 몰염치, 몰상식 집단이 되고 있다. 이런 사회 전반의 복잡계(複雜系)는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정신세계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면에서 현대 사회는 경제학자보다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제 몫을 해야 한다.

준거집단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대정신을 재정립하고 단편화되고 있는 인간사회를 다면화 시켜야 한다.

물론 경제학자들이 나서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특단의 대안으로 경제를 희생시킨다면 사회적인 문제점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경제적인 동물인 까닭이다. 경제

적인 동물은 해마다 이맘때면 다가올 해의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모건스탠리(MS)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7% 정도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3.2%, 한국개발연구원은 3.4%, 기획재정부 4%를 전망했다. 이들 전망에는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올해처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으면 2%대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진 때는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2.8%)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2.3%), 2009년(0.3%) 등 이었다.

외생 변수 중 하나인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반면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딘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쉽게 제거될 것 같지는 않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가 바닥권에서 오래 머무르는 'L자형'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불확실한 미래다. 경제가 나아져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월 19일면 이 나라를 5년간 이끌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

우리 국민은 '경제 대통령'을 가장 원한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경제 불확실성을 확실한 정책대안으로 바꾸고 사회불안을 명쾌히 제거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사회통합을 통해 복잡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에는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되길 기원한다.

“올 한해 에콘브레인을 아껴주신 독자제현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EconBrain 편집장 유성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경제민주화법은 기업가 정신 죽이는 악법”

한국경제연구원은 1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의 기업가정신 실태와 제고방안’, ‘기업·기업인에 대한 인식과 반기업정서’에 대한 주제발표와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본지는 심포지엄 중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복거일 경제평론가 겸 소설가의 주제 발표와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송세련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종합토론 내용을 싣는다. 한편 첫 발표자로

나선 정규재 논설실장은 경제민주화법안은 기업가 활동의 대부분을 범죄로 만들어 기업가정신의 발양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법안의 부작용을 면밀히 평가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업가는 자유로운 정신을 가졌고 경제는 그 자유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기업이 활동의 대부분을 범죄로 만들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제의 도입과 현행법의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는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있어 반대한다.

지금도 규제는 넘치고 있어 기업가 정신에 대한 평가 수단을 명확히 하고 경제민주화법이 초래하는 수많은 부작용을 비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법은 기업가정신 발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전개를 범죄화해 허가받은 행위만 하라는 명령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상상력은 당국의 허가범위 내에 있을 수 없어 국가가 허가하는 사업에선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다.

더구나 기업 내부 의사결정과 외부 계약 관계 일체를 범죄로 보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소위 민주적 투명성에 입각한 사회적 통제를 가하고자

한다면 이는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경제적 자살 행위이다.

정의론적 인간 VS 합목적적 인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는데 정의론적 인간과 합목적적 인간이 그것이다. 정의론적 인간은 수단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며 합목적적 인간은 목적 합리적 인간이라고 한다.

정의론적 인간은 과학적 지식에 입각한 해결방법을 찾고 주어진 조건을 잘 분석해 대응 방안을 찾으며 대부분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인다. 인간의 행위를 정의론적 합리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정당화시키고 수단에 대해 경시하면서도 수단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이에 속하는 인물유형이다.

기업가는 합목적적 인간 유형에 포함되는데 그들은 주어진 조건을 바꾸고 수단의 정당성보다는 목적 우위와



결과의 정당성을 추구하며 주어진 조건을 새로운 조건으로 전환시키려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계산한다.

수단을 중시하지만 수단의 정당성에 대해선 경시하는 특성을 보인다.

대체로 반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윤 추구행위에 대해 중요하며 과대한 이윤은 도덕적 불성실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다양한 활동이나 관심의 결과물을 혐오하고 위에서 정의한 기

업가적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이윤추구 행위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며 물질을 혐오하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기업은 시장거래를 내부화 한 것으로 시장의 수평적이며 공개된 의사결정 과정과는 달리 수직적 과정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을 운용할 때 CEO와 종업원을 대등한 관계에 놓으면 기업은 존립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은 거래비용을 내부화하는 장치로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조직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본질적으로 불투명한 거래를 내부화한 것이고 그 결과 기업 투명성은 결코 시장거래 투명성에 이를 수 없다.

기업 행위를 범죄로 보고 예비 단속적 규제를 강화하자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기업 자유에 속할 사항을 대부분 범죄 목록화 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정치세력들이 내걸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 명분은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공약 발표문에서도 법안 정리 표 등에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세 가지 범주' 등으로 요약돼 제시된 바 있다.

기업가 활동 제약하는 경제민주화법

경제 민주화 관련 규제는 기업 내 의사결정의 통일성을 해치고 공정 거래를 파괴하면서 기존 거래선만 우대하

게 될 것이다. 또 도전적 비즈니스에 대한 위험회피적 선택을 선호하게 만들어 무엇보다 신규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우려된다. 이것은 대부분 기업가의 판단이나 자유에 속하는 것들로 경제민주화법이 시행되면 기업가 정신을 침해하고 기업가 활동을 제약하는 등 시장의 자유에 심각한 타격을 안길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목록을 기업가 활동을 제약하는 특성별로 구분해 재정리하면 영업할 자유를 규제, 소유권 행사 규제, 사업을 선택할 자유와 계약할 자유를 제한, 기업 구조와 형태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 기업가를 범죄자로 규정, 기업의 통일성 훼손 등의 6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업가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행동들의 특성을 분류한 것으로 이 행위들을 규제하거나 통제함으로써 기업가는 갈수록 위축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에 포위될 수밖에 없다.

이 규제가 법제화할 경우 기업가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명 불법이거나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을 선택해 줄여갈 것이다.

아마도 더욱 극적으로 기업가들은 세간의 이목을 피하는 적절한 보수적 행동패턴을 보일 것이며 투자의 약화, 중대 의사결정의 회피, 보신적 태도 등이 누적되면서 기업가 활동 자체를 줄여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경제민주화법 중 많은 항목들이 기업가의 활동을 예비적 범죄로 취급하

거나 그 결과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매기는 것이 목적이며 결국 예비적 범죄를 줄이는 것이 자연스런 반응일 것이다.

경제민주화 정치권 우위 확보 수단일 뿐

경제민주화법은 ▲자본규제를 통한 창업과 투자의 통제 ▲내부거래 고유업종 등을 통한 사업 종류 제한 ▲지주사 규제 등을 통한 회사 구조 설계에 개입 ▲계열사 편입 심사제 등을 통해 투자 출자 제한 ▲각종 의결권 규제로 소유권 훼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의해 계약 자유 침해 ▲업무상 배임 등을 중처벌함으로써 기업가 고유의 기능인 위험선택 행위 제한 ▲사장단 회의 등을 규제해 의사결정 단일성 훼손 ▲집중투표제 등을 통한 대주주 역차별 ▲지분조정 명령제 등으로 소유권 제한 등으로 기업가 정신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기업을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최악이 현재 경제민주화법이다.

경제민주화법은 소유권에서 다소 유보를 두고 있는 것 외에 일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법률적 경성 규제를 가해 열악한 조건을 만들게 된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경영자의 기업가성을 부정하고 그들을 합리적 정의론적 관리형 인간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도덕주의적 사회를 만들어낼 뿐 활기차고 발전하며 성장하는 역동적인 사회와는 거리가 있어 경제에 대한 정치와 대중의 우위를 확고히 하자는 것일 뿐이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경제민주화는 경제발전기능 차단할 것”

좌승희 이사장은 기업생태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성장하는 기업을 역차별해 기업의 경제발전기능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활동의 집합체이자 수직적 명령 조직인 기업이 민주화의 대상이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몇 가지 이론을 통해 정의 내릴 수 있다. 정보비용이론에선 시장이 항상 경제주체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 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차별화 돼 있는 정보에 의해 그것이 불확실할 수 있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은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해 성과측정과 그에 다른 보상을 산정할 때 드는 정보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등장했다.

이는 기업의 경영적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기업은 시장이 가지지 못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팀 생산의 효율 제고를 가능하게 한다.

거래비용이론에서의 시장은 쌍방 간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항상 정(正)의 거래비용을 부담한다.

이때 거래비용이 높은 경제활동은 시장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높은 외부 경제효과를 발생하는 활동은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 높다.

기업은 내부 자원배분을 합의가 아

니라 명령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거래비용을 회피 혹은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질 운명인 고(高) 거래비용활동을 내부화하는 장치인 것이다.

생산효율성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자급자족 생산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생산에 전문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한 생산효율성 제고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 등장한다.

이것은 최종재의 생산 공급자로서의 기업의 역할 강조한 것이다.

기업성장이론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인적 물적 자원을 집적해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기업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 이론은 기업경영이론에 가깝고 단일 제품생산에서 제품 및 시장 다각화를 추구하는데 따르는 경영자원의 한계 극복 여부가 기업성장의 한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기업성장의 한계나 기업성장과 경제성장,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없다.

게다가 기업의 성장을 기존 제화 생산의 규모증가로 보지 않고 새로운 기



회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과정으로만 인식한다. 시장의 차별화 기능 실패를 교정하는 장치로 기업을 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정보비용이나 거래비용으로 인해 시장이 동기부여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이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치로써 시장에 등장한다.

이때 기업은 직원간의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창발을 주도하는 주체이며 시장은 개인과 기업들 간의 거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장치가 된다. 새로운 기업의 등장은 시장이 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장에 내놓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은 발전의 영역을 넓히는 기능을 한다.

차별적 동기 부여자 기능 가진 시장

경제발전의 원리는 경제적 차별화 원리라 할 수 있다.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움으로써 경제사회 구성원들을 스스로 돕는 자로 변신시키는 경제사회 진화의 추진 메커니즘이다. 시장은 경제적 차이, 차등, 차별을 만들어냄으로써 동기부여를 통해 모두를 스스로 돕는 자로 변신시키는 차별자이다.

이는 성공노하우의 복제전파를 가속화시키는 장치로 발전의 기본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시장은 정의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으로 인해 성공노하우의 무임승차 혹은 무단복제에 직면하게 돼 성과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보상을 결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시장이 차별적 동기 부여자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은 발전을 일으키는데 실패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성공노하우의 무단복제현상으로 인해 진화에 실패하는 것이다.

반면 기업은 성과와 보상을 일치시켜 차별적 동기부여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시장 차별화에 실패했을 때 보정장치로 등장한다. 조직 내 자원을 명령에 의해 배분함으로써 정보비용 혹

은 거래비용을 회피하거나 절약해 시장보다 더 효율적으로 동기부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경제발전의 필수적 요인인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도 성공노하우의 무단복제에 직면할 때가 있다.

시장 역시 높은 거래비용과 정보비용 때문에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여기서 발전은 또다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이때 정부가 등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정책기능을 통해 경제적 성과가 높은 주체를 우대하는 시장의 차별화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강화시킨다.

기업이 새로운 소비시장(수요)을 개척할수록 시장의 영역은 확대된다.

그리고 요소공급기업과의 거래관계를 만들어 내면서 시장의 영역은 더욱 커진다. 이때 거래비용이 높으면 새로운 거래관행을 만들어 내면서 거래비용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소시장을 수직결합으로 내부화하면서 최종재 시장의 수요에 적응해 간다.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의 하락은 기업의 규모를 축소시켜 시장의 영역을 확대시킨다. 그러나 생산이론은 최종재 시장이 확대되면 기업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장의 거래비용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최종재 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빠른 성장단계에서는 최종재 생산증가에 따른 자산증가효과가 수직적 분할에 따른 자산감소효과를 능가할 가능성이 커 자산규모로 본 기업규모는 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어느 방법으로 기업규모

를 측정하든 기업규모는 전체 경제의 성장, 발전과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경제 민주화 대상 될 수 없어

좁은 의미의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기업생태계의 균형을 추구하면 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가 되거나 대기업이 해체되면서 실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성장하는 기업을 역차별 하지 않고 기업생태계의 균형 달성은 불가능 하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가 기업경제이므로 기업의 성장이 없으면 경제발전도 불가능하다.

또 영원한 일등 기업도 일등 경제도 일등 문명도 없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위한 경쟁을 통해 국가 경제도 발전하는 것이다.

기업은 고 거래비용이 드는 경제활동의 집합이기 때문에 시장처럼 투명할 수 없고 수직적 명령 조직이므로 기업은 민주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이것은 경제 또한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시장경제의 본질은 경제적 차등과 차별, 경제력집중과 불평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오래된 경제민주화의 역사 속에 사민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경과평등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대기업 지배구조 민주화에서 해체까지 현범을 왜곡하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난무해 오늘날 경제적 어려움의 뿌리가 되고 있다. 

복거일 경제평론가 · 소설가

“자본주의 내부 위협은 소득 양극화 때문”

소설가이면서 경제평론가인 복거일은 재벌에 대한 반감의 이면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자리하고 이는 대중매체의 영향력과 민주주의의 특세로 인해 증가하는 것이라며 자유주의 이념 확산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반기업 정서’는 ‘사회적 악한’이 된 지 오래인 재벌에 대한 반감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다.

재벌이 악한이 돼버린 상황은 결국 그들에 대한 징벌적 규제들을 불렀다.

특히 이번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들고 나온 규제들은 결국 경제민주화가 실질적 재벌 지배구조의 직접 규제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구현한 체제인 만큼 모든 시민들에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만 실상은 비호의적이다.

이런 역설적 상황은 자본주의에 심각한 해를 입힌다.

자본주의는 인류에게 물질적 번영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인류의 자유에 필요한 선행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전망은 상당히 흐려졌다.

자본주의의 중심적 기구는 시장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지지하기보단 싫어하고 억누르려 한다.

상업 천시,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 재산권의 불충분한 보호, 기업 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 비현실적인 노동법, 전투적 노동조합,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보호무역 조치들은 모두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게 만든다.

시장이라는 환경에 대한 이해도 너무 부족하다.

세계화로 인해 우리 경제가 이미 세계 경제 속으로 편입됐음에도 많은 논의들은 우리 사회를 높은 국경이 둘러싸고 있다는 암묵적 가정 아래 진행된다.

자본주의와 시장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본주의에 크게 적대적이라는 역설은 뿌리가 깊다.

자본주의의 진화와 사회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성찰한 슈페터는 그 역설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진화에서 필연적으로 나온 것이며 자본주의에는 ‘자기 파괴의 경향’이 내재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반감 뚜렷한 시장경제

문화의 기본 단위는 ‘밈(meme)’이다. 이념이나 이론과 같은 견해들은 수



많은 밈들로 이루어져서 ‘밈 복합체’라 불린다.

복제가 쉽고 전파력이 큰 밈은 모두 사람들의 직관에 맞는 것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직관을 통해 세상을 살피고 옳고 그름을 판별한다.

그래서 직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생각들이나 그것에 거스르는 생각들은 사람들의 뇌에서 복제가 어렵고 전파력이 약하다.

직관에 관해 늘 문제가 되는 밈은 개인들의 이기심에 관한 것이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조화를 이루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와 정부가 개인의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생각은 직관에 맞고 복제 능력이 뛰어나다.

정보의 생산, 유통, 저장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이 아주 낮아진 현대 문명은 mim들의 복제와 전파에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은 크고 널리 퍼졌을 뿐 아니라 점점 더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품은 반감은 지적 능력이나 상상력의 부족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강렬하다.

반감이 특히 뚜렷한 부분은 경제적 측면인 시장경제다.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의 뿌리를 살피는 일에선 시장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살피는 것이 좋다.

시장경제에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사회는 그런 경쟁들을 통해 끊임없이 보다 나은 길들을 찾는다.

그리고 정부는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돕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는 최대한의 복지를 누리며 불운하거나 가난한 사람들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시장경제를 좋아하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흔히 이념에 바탕을 두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은 본질적으

로 생물적 요인이다.

최상층을 제외하면 자신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는다.

그것은 곧 자신들보다 사회적 지위나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과 미움으로 바뀌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보다 평등한 사회의 청사진을 내놓는 사람들의 추종자들이 된다. 그런 행태는 시장 경제에 호의적이지 않다.

부러움의 정치 심화시킨 소득 양극화

현대 문명에서 자본주의는 꽃을 활짝 피웠고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불렀다.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사회에선 사회적 지위와 상대 소득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다수파가 돼 정치권력을 쥐었다.

이런 상황에서 평등은 가장 높은 이상이 됐고 '부러움의 정치'가 현대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됐다.

하지만 부러움의 정치는 처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소득 재분배가 사회적 목표였지만 근년에는 '평등 자체를 위한 평등'이 목표가 됐고 필연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비합리적 침해가 점점 심해졌다.

이런 폐해로 인해 자본주의는 자신에 대한 내재적 위협을 키우고 말았다.

근년에 심해진 소득 양극화는 불평등이 삶의 본질적 특징이라는 근본 원인으로 인해 부러움의 정치를 심화시켰다.

양극화는 삶의 본질적 부분이며 없앨 수 없다. 그것을 아예 없애려 하면 삶 자체가 억제당하고 약화된다.

양극화는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줄여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자연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체제에 대해 반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지 부자들의 재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문제일 수 없다는 얘기는 합리적이지만 어느 사회에서도 통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할 만한 대책은 안타깝게도 거의 없다. 하지만 시민들이 선동가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부러움이 분노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부당하게 큰돈을 버는 사람들이 없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 그 체제는 안정될 수 없다.

자본주의에 대한 외부 위협은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거의 사라졌지만 내부적인 위협은 계속 자라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에 해로운 mim들의 전파와 활동에서 나오므로 근본적 대책은 그것들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면 자본주의를 크게 위협할 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엔 없을 것이다. 

“미래 변화 위한 기업가정신 절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한 국경제가 가진 문제점 중 하나는 2005년을 전후해 기업생태계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기업의 경우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잠재성장률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 성장기에 제조기업을 설립한 창업자들이 60, 70대 연령에 이르고 있는 현 시점에 새로운 기업 설립은 줄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0년 초부터 이런 상황이 진행돼 경제 성장률을 2%이하대로 만든 핵심원인이 됐다.

기존 중소기업들은 너무 내수 의존적이다. 국내 기업은 모방시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위기를 맞을 것이고 어려운 시기지만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도전과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오히려 현재의 기술이 아니라 미래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진 CEO의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기찬 교수(좌측 첫 번째), 송세련 교수(좌측 두 번째), 신광영 교수(우측 두 번째) 등은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에 참여해 현 시점에서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기업가정신 및 기업과 국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런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은행의 기업신용평가능력이 제고돼야 한다. 대출 시 담보에 의존하는 현재 방법은 단일한 방식이고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투자를 가로 막고 있다.

은행이 기업가정신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을 평가하는 비중이 낮을수록 투자와 기술 개발에 힘 쏟

는 기업이 우리사회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현실도 주시해야 한다.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중소기업은 수출관련 파이낸싱이나 무역보험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미래를 의욕적으로 준비하는 기업가를 선별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인프라가 절실하다.

“경제 민주화 근간될 환경 조성해야”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경영판단의 원칙과 기업가정신, 정부의 역할과 규제방향, 그리고 경제 민주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형법 355조2항, 356조와 특경가법 3조에 의해 횡령과 배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규정한다.

그러나 형법 356조와 특경가법 3

조는 법 적용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다.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정황만으로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300만개가 넘는 중소기업과 3000여개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있다.

이 기업가들이 모두 이런 불안에 처해 있는 것이고 이는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요소여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산업과 경제구조 개선을 통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
기서 생기는 잉여기회가 중소기업에
분산될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정부가 시장 공정성을 꾀하는 것
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경제행위에 제
재를 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간섭이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많
다. 인위적인 규제방법론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

현재 경제민주화는 사회 양극화 해
소, 복지제도 강화를 위한 선단계로
정부 역할을 포괄적으로 지칭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재벌정책에 초점이 맞
춰 있다.

그것보다는 경제민주화의 근간으
로 추진할 만한 정책적, 법률적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나 제한은 중
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육성과 산업구
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시 한 번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
해선 중견, 중소기업의 힘을 키워야
한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
신이 살아있고 창의적으로 기업 활동
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기업 · 국민 상생 위한 인식 전환 필요”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1세기 들어 미국식 시장경제
가 국제 표준이 되지 못했
다. 이에 서구 자본주의는 크게 자유
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로 나뉘지
게 됐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시장경제는 주주 이익 극대화를 최
우선으로 하는 기업경영이다.

이 체제에선 피고용자, 소비자, 커
뮤니티, 국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
들의 이해관계는 경영에서 중시되지
않는다. 반면 조정시장경제에선 다
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조정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지므로 이해 당
사자들의 이익이 중시된다.

여기서 기업은 시장과 사회 속에
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기업관을
특징으로 한다.

권위주의 시대 한국 경제체제는
대기업이 국가의 거시적 경제기획
을 담당하고 직업 자원의 배분을 담
당하면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수출지원도 함께 맡았다.

당시 정부는 대기업을 통해 혼합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병존시켰다.

이런 환경에서 형성된 기업형태는
혁신을 토대로 하는 성장이 아니라
정부 지원과 국내시장 보호를 통한
것이였다.

이렇게 외부 금융지원 없이 오직
내부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기
업 형태를 경성예산 제약형 기업이
라 한다. 대기업은 정부 지원에 힘입
어 성장했고 정경유착을 통해 경제
적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체제의 한계는 1997년 외환
위기 때 가시화돼 세간의 비난을 받
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 후에도
그 충격은 사회양극화, 청년실업, 빈
곤층 확대, 저출산, 높은 자살률, 중
산층 몰락 등 비관적인 사회 현상으
로 이어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
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다.

이런 현상들의 핵심은 경제적인
불안과 불확실이다.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계속 보이
고 있지만 성장이 소수 대기업과 수
출기업에 집중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이며 국가는 절대 다
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
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로 나타
나는 상황이 도래해 청년 백수, 베이
비부머 문제, 중년 여성의 취업 등도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 기업이 이런 문제를 직접 책
임져야 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보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한다.

개인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처
럼 기업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은 사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
다. 기업과 국민이 서로 다른 방향으
로 눈을 돌리고 서로 대립한다면 점
차 퇴보할 것이다.

기업과 국민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JOHNSTON & MURPHY®
Since 18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9-2(언주로542) 굿맨타워 1층
02-581-3963 www.johnstonmurph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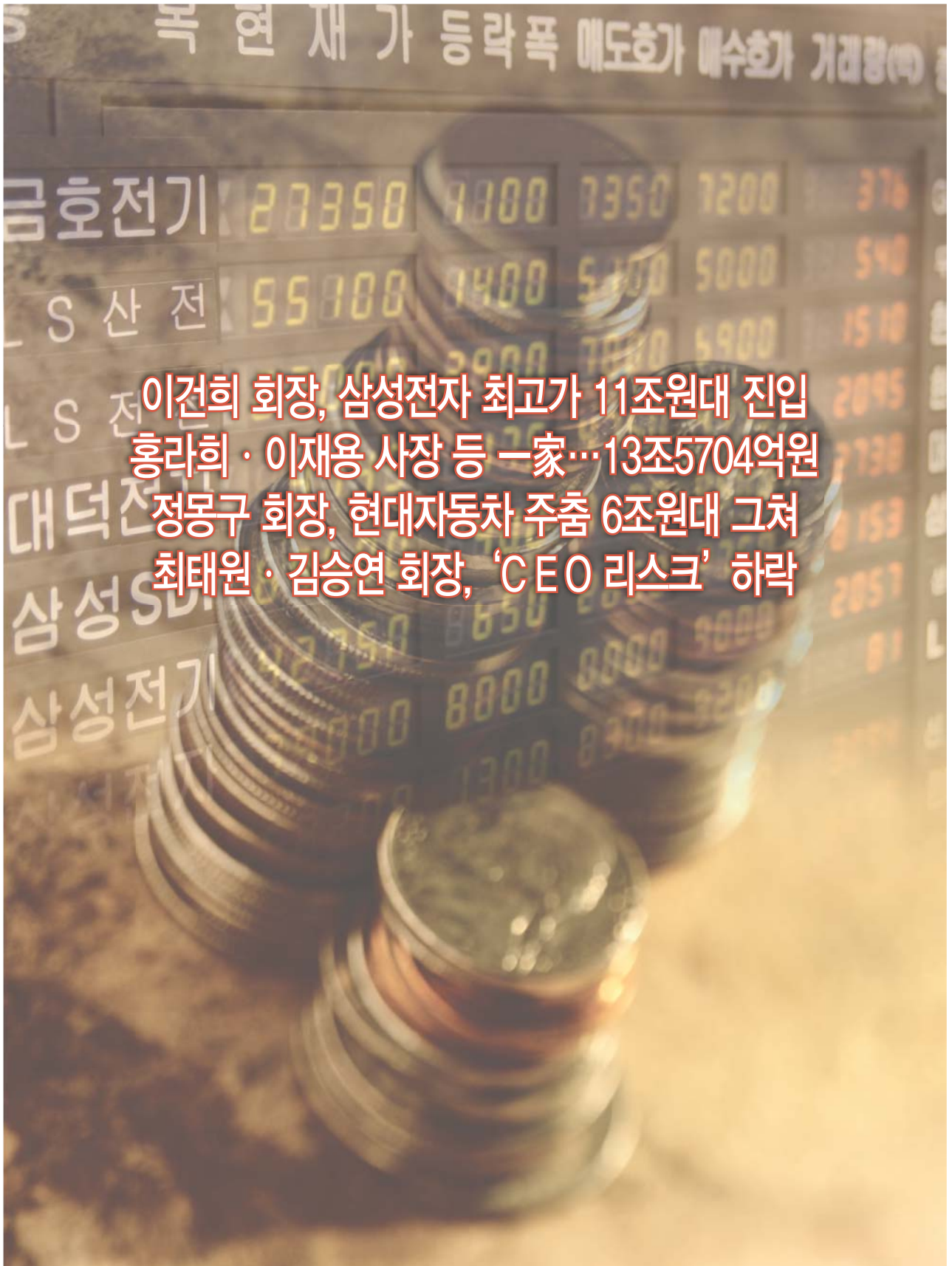
SETTING THE NEW STANDARD

변호사

아론 로젠버그

아론 로젠버그는 도회적이고 세련된 옷차림의 은행가와 변호사가 선호하는 브랜드 존스톤앤머피의 세인트루이스 매장에서 십대시절 일한바 있습니다.

현재, 아론은 변호사로서 음악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패션을 통해 자신의 크리에이티브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의 스타일은 내추럴할 뿐 아니라 정체성의 필요 불가결한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두는 회의실에서 누가 보스인지를 보여주며, 그가 유명인사인 클라이언트와 외출했을 때 그를 멋지게 연출해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경배 대표, 2조9983억원 3위로 경총 이재현 회장, CJ주가상승 33.8% 증가



삼성전자 이근희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화경 오리온 사장

올 해 기업 총수 가운데 가장 주식자산이 많이 불어난 사람은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 회장의 상장 계열사 보유 지분 평가액은 11월21일 종가 기준, 10조9084억 원에 달한다. 연초보다 22.8%가 증가했다. 금액 면으로 2조원을 웃돈다.

특히 11월22일 삼성전자 주식이 141만7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이 회장의 지분가치는 11조661억 원에 달해 지난 4월 이후 다시금 11조 원대를 넘어섰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3.38%, 삼성전자(우) 0.05%,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1.4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 지분 0.74%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삼성리움미술관 관장도 1조4989억 원 상당으로 연초 주식부호 순위 15위에서 일약 10위권으로 뛰어 올랐다.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도 20위에서 16위로 상승했다. 이 사장의 지분평가액은 1조1631억 원 상당이다. 이들 이 회장 一家의 주식자산을 모두 합하면 13조5704억 원 상당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은 승승장구하던 현대차 주식에 주춤하면서 지분가치가 연초보다 2281억 원이 감소한 6조2814억 원에 그쳤다.

정 회장은 그룹 상장계열사 중 현대제철 12.58%, 현대

자동차 5.17%, 현대하이스코 10%, 현대모비스 6.96%, 현대글로벌비스 11.51%를 각각 보유중이다.

반면 외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부친과는 달리 연초보다 8.5%가 증가한 2조9638억 원 상당의 주식자산을 보유 중이다.

정 부회장은 기아자동차 1.74%, 현대글로벌비스 31.8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주식부호 순위로는 서경배 대표에 밀려 4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는 기업 총수가운데 보유지분 가치가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주식부호 3위에 자리매김했다.

연초 7위에서 4계단이나 올랐다. 연초 1조7691억 원으로 출발한 서 대표의 지분가치는 11월21일 종가 기준으로 2조9983억 원을 기록, 무려 69.5%나 증가했다.

금액 면으로도 1조2291억 원이 불어났다. 서대표가 55.7%의 지분을 갖고있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주가는 연초 24만8000원에 출발해 11월21일에는 48만4500원으로 경총 뛰었다.

또 10.72%을 보유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연초 104만9000원에서 131만5000원으로 올랐다.

수백억 원대의 회사돈을 빼돌려 개인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게 징역 4년의 구형을 받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지분가치가 연초보다 23.7%가 감소한 1조 7624억 원에 그쳤다. 순위도 한 단계 밀려 5위에 랭크됐다. 12만1500원으로 출발한 SKC&C 주가가 9만2600원으로 내려앉은 탓이다. 최 회장은 SKC&C 지분 31.8%를 보유, 그룹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다.

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약진도 눈에 띈다. 이 회장의 지분가치는 1조3565억 원 상당. 연초에 비해 33.8% 증가했다. 부친 이맹희 씨와 삼촌인 삼성전자 이근희 회장과의 재산 분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피나 선 방하고 있다.

연초 7만7000원으로 출발한 CJ 주가가 11월21일 증가 기준 10만65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CJ 지분 42.32%를 보유하고 있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도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 사장과 함께 지분가치가 연초보다 63.2%나 증가

했다.

이들 부부는 각각 8299억 원, 9139억 원 상당의 오리온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딸인 이화경 사장(14.57%)이 사위인 담 회장(12.97%)보다 지분이 더 많다.

오리온 주가는 연초 66만원에서 시작해 11월21일 증가는 107만7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한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1조4328억 원),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8905억 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8055억 원), 허창수 GS그룹 회장(6067억 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5407억 원), 이수영 OCI그룹 회장(3982억 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2732억 원),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2238억 원),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1586억 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1332억 원) 등 과거 재벌가의 총수들의 주식자산이 대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DOWN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정주 NXC 대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수영 OCI그룹 회장

순위	11.21	1.2	성명	나이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증감률 %	순위	11.21	1.2	성명	나이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증감률 %
						2012.11.21	2012.1.2								2012.11.21	2012.1.2	
1	1	이근희	70	삼성전자 회장		109,084.0	88,819.1	22.8	15	14	정용진	44	신세계그룹 부회장		11,910.5	11,866.9	0.4
2	2	정몽구	74	현대차그룹 회장		62,814.8	65,096.1	-3.5	16	20	이재용	44	삼성전자 사장		11,631.2	9,076.4	28.1
3	7	서경배	49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29,983.0	17,691.1	69.5	17	28	이화경	56	오리온 사장 (담철곤 회장 부인)		9,319.9	5,712.3	63.2
4	3	정지선	42	현대자동차 부회장		29,638.3	27,318.8	8.5	18	21	구본준	61	LG전자 부회장		9,299.4	8,726.5	6.6
5	4	최태원	52	SK그룹 회장		17,624.8	23,109.4	-23.7	19	16	조양래	75	한국타이어 회장		8,905.6	10,977.3	-18.9
6	11	신동빈	57	롯데그룹 회장		16,905.0	16,372.1	3.3	20	35	담철곤	57	오리온그룹 회장		8,299.7	5,086.1	63.2
7	12	신동주	58	롯데홈쇼핑 부회장		16,195.7	15,627.2	3.6	21	22	정지선	40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8,055.2	8,115.9	-0.7
8	5	김정주	43	NXC 대표이사		15,535.4	23,011.5	-32.5	22	30	채진영	65	화풍집단지주 대표		6,945.6	5,649.1	23.0
9	6	정몽준	61	국회의원		15,396.9	19,950.4	-22.8	23	19	유정현	43	김정주 넥슨회장 부인		6,761.0	10,014.5	-32.5
10	15	홍라희	67	삼성리움미술관 관장(이근희 삼성전자 회장 부인)		14,989.7	11,697.2	28.1	24	24	정몽운	57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6,693.8	6,460.0	3.6
11	8	이명희	69	신세계그룹 회장		14,318.0	17,219.4	-16.8	25	17	김준일	60	락앤락 회장		6,692.8	10,888.5	-38.5
12	18	이재현	52	CJ그룹 회장		13,565.2	10,138.6	33.8	26	29	구본능	63	희성그룹 회장		6,128.5	5,681.1	7.9
13	13	구본무	67	LG그룹 회장		12,795.4	11,868.0	7.8	27	23	허창수	64	GS그룹 회장		6,067.1	7,947.8	-23.7
14	9	서정진	55	셀트리온 회장		12,118.5	16,607.5	-27.0	28	40	이해진	45	NHN 이사회 의장 CSO		5,845.3	4,671.7	25.1

지분가치 1천억 이상 주식부호 177명 20대 김동관실장 부터 90대 신격호회장 까지

에콘브레인이 11월21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평가한 결과 지분가치가 1천억 원 이상인 주식부호는 모두 177명에 달했다. 이들 부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가치를 모두 합하면 79조731억 원 상당에 달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15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견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포진해 20조5617억 원의 지분을 보유, 제일 지분가치가 높았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8% 상당이다.

그 뒤로는 40대(24.3%), 50대(22.5%), 60대(20.6%) 순이다. 인원포로는 50대(48명), 60대(47명), 40대(40명), 30대(19명), 70대(15명) 순으로 포진해 있다. 80대도 5명이 있고 90대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유일하다. 20대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라원 기획실장과 이정훈 서울반도체 회장의 차남인 이민규 군 두 명이다. 10대는 없다.

1천억 원대 주식부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주식자산이 불어난 부호는

‘미샤’ 화장품으로 성공한 서영필 에이블씨엔씨 회장이다. 서 회장은 연초 증시개장 때 지분평가액이 801억 원 상당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분평가액이 210%나 증가한 2487억 원 상당에 달한다. 주식부호 순위도 220위에서 일약 62위로 무려 158계단이나 뛰어 올랐다.

서영필 회장 ‘미샤’로 대박

에이블씨엔씨의 주가는 1월2일 2만8350원에서 출발해 11월21일에는

순위	성명	나이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증감률 %	순위	성명	나이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증감률 %
				2012.11.21	2012.1.2						2012.11.21	2012.1.2	
29	구광모	34	LG전자 차장(구분부 LG그룹 회장 아들)	5,682.1	5,309.4	7.0	54	박철완	34	글로벌화학 상무(박정구 전 금호 명예회장 장남)	3,056.2	5,017.7	-39.1
30	김승연	60	한화그룹 회장	5,407.5	5,625.7	-3.9	55	천종윤	55	씨젠 대표이사	2,846.6	2,957.3	-3.7
31	정몽진	52	KCC 대표이사 회장	5,362.4	5,175.5	3.6	56	허진수	59	GS칼텍스 부회장	2,772.0	3,722.8	-25.5
32	구본식	54	희성그룹 부회장	5,249.2	4,900.6	7.1	57	허응수	44	GS리테일 부사장(허원구 승산그룹 명예회장 장남)	2,758.2	1,959.3	40.8
33	김영식	60	구분부 LG그룹 회장 부인	5,010.6	4,672.3	7.2	58	이복영	65	삼광유리공업 회장(고 이희림 회장 차남)	2,735.5	3,717.5	-26.4
34	최기원	48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최태원 SK그룹 회장 동생)	4,861.5	6,378.8	-23.8	59	신격호	90	롯데그룹 회장	2,732.8	2,898.3	-5.7
35	이준호	48	NHN 이사 CAO	4,707.0	3,762.0	25.1	60	정몽익	50	KCC 사장	2,661.2	2,568.5	3.6
36	김남호	37	동부제철 부장(김준기 동부그룹회장 장남)	4,665.7	5,449.6	-14.4	61	정지완	56	솔브레인 대표이사	2,615.5	2,321.2	12.7
37	박관호	40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의장	4,549.0	3,455.0	31.7	62	서영필	48	에이블씨엔씨 회장	2,487.0	801.7	210.2
38	장형진	66	영풍 회장	4,337.4	3,315.0	30.8	63	송병준	36	게임빌 대표이사	2,458.1	1,289.9	90.6
39	정교선	38	현대백화점 부회장(정몽근 명예회장 차남)	4,259.1	3,923.2	8.6	64	강호찬	41	넥센 부사장(강병중 넥센 회장 장남)	2,434.1	2,106.1	15.6
40	김호연	57	전 빙그레그룹 회장	4,086.5	2,040.0	100.3	65	조석래	77	효성그룹 회장	2,420.0	1,944.9	24.4
41	김남구	49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4,086.0	4,024.0	1.5	66	이정훈	59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2,392.8	2,299.9	4.0
42	오세영	49	코라오희딩스 회장	4,044.5	2,253.4	79.5	67	정몽원	57	한라건설 회장	2,238.6	3,271.2	-31.6
43	조현범	40	한국타이어 사장(조양래 회장 차남)	4,017.1	4,954.5	-18.9	68	허경수	55	코스모그룹 회장(허신구 회장 장남)	2,226.1	1,798.4	23.8
44	이수영	70	OCI 그룹 회장	3,982.3	5,869.1	-32.1	69	장세환	32	장형진 영풍 회장 차남	2,198.1	2,332.5	-5.8
45	강병중	73	넥센 회장	3,536.4	4,087.2	-13.5	70	박준경	34	글로벌화학 상무(박정구 전 금호화학 회장 장남)	2,194.0	3,602.1	-39.1
46	조정호	54	메리츠증권 회장	3,529.5	2,323.8	51.9	71	허명수	57	GS건설 사장	2,183.5	2,654.2	-17.7
47	김택진	45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3,468.0	16,380.5	-78.8	72	이명근	68	성우하이텍 회장	2,181.2	2,187.6	-0.3
48	조양호	63	한진그룹 회장	3,299.6	3,196.6	3.2	73	허남각	74	삼양식품 회장	2,162.5	1,616.1	33.8
49	김상현	63	동서 회장	3,227.4	2,985.2	8.1	74	김석수	58	동서식품 회장	2,156.5	1,864.3	15.7
50	조현식	42	한국타이어(아일랜드와이드 사장(조양래 회장 장남))	3,226.0	3,976.8	-18.9	75	양현석	44	YG엔터테인먼트 이사	2,138.2	2,598.6	-17.7
51	장세준	38	장형진 영풍 회장 장남	3,193.8	3,458.9	-7.7	76	조현준	42	효성 전략본부장 사장(조석래 회장 장남)	2,131.8	1,830.7	16.4
52	김준기	68	동부그룹 회장	3,137.6	3,371.8	-6.9	77	이화영	61	유니드 회장(이희림 회장 3남)	2,123.1	3,138.7	-32.4
53	김원일	37	골프존 대표이사	3,136.4	2,583.6	21.4	78	정유경	40	신세계 부사장(이명희 회장 딸)	2,103.9	2,530.6	-16.9



8만4000원으로 평균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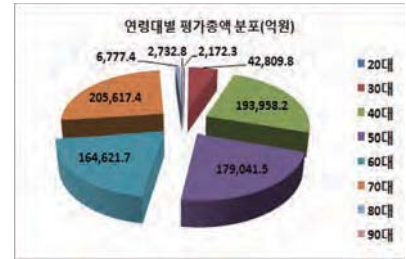
사실 국내 화장품업계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며 경기침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로드샵을 중심으로 한 중저가 브랜드의 성장이 눈에 띈다.

에이블씨엔씨 미샤는 올 3분기 40% 대의 성장을 하며 올 상반기 1 위였던 더페이스샵을 누르고 선두를 차지했다. 미샤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0.16% 증가한 1159억 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보다 48.82% 늘어난 163억 원을 기록했다. 게다가 중국이 후진타오 정권과는 달리 차기정권을 책임질 시진핑 지도부가 경제구조를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점도 에이블씨엔씨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내수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저가 화장품 사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이 회사 지분 28.64%를 보유하고 있다.

한때 주춤했던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대표도 1천억 원대 주식부호에 진입했다. 연초 1만3000원에서 출발한 주가가 11월21일 2만8750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최 대표의 지분평가액



도 460억 원에서 101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최대표가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지분은 24.95%다.

안철수 80% 줄어들어

박준형 신라교역 회장, 김석환 한세에스24홀딩스 최대주주(김동녕 한세실업 회장 장남),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김영봉 모토닉 회장, 이채운 리노공업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함태호 오투기 전 회장, 함영준 오투기

순위	성명	나이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증감률	순위	성명	나이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증감률		
11.21	1.2			2012.11.21	2012.1.2	%	11.21	1.2			2012.11.21	2012.1.2	%		
79	56	박찬구	64	금호석유화학 회장	2,022.7	3,265.3	-38.1	104	131	박문덕	62	하이트맥주그룹 회장	1,685.0	1,372.9	22.7
80	110	최창규	62	영풍정밀 부회장	2,012.7	1,624.6	23.9	105	127	홍원식	62	남양유업 회장	1,684.8	1,419.1	18.7
81	41	허재영	41	일진머티리얼즈 대표이사(허진규 회장 차남)	2,001.8	4,259.7	-53.0	106	78	이호진	50	전 태광그룹 회장	1,673.4	2,198.0	-23.9
82	69	조희원	45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차녀	1,987.2	2,449.7	-18.9	107	88	박정원	50	두산건설 회장(박용곤 회장 장남)	1,669.5	1,946.7	-14.2
83	103	정용규	50	현대산업개발그룹 회장	1,956.7	1,735.8	12.7	108	151	허동수	69	GS칼텍스 회장	1,640.1	1,203.4	36.3
84	94	이수만	60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1,948.0	1,869.2	4.2	109	126	이기형	49	인터파크 회장	1,614.7	1,420.5	13.7
85	71	구분걸	55	LG패션 회장(고 구자승 회장 장남)	1,939.4	2,333.4	-16.9	110	59	정성영	76	KCC그룹 명예회장	1,586.9	3,015.7	-47.4
86	108	조현상	41	호성 산업자재PG장 부사장(조석래 회장 삼남)	1,938.7	1,643.9	17.9	111	144	성기학	65	영원무역 회장	1,545.2	1,270.4	21.6
87	84	정용열	48	KCC건설 사장	1,933.7	1,984.5	-2.6	112	137	최창근	65	고려아연 회장(최기호 창업주 삼남)	1,523.0	1,311.4	16.1
88	92	신영자	70	롯데장학재단/복지재단 이사장	1,926.5	1,897.1	1.5	113	128	최창영	68	고려아연 명예회장	1,521.8	1,382.3	10.1
89	83	허태수	55	GS홀쇼핑 사장	1,864.0	2,023.4	-7.9	114	95	조희경	46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장녀	1,513.3	1,865.5	-18.9
90	120	구자열	59	LS전선 회장(구평희 E1 명예회장 장남)	1,858.5	1,464.3	26.9	115	121	이옥진	43	이재원 전 일성제지 회장 장남	1,505.1	1,455.8	3.4
91	118	이용열	56	코오롱그룹 회장	1,819.7	1,504.2	21.0	116	169	최운범	37	고려아연 전무(최창걸 명예회장 차남)	1,487.2	1,045.6	42.2
92	66	이재웅	44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	1,814.5	2,582.9	-29.7	117	105	최정운	59	최기호 고려아연 창업주 오남	1,477.6	1,717.3	-14.0
93	93	이민주	64	에이티파트너스 회장	1,789.8	1,875.7	-4.6	118	109	김주원	39	김준기 동부그룹회장 장녀	1,459.2	1,634.3	-10.7
94	106	최창원	48	SK케미칼 부회장	1,768.1	1,715.3	3.1	119	198	함태호	82	오투기 전 회장	1,454.2	933.0	55.9
95	117	조현문	43	호성 중공업PG 부사장(조석래 회장 차남)	1,764.1	1,520.2	16.0	120	170	왕위연	48	차이나킹 최대주주	1,450.3	1,041.2	39.3
96	183	허진규	72	일진그룹 회장	1,759.8	998.9	76.2	121	154	구자은	48	LS전선 사장(故 구두회 예스코명예회장 1남)	1,438.1	1,192.2	20.6
97	141	허광수	66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1,754.0	1,283.5	36.7	122	174	허승조	62	GS리테일 부회장	1,417.3	1,031.9	37.4
98	211	박준형	76	신라교역 회장	1,745.0	866.4	101.4	123	133	신춘호	80	농심그룹 회장	1,412.6	1,333.2	6.0
99	149	장철진	74	영풍산업 회장	1,739.9	1,216.0	43.1	124	102	정재은	73	신세계 명예회장	1,401.3	1,744.2	-19.7
100	164	이관희	83	이양구 동양 창업주 부인	1,726.4	1,067.3	61.8	125	136	구미정	57	구자경 회장 차녀(최병민 깨끗한 나라 회장 부인)	1,391.1	1,311.4	6.1
101	172	고희선	63	새누리당 국회의원(농우바이오 회장)	1,722.2	1,038.9	65.8	126	159	구자용	57	LS네트웍스 회장(구평희 E1 명예회장 차남)	1,389.6	1,099.0	26.4
102	101	안재일	50	성광벤드 대표이사(안갑원 회장 차남)	1,711.2	1,797.1	-4.8	127	113	양용진	59	코미팜 회장	1,383.5	1,588.1	-12.9
103	124	최재호	51	무학 대표이사	1,700.3	1,427.0	19.2	128	77	김창호	52	김준일 락앤락 대표 친인척	1,365.8	2,222.0	-38.5

1천억대 주식부호

회장, 남승우 풀무원 대표 등이 연초보다 주식 지분 평가액이 증가, 모두 1천억 원대에 새롭게 진입했다.

반면 연초대비 지분가치가 크게 하락한 주식부호도 많았다. 18대 대통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안랩이 대표적인 정치테마주로 한때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하향세로 전환, 지분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게다가 안 후보는 안철수재단에 50만주(4.99%)를 기부해 지분이 23.57%로 낮아졌다. 이에따라 안 후보의 지분평가액은 연초 5944억원에서 81.5% 하락한 1099.7억원에 그쳤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엔씨소프트 주식

■ 1천억대 연명대별 부호 1위

순위	성명	나이	성별	회사/소속/관계	평가총액(억원)	
					11.21	1.2
154	이만규	26	M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차남	1,111.7	1,068.6
51	장세준	38	M	장형진 영풍 회장 장남	5,682.1	5,309.4
3	서경배	49	M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29,983.0	17,691.1
5	최태원	52	M	SK그룹 회장	17,624.8	23,109.4
9	정몽준	61	M	국회의원	15,396.9	19,950.4
1	이건희	70	M	삼성전자 회장	109,084.0	88,819.1
100	이관희	83	F	故 이양구 동양 창업주 부인	1,726.4	1,067.3
59	신석호	90	M	롯데그룹 회장	2,732.8	2,898.3

14.7%를 박스에 매각하면서 보유지분이 9.99%로 낮아져 지분가치도 3468억원으로 연초의 1조6380억원에 비해 78.8% 하락했다.

김준일 회장 4천억 '증발'

밀폐용기 제조업으로 성공신화를 일군 락앤락 김준일 회장도 상장 당

시 '1조원거부'로 떠올랐으나 이후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 지분평가액도 연초 1조888억 원에서 6692억 원으로 38.5% 감소했다.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 그의 부인 유정현씨도 각각 연초보다 32.5%가 하락한 1조5535억 원, 6761억 원 상당의 주식자산을 보유 중이다. 

순위		성명	나이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증감률 %	순위		성명	나이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증감률 %
11.21	1.2				2012.11.21	2012.1.2		11.21	1.2				2012.11.21	2012.1.2	
129	107	정몽근	70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1,352.0	1,436.8	-5.9	154	163	이만호	32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장남	1,111.7	1,068.6	4.0
130	70	윤석근	67	웅진그룹 회장	1,332.8	2,363.6	-43.6	155	177	구자경	87	LG그룹 명예회장	1,105.1	1,029.0	7.4
131	116	이운형	65	세아제강 회장	1,328.0	1,528.8	-13.1	156	119	김병관	39	웹젠 대표이사	1,104.9	1,493.4	-26.0
132	85	허용도	64	태웅 회장	1,321.0	1,969.0	-32.9	157	176	김선혜	41	이해록 대림산업 부회장 부인 (구자경 회장 외손녀)	1,101.5	1,029.8	7.0
133	173	구자균	55	LS산전 부회장(구평화 E1 명예회장 3남)	1,310.6	1,034.0	26.8	158	26	안철수	50	18대 대통령 후보	1,099.8	5,944.6	-81.5
134	91	장화리	50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최대주주	1,289.8	1,900.9	-32.1	159	241	이재운	62	리노공업 대표이사	1,096.8	685.1	60.1
135	215	함영준	53	오뚜기 회장(함태호 전 회장 장남)	1,286.6	828.0	55.4	160	115	송호근	60	와이지-원 대표이사	1,093.0	1,566.9	-30.2
136	207	최정일	33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차남	1,282.5	881.6	45.5	161	167	김준호	65	제이브이엘 대표이사	1,090.3	1,046.7	4.2
137	165	단재만	65	한국제지 회장	1,241.9	1,058.7	17.3	162	221	허연수	51	GS리테일 부사장(하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 차남)	1,080.1	786.4	37.4
138	138	안성호	44	에이치엠대 대표이사	1,228.7	1,298.1	-5.4	163	112	이성엽	42	이충근 에스엘 회장 장남	1,079.7	1,611.5	-33.0
139	153	윤석민	48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1,212.6	1,199.8	1.1	164	222	김만수	82	동아타이어공업 회장	1,079.2	770.4	40.1
140	181	임성기	72	한미약품 회장	1,200.7	1,005.9	19.4	165	145	박용만	57	두산 회장	1,070.7	1,248.6	-14.3
141	129	이순형	63	세아홀딩스 회장	1,195.6	1,382.0	-13.5	166	182	허일섭	58	녹십자 회장	1,064.1	1,004.6	5.9
142	80	허정수	62	GS네오텍 회장	1,186.1	2,168.9	-45.3	167	158	김동관	29	한화솔라원 기획실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장남)	1,060.6	1,100.6	-3.6
143	99	김용민	36	파스텍 대표이사(김근수 후성그룹 회장 장남)	1,182.3	1,805.0	-34.5	168	210	신동원	54	농심홀딩스 부회장(신춘호 회장 장남)	1,055.4	874.1	20.7
144	90	장세주	59	동국제강그룹 회장	1,181.8	1,926.3	-38.7	169	249	이장한	60	종근당그룹 회장	1,040.2	650.7	59.9
145	152	승만호	55	서부티엔티 대표이사	1,161.0	1,200.2	-3.3	170	194	구연경	34	구분무 LG그룹 회장 장녀	1,036.8	972.7	6.6
146	191	우종인	51	비에이치아이 대표	1,160.5	983.7	18.0	171	114	이준호	66	덕산 하이메탈 대표이사	1,034.2	1,583.6	-34.7
147	135	이주성	34	세아베스틸 기획본부장(이순형 세아홀딩스 회장 장남)	1,147.7	1,324.8	-13.4	172	188	구현미	65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장녀	1,028.5	987.1	4.2
148	134	이태성	34	세아홀딩스 전략기획팀장(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4남)	1,146.2	1,325.5	-13.5	173	265	김영봉	59	모토닉 회장	1,019.2	600.8	69.7
149	197	김영찬	66	골프존문화재단 이사장(김원일 골프존 대표 부친)	1,125.5	933.1	20.6	174	336	최규옥	52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1,018.8	460.7	121.2
150	192	구본상	42	LG넥스원 부회장(구자원 LG넥스원 회장 장남)	1,122.3	983.1	14.2	175	123	김근수	64	후성그룹 회장	1,018.3	1,434.6	-29.0
151	208	박연자	67	태광실업 회장	1,119.1	874.4	28.0	176	238	남승우	60	풀무원 대표이사	1,011.0	694.4	45.6
152	139	박지원	47	두산중공업 사장(박용곤 명예회장 차남)	1,111.9	1,297.1	-14.3	177	289	김석환	38	김동녕 한세실업 회장 장남	1,007.7	551.4	82.7
153	162	이만규	26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차남	1,111.7	1,068.6	4.0								

대한민국 500대 주식부호



2012년 11월 21일 종가 기준



순위	성명	나이	성별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1	이건희	70	M	삼성전자 회장	10,908,396,051,000
2	정몽구	74	M	현대차그룹 회장	6,281,479,377,100
3	서경배	49	M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2,998,299,202,500
4	정의선	42	M	현대자동차 부회장	2,963,830,494,000
5	최태원	52	M	SK그룹 회장	1,762,482,769,000
6	신동빈	57	M	롯데그룹 회장	1,690,495,786,000
7	신동주	58	M	롯데홀딩스 부회장	1,619,570,065,000
8	김정주	43	M	넥스 회장	1,553,537,744,904
9	정몽준	61	M	국회의원	1,539,694,915,500
10	홍라희	67	F	삼성리움미술관 관장(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부인)	1,498,971,648,000
11	이명희	69	F	신세계그룹 회장	1,431,802,497,400
12	이재현	52	M	CJ그룹 회장	1,356,516,308,650
13	구본무	67	M	LG그룹 회장	1,279,535,833,300
14	서정진	55	M	셀트리온 회장	1,211,845,859,900
15	정용진	44	M	신세계그룹 부회장	1,191,046,308,300
16	이재용	44	M	삼성전자 사장	1,163,117,752,000
17	이화경	56	F	오리온 사장 (담철곤 회장 부인)	931,990,705,005
18	구본준	61	M	LG전자 부회장	929,938,669,650
19	조양래	75	M	한국타이어 회장	890,555,147,450
20	담철곤	57	M	오리온그룹 회장	829,965,277,245
21	정지선	40	M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805,518,176,000
22	채진영	65	M	화풍집단지주 대표	694,561,500,000
23	유정현	43	F	김정주 넥스회장 부인	676,095,316,744
24	정몽윤	57	M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669,381,885,000
25	김준일	60	M	락앤락 회장	669,277,932,950
26	구본능	63	M	최성그룹 회장	612,845,769,100
27	허창수	64	M	GS그룹 회장	606,709,576,000
28	이해진	45	M	NHN 이사회 의장 CSO	584,526,504,500
29	구광모	34	M	LG전자 차장(구본무 LG그룹 회장 아들)	568,211,514,450
30	김승연	60	M	한화그룹 회장	540,747,675,650
31	정몽진	52	M	KCC 대표이사 회장	536,235,966,000
32	구본식	54	M	HCC 그룹 부회장	524,921,344,300
33	김영식	60	F	구본무 LG그룹 회장 부인	501,057,536,500
34	최기원	48	F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최태원 SK그룹 회장 동생)	486,150,000,000
35	이준호	48	M	NHN 이사 CAO	470,700,000,000
36	김남호	37	M	동부제철 부장(김준기 동부그룹회장 장남)	466,573,512,520
37	박관호	40	M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의장	454,898,380,000
38	장형진	66	M	영풍 회장	433,737,166,815
39	정교선	38	M	현대백화점 부회장(정몽근 명예회장 차남)	425,909,818,500
40	김호연	57	M	전 빙그레그룹 회장	408,647,565,950
41	김남구	49	M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408,596,805,000
42	오세영	49	M	코리오흐olding스 회장	404,452,790,500
43	조현범	40	M	한국타이어 사장(조양래 회장 차남)	401,711,998,150
44	이수영	70	M	OCI 그룹 회장	398,225,642,210
45	강병중	73	M	넥센 회장	353,643,594,500
46	조정호	54	M	메리츠증권 회장	352,948,562,620
47	김택진	45	M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346,798,000,000
48	조양호	63	M	한진그룹 회장	329,955,837,700
49	김상현	63	M	동서 회장	322,742,692,200
50	조현식	42	M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조양래 회장 장남)	322,596,962,650

순위	성명	나이	성별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51	장세준	38	M	장형진 영풍 회장 장남	319,375,101,000
52	김준기	68	M	동부그룹 회장	313,759,123,910
53	김원일	37	M	골프존 대표이사	313,643,583,000
54	박철완	34	M	금호석유화학 상무보(박정구 전 금호 명예회장 장남)	305,615,333,265
55	천종윤	55	M	씨젠 대표이사	284,656,896,000
56	허진수	59	M	GS칼텍스 부회장	277,200,185,600
57	허용수	44	M	GS리테일 부사장(허완구 승산그룹 명예회장 장남)	275,820,997,800
58	이복영	65	M	삼광유리공업 회장(고 이회림 회장 차남)	273,545,719,470
59	신격호	90	M	롯데그룹 회장	273,280,189,000
60	정몽익	50	M	KCC 사장	266,123,620,000
61	정지완	56	M	솔브레인 대표이사	261,552,470,100
62	서영필	48	M	에이블씨엔씨 회장	248,702,916,000
63	송병준	36	M	게임빌 대표이사	245,812,308,700
64	강호찬	41	M	넥센 부사장(강병중 넥센 회장 장남)	243,410,197,340
65	조석래	77	M	효성그룹 회장	241,995,851,200
66	이정훈	59	M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239,278,699,200
67	정몽원	57	M	한라건설 회장	223,856,645,650
68	허경수	55	M	코스모그룹 회장(허신구 회장 장남)	222,607,996,500
69	장세환	32	M	장형진 영풍 회장 차남	219,806,117,500
70	박준경	34	M	금호석유화학 상무보(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장남)	219,403,560,000
71	허명수	57	M	GS건설 사장	218,348,950,800
72	이명근	68	M	성우하이텍 회장	218,120,175,700
73	허남각	74	M	삼양통상 회장	216,249,160,000
74	김석수	58	M	동서식품 회장	215,648,603,200
75	양현석	42	M	YG엔터테인먼트 이사	213,816,284,600
76	조현준	44	M	효성 전략본부장 사장(조석래 회장 장남)	213,176,737,100
77	이화영	61	M	유니드 회장(이회림 회장 3남)	212,305,580,300
78	정우경	40	F	신세계 부사장(이명희 회장 딸)	210,386,199,000
79	박찬구	64	M	금호석유화학 회장	202,272,028,500
80	최창규	62	M	영풍정밀 부회장	201,272,110,000
81	허재영	41	M	일진머티리얼즈 대표이사(허진규 회장 차남)	200,180,063,220
82	조희원	45	F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차녀	198,721,462,750
83	정몽규	50	M	현대산업개발그룹 회장	195,668,265,000
84	이수만	60	M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194,801,520,800
85	구본길	55	M	LG패션 회장(고 구자승 회장 장남)	193,941,401,350
86	조현상	41	M	효성 산업자재PG장 부사장(조석래 회장 삼남)	193,865,932,400
87	정몽열	48	M	KCC건설 사장	193,366,169,850
88	신영자	70	F	롯데장학재단/복지재단 이사장	192,647,338,000
89	허태수	55	M	GS홈쇼핑 사장	186,398,301,200
90	구자열	59	M	LS전선 회장(구평회 E1 명예회장 장남)	185,849,061,100
91	이웅열	56	M	코오롱그룹 회장	181,971,111,345
92	이재웅	44	M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	181,447,200,000
93	이민주	64	M	에이티파트너스 회장	178,977,979,250
94	최창원	48	M	SK케미칼 부회장	176,810,661,300
95	조현문	43	M	효성 중공업PG 부사장(조석래 회장 차남)	176,405,876,800
96	허진규	72	M	일진그룹 회장	175,979,890,430
97	허광수	66	M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175,397,230,400
98	박준형	76	M	신라교역 회장	174,495,766,650
99	장철진	74	M	영풍산업 회장	173,985,303,000
100	이관희	83	F	이양구 동양 창업주 부인	172,637,196,354

순위	성명	나이	성별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101	고희선	63	M	새누리당 국회의원(농우바이오 회장)	172,220,000,000
102	안재일	50	M	성광밴드 대표이사(안갑원 회장 차남)	171,117,605,250
103	최재호	51	M	무학 대표이사	170,028,630,000
104	박문덕	62	M	하이트맥주그룹 회장	168,503,473,220
105	홍원식	62	M	남양유업 회장	168,478,572,000
106	이호진	50	M	전 태광그룹 회장	167,343,201,600
107	박정원	50	M	두산건설 회장(박용근 회장 장남)	166,953,568,300
108	허동수	69	M	GS칼텍스 회장	164,007,214,000
109	이기형	49	M	인티파크 회장	161,468,000,000
110	장상영	76	M	KCC그룹 명예회장	158,689,947,500
111	성기학	65	M	영원무역 회장	154,521,940,500
112	최창근	65	M	고려아연 회장(최기호 창업주 삼남)	152,295,818,000
113	최창영	68	M	고려아연 명예회장	152,180,025,000
114	조희경	46	F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장녀	151,330,966,900
115	이욱진	43	M	이재원 전 일성제지 회장 장남	150,513,573,750
116	최윤범	37	M	고려아연 전무(최창길 명예회장 차남)	148,716,213,000
117	최정운	59	M	최기호 고려아연 창업주 오남	147,760,992,000
118	김주원	39	F	김준기 동부그룹회장 장녀	145,923,600,290
119	함태호	82	M	오뚜기 전 회장	145,424,848,000
120	왕위연	48	M	차이나강 최대주주	145,027,000,000
121	구지은	48	M	LS전선 사장(故 구두회 에스코명예회장 1남)	143,811,640,000
122	허승조	62	M	GS리테일 부회장	141,732,959,400
123	신춘호	80	M	농심그룹 회장	141,258,375,100
124	정재은	73	M	신세계 명예회장	140,128,025,000
125	구미정	57	F	구자경 회장 차녀(최병민 깨끗한 나라 회장 부인)	139,110,758,535
126	구자용	57	M	LS네트웍스 회장(구평회 E1 명예회장 차남)	138,961,936,500
127	양용진	59	M	코미팜 회장	138,351,694,900
128	김창호	52	M	김준일 락앤락 대표 친인척	136,579,271,400
129	정동근	70	M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135,201,950,250
130	윤석금	67	M	웅진그룹 회장	133,284,925,191
131	이운형	65	M	세아제강 회장	132,798,531,000
132	허용도	64	M	태웅 회장	132,101,631,000
133	구지균	55	M	LS산전 부회장(구평회 E1 명예회장 3남)	131,062,726,500
134	장하리	50	M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최대주주	128,980,821,300
135	함영준	53	M	오뚜기 회장(함태호 전 회장 장남)	128,660,720,000
136	최정일	33	M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차남	128,251,695,000
137	단재완	65	M	한국제지 회장	124,185,818,000
138	안성호	44	M	에이스침대 대표이사	122,868,646,900
139	윤석민	48	M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121,261,910,000
140	임성기	72	M	한미약품 회장	120,066,760,550
141	이순형	63	M	세아홀딩스 회장	119,555,864,600
142	허정수	62	M	GS네오텍 회장	118,606,069,200
143	김용민	36	M	퍼스텍 대표이사(김근수 후성그룹 회장 장남)	118,228,482,045
144	장세주	59	M	동국제강그룹 회장	118,179,392,000
144	승만호	55	M	서부엔티 대표이사	116,100,209,100
146	우종인	51	M	비에치아이 대표	116,047,440,000
147	이주성	34	M	세아베스틸 기획본부장(이순형 세아홀딩스 회장 장남)	114,765,024,800
148	이태성	34	M	세아홀딩스 전략기획팀장(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4남)	114,623,967,400
149	김영찬	66	M	골프존문화재단 이사장(김원일 골프존 대표 부친)	112,545,107,400
150	구분상	42	M	LIG넥스원 부회장(구자원 LIG넥스원 회장 장남)	112,229,534,000

순위	성명	나이	성별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151	박연차	67	M	태광실업 회장	111,911,489,150
152	박지원	47	M	두산중공업 사장(박용근 명예회장 차남)	111,191,667,600
153	이민규	26	M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차남	111,172,240,200
154	이민호	32	M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장남	111,172,240,200
155	구자경	87	M	LG그룹 명예회장	110,505,392,550
156	김병관	39	M	웹젠 대표이사	110,491,197,340
157	김선혜	41	F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부인 (구자경 회장 외손녀)	110,151,136,450
158	안철수	50	M	18대 대통령 후보	109,976,000,000
159	이재윤	62	M	리노공업 대표이사	109,678,773,100
160	송호근	60	M	와이지-원 대표이사	109,295,611,400
161	김준호	65	M	제이브이엠 대표이사	109,026,777,000
162	허연수	51	M	GS리테일 부사장(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 차남)	108,014,187,600
163	이성엽	42	M	이충근 에스엘 회장 장남	107,974,626,900
164	김만수	82	M	동아타이어공업 회장	107,917,608,900
165	박용만	57	M	두산 회장	107,065,541,700
166	허일섭	58	M	녹십자 회장	106,412,775,210
167	김동관	29	M	한화솔라원 기획실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장남)	106,060,500,000
168	신동원	54	M	농심홀딩스 부회장(신춘호 회장 장남)	105,537,850,000
169	이정환	60	M	종근당그룹 회장	104,021,026,500
170	구연경	34	F	구본무 LG그룹 회장 장녀	103,677,373,800
171	이준호	66	M	덕산 하이메탈 대표이사	103,417,160,000
172	구현미	65	F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장녀	102,846,651,050
173	김영봉	59	M	모토닉 회장	101,922,474,000
174	최규옥	52	M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101,881,892,500
175	김근수	64	M	후성그룹 회장	101,825,974,180
176	남승우	60	M	폴무원 대표이사	101,099,661,400
177	김석환	38	M	김동녕 한세실업 회장 장남	100,774,371,100
178	조남호	61	M	한진중공업 회장	99,275,523,750
179	허철홍	33	M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장남	99,205,645,000
180	김동연	74	M	부광약품 회장	98,539,507,200
181	성규동	55	M	이오테크닉스 대표이사	97,527,267,000
182	이재환	45	M	토펅 대표이사	97,119,907,300
183	정도연	64	M	일양약품 회장	97,108,435,200
184	주진우	63	M	사조산업 회장	96,481,492,800
185	윤희애오	53	M	원리인터내셔널홀딩스 최대 주주	96,300,000,000
186	허영섭	故	M	전 녹십자 회장	96,049,470,000
187	박진원	44	M	두산 산업차량 부사장(박용성 회장 장남)	95,410,935,300
188	조창걸	73	M	한샘 회장	95,136,855,000
189	허세홍	43	M	GS칼텍스 전무(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장남)	94,981,164,400
190	천경준	65	M	씨젠 이사(천종윤 씨젠대표 삼촌)	94,896,000,000
191	김동녕	67	M	한세실업 회장	94,745,946,250
192	김정식	83	M	대덕GDS 회장	94,628,036,100
193	윤동한	65	M	한국콜마 대표이사	94,622,360,600
194	최내현	42	M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장남	94,603,151,000
195	구본길	46	M	구자일 일양화학 회장 장남	94,532,580,500
196	허인영	40	F	승산 사장(허완구 승산그룹 명예회장 딸)	93,042,751,600
197	허준홍	37	M	GS칼텍스 차장(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장남)	93,029,186,200
198	손준은	51	M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92,896,512,300
199	김중희	36	M	김상현 동서 회장 친인척	89,875,398,800
200	최명규	60	M	S&T그룹 회장	88,874,931,120

대한민국 주식부호 500인

201~300

순위	성명	나이	성별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201	이영일	39	M	컴투스 이사 (박지영 컴투스 대표 남편)	88,459,840,000
202	허완구	76	M	승산그룹 명예회장	88,455,093,000
203	서해숙	62	F	고 서성한 아모레퍼시픽그룹 창업주 차녀	88,142,719,000
204	임상민	32	F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차녀	87,523,569,000
205	우권리양	47	M	차이나그레이트스타 대표	85,120,000,000
206	구본순	53	M	LG패션 비상근 이사 (고 구자승 회장 차남)	84,800,036,400
207	김중현	58	M	이라이콤 대표이사	84,066,192,100
208	박성형	83	M	신라교역 회장	83,897,780,300
209	이경수	66	M	코스맥스 대표	83,756,365,000
210	나성균	41	M	네오위즈 대표이사	83,429,955,700
211	서영우	40	M	대양전기공업 대표	83,136,055,200
212	김상현	49	M	김만수 동아타이어공업 회장 장남	83,130,399,300
213	홍영철	64	M	고려제강 회장	82,349,100,900
214	정현호	50	M	메디톡스 대표이사	81,625,512,000
215	엄평용	55	M	유진테크 대표이사	81,538,363,200
216	장세욱	50	M	유니온스틸 사장 (동국제강 부사장(장상태 회장 차남))	80,824,294,400
217	김익환	36	M	김동녕 한세실업 회장 차남	80,619,393,250
218	서은숙	59	F	고 서성한 아모레퍼시픽그룹 창업주 삼녀	80,584,204,500
219	조병호	66	M	동양기전 회장	80,405,096,460
220	유상락	68	M	이연제약 대표	80,038,050,000
221	전세호	56	M	심텍 대표이사	79,175,322,140
222	박지만	54	M	EG회장	79,131,886,400
223	윤영달	67	M	크라운해태제과 회장	78,312,833,000
224	박석원	41	M	두산엔진 상무(박용성 회장 차남)	77,996,621,400
225	김종구	63	M	파트론 대표이사	77,893,925,850
226	박용성	72	M	두산중공업 회장	77,211,297,000
227	이원준	34	M	전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조카	77,174,342,145
228	박용현	69	M	두산건설 회장	76,527,307,450
229	김상면	66	M	자화전자 대표	76,513,838,000
230	김문희	84	F	용문학원 이사장(현정은 회장 모친)	76,454,789,630
231	천귀웨이	40	M	중국엔진집단유한공사 대표	76,226,868,000
232	구자영	77	M	LIG손해보험 회장	76,221,826,000
233	김지완	55	M	매일유업 회장	75,628,492,450
234	박삼구	67	M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75,116,843,475
235	박세창	37	M	금호타이어 부사장(박삼구 회장 장남)	72,823,921,440
236	우석형	57	M	신도리코 회장(우상기 창업주 장남)	72,787,798,500
237	유양석	53	M	한일이화 부회장	72,302,746,200
238	구자영	73	F	구인회 LG그룹 창업주 삼녀	72,215,774,335
239	김재경	65	M	인탑스 대표이사	71,664,428,700
240	양주환	故	M	서훈합설 대표이사	70,739,823,000
241	박태원	43	M	두산건설 부사장(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장남)	70,411,654,600
242	안갑원	75	M	성광벤드 회장	69,746,373,000
243	홍민철	61	M	대원강업 대주주	69,631,742,600
244	신동윤	54	M	울촌화학 부회장(신춘호 회장 차남)	69,289,643,200
245	현정은	57	F	현대그룹 회장	68,412,889,020
246	유상덕	53	M	삼탄 회장	68,349,985,000
247	박은미	49	F	비에이치아이 대주주	68,263,200,000
248	구본진	48	M	LG패션 부사장(고 구자승 회장 삼남)	68,244,090,000
249	김철영	48	M	미래나노텍 대표이사	68,224,180,200
250	구혜원	53	F	푸른그룹 회장(구평회 회장 딸)	68,107,642,520

순위	성명	나이	성별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251	김덕용	55	M	KMW 대표이사	68,038,092,500
252	채진요	58	M	화풍집단지주 이사	67,878,000,000
253	이희춘	51	M	사파이어테크놀로지 대표이사	67,330,410,000
254	장인순	84	F	원혁회 코리아리저브형 명예회장 부인	67,070,746,900
255	박진수	72	M	비에스이홀딩스 회장	66,389,188,800
256	김익래	62	M	다우기술 회장	66,357,014,525
257	류 진	54	M	풍산그룹 회장	66,193,950,090
258	김수경	63	F	우리들생명과학 회장	65,831,674,015
259	이충근	68	M	에스엘 회장	65,453,595,900
260	안정숙	62	F	천중운 씨젠대표 숙모	64,670,400,000
261	강신호	85	M	동아제약 회장	64,178,016,000
262	이승훈	39	M	이충근 에스엘 회장 차남	64,116,068,100
263	정광춘	59	M	잉크테크 대표이사	63,528,403,500
264	김광호	59	M	모나리자 이사	63,520,000,000
265	장홍선	72	M	근화제약 회장	62,935,371,100
266	유현오	42	M	제닉 최대주주	62,415,000,000
267	구자명	60	M	니고동제련 회장(구태희 LS전선 명예회장 3남)	61,959,811,000
268	구형모	25	M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장남	61,893,082,550
269	백정호	54	M	동성화학 회장	61,883,254,210
270	임지윤	33	M	옵트론텍 사장	61,846,531,900
271	이길환	71	M	세운메디칼 대표이사	61,618,428,000
272	양태희	48	M	비상교육 대표이사 사장	61,341,157,800
273	김광수	50	M	나이스신용정보 회장	60,935,418,560
274	박성환	55	M	하나투어 대표이사 회장	60,577,262,000
275	김영목	56	M	대성정기 부사장(모토닉 이사)	60,501,240,000
276	김세연	40	M	동일구로밸트 대표 (새누리당 의원)	60,364,622,330
277	한승수	65	M	제일약품 회장	60,115,200,000
278	김상근	62	M	(주)상보 대표이사	58,360,995,800
279	박성찬	49	M	다날 회장	57,926,661,500
280	김혜경	64	F	장형진 영풍 회장 부인	57,912,006,000
281	구웅모	23	M	구본식 화성그룹 부회장 장남	57,619,498,850
282	박태원	49	F	두산매거진 전무(박용근 두산그룹 명예회장 장녀)	57,619,462,750
283	단우영	33	M	단재원 한국제지 회장 장남	56,305,282,500
284	구자업	62	M	LS산전 회장(구태희 LS전선 명예회장 차남)	56,239,396,000
285	설윤석	31	M	대한전선 사장(설원량 전 대한전선 회장 장남)	56,201,952,460
286	노영백	63	M	우주일렉트로닉스 회장	55,846,195,200
287	이병구	66	M	네패스 대표이사	55,805,469,750
288	허석홍	11	M	허용수 GS리테일 부사장 장남	55,798,074,600
289	김상태	59	M	평화정공 회장	55,361,010,950
290	김정돈	58	M	미원상사 회장	55,322,153,000
291	단우준	31	M	단재원 한국제지 회장 차남	54,913,038,500
292	이영진	52	M	태양기전 대표이사	54,776,528,000
293	전정도	53	M	성진지오텍 회장	54,384,763,850
294	오승환	48	M	NHN 이사	54,296,029,500
295	민동진	37	M	멜파스 상무	54,220,320,000
296	오순택	66	M	동일산업 대표이사	53,935,041,600
297	구본업	40	M	LIG건영 부사장(구자원 LIG넥스원 회장 차남)	53,927,444,000
298	박서원	33	M	빅앤티인터네셔널 대표(박용만 두산 회장 장남)	53,712,174,450
299	문영훈	79	M	하이록코리아 대표이사	53,677,379,500
300	이우현	44	M	OCI 부사장(이수영 회장 장남)	53,177,778,500

대한민국 주식부호 500인

301~400

순위	성명	나이	성별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301	원국희	79	M	신영증권 회장	53,047,383,000
302	김선영	57	M	바이로메드 대표이사	52,642,161,200
303	신동혁	54	M	이엘케이 대표이사	52,630,664,300
304	라정찬	48	M	알앤엘바이오 대표이사	52,483,861,350
305	손동창	64	M	퍼시스 회장	52,416,309,200
306	김창수	51	M	F&F 대표이사	52,383,989,080
307	박인원	39	M	두산중공업 상무(박용현 회장 삼남)	52,004,355,900
308	박형원	42	M	두산인프라코어 상무(박용현 회장 차남)	52,004,355,900
309	박정길	41	M	세종공업 부사장(박세중 명예회장 장남)	51,933,547,600
310	구재희	45	F	故 구두희 에스코 명예회장 삼녀	51,777,157,500
311	박순석	68	M	신안그룹 회장	51,302,166,500
312	김영달	44	M	아이디스 대표이사	51,286,062,500
313	김록희	66	F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부인	51,105,054,000
314	사성식	60	M	코스맥스 임원	50,754,711,000
315	김기병	74	M	롯데관광개발 회장	50,602,965,000
316	배중호	59	M	국순당 사장	50,505,841,120
317	천중기	50	M	씨젠 전무(천중윤 씨젠대표 동생)	50,499,072,000
318	강덕영	65	M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회장	50,352,279,840
319	임혜국	54	F	정지완 솔브레인 대표이사 부인	50,050,438,200
320	손병준	50	M	모베이스 대표이사	49,946,000,000
321	김영훈	60	M	대성그룹 회장	49,871,560,550
322	박종수	66	M	유아이다 최대주주	49,775,044,000
323	양규모	69	M	KPX그룹 회장	48,524,641,800
324	강덕수	62	M	STX그룹 회장	48,415,370,000
325	허재철	65	M	대원공업 회장	48,312,750,560
326	최경덕	62	M	매일상선 대표이사	48,185,284,875
327	박지영	37	F	컴투스 대표이사	48,039,620,000
328	채형석	52	M	애경그룹 부회장	48,023,651,750
329	설윤호	37	M	대한제당 부회장(고 설원봉 대한제당 회장 장남)	47,849,780,000
330	신이현	57	M	사인 대표이사	47,656,620,000
331	김용우	51	M	다온비즈온 이사	47,571,974,640
332	양윤선	48	F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47,258,580,000
333	이선용	51	M	아시아나스타 사장(구자해씨 장남)	46,679,628,250
334	김 옥	68	M	아가방앤컴퍼니 회장	46,570,860,000
335	임세경	35	F	임창욱 대성그룹 명예회장 장녀	46,552,224,600
336	김영재	53	M	대덕전자 대표이사(김정식 대덕GDS 회장 아들)	46,500,961,650
337	서태선	61	F	고 장봉용 진로발효 회장 부인	46,461,616,500
338	정창수	76	M	부광약품 부회장	46,369,297,200
339	이만득	56	M	삼천리 회장	46,359,430,000
340	김재운	42	M	서원인텍 대표이사	45,738,000,000
341	권희석	55	M	하나투어 대표이사	45,685,662,000
342	한영재	57	M	노루출판스 회장	45,606,764,450
343	조문수	54	M	한국화이바 대표이사	45,429,248,000
344	임창완	50	M	유니켈스 대표이사	45,205,625,000
345	곽동신	38	M	한미반도체 사장(곽노권회장 장남)	44,995,608,530
346	정 호	74	M	화신 회장	44,689,210,000
347	장세홍	47	M	한국철강 전무(장상돈 회장 차남)	44,611,079,200
348	김기문	56	M	로만스 대표이사	44,548,350,000
349	박재원	27	M	박용만 두산 회장 차남	44,365,570,650
350	홍석표	33	M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 장남	44,261,405,100

순위	성명	나이	성별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351	나춘호	70	M	에림당 회장	44,222,810,100
352	허서홍	35	M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장남	44,196,819,400
353	박철우	48	M	드래곤플라이 대표이사	44,166,064,800
354	이인옥	41	M	조선내화 부회장(이화일 조선내화 회장 아들)	44,058,427,500
355	김 담	47	M	경방 부사장(김각중 회장 차남)	44,018,022,000
356	박영옥	51	M	스마트인컴 대표	43,569,559,960
357	이은백	39	M	삼천리 상무(이장균 창업주 장손)	43,563,397,000
358	양민석	39	M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43,368,438,600
359	이우정	43	M	넥슬론 이사(이수영 회장 차남)	43,280,093,770
360	차미림	45	F	비에이치아이 대주주	43,233,360,000
361	이봉우	56	M	멜파스 대표이사	43,164,000,000
362	이화일	70	M	조선내화 회장	43,068,327,600
363	김형욱	67	M	한양이엔지 대표이사	43,056,646,080
364	Lu Li	41	M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 대표	42,910,110,000
365	구자준	62	M	LG손해보험 부회장	42,848,790,000
366	원종익	57	M	코리안리 고문(원혁희 코리안리재보험 명예회장 차남)	42,835,547,300
367	윤성덕	54	M	태광 대표이사	42,772,968,500
368	오유인	62	M	제일연마공업 대표(오순택 동일산업 대표 동생)	42,758,431,840
369	김병권	49	M	스틸플라워 대표이사	42,681,429,420
370	원종규	53	M	코리안리재보험 상무(원혁희 명예회장 삼남)	42,557,025,000
371	윤형덕	35	M	웅진그룹 경영기획실장(윤석규 회장 장남)	42,541,307,310
372	구본옥	35	M	LG손보 경리팀장(고 구자성 전LG건설 대표 장남)	42,539,862,000
373	최창호	62	M	하나마이크론 대표이사	42,536,208,000
374	박종철	54	M	에프티이앤이 대표이사	42,494,313,890
375	이부설	75	M	동진씨미캠 회장	42,425,262,000
376	문후건	50	M	하이록코리아 대표이사	42,276,198,250
377	조정일	50	M	케이비테크놀로지 사장	42,187,896,900
378	윤세봉	33	M	웅진쌍크빅 과징(윤석규 회장 차남)	41,908,046,050
379	허두홍	30	M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차남	41,880,740,800
380	곽영필	74	M	도화 최대주주	41,878,586,000
381	박판연	61	F	하용도 태웅 회장 부인	41,875,190,100
382	안건준	47	M	크루셜텍 대표이사	41,841,407,250
383	박선영	63	F	고 설원봉 전 대한제당 회장 부인	41,475,225,000
384	이병무	71	M	아세아시멘트 그룹 회장	41,418,643,600
385	고석태	58	M	케이씨텍 대표이사	41,376,705,485
386	조동혁	62	M	한솔그룹 명예회장	41,295,924,000
387	이창원	76	M	한국단지공업 대표이사	41,222,700,000
388	원 영	55	F	원혁희 코리안리재보험 명예회장 장녀	40,994,432,600
389	구자철	57	M	한성 회장	40,965,759,000
390	권기범	45	M	동국제약 대표이사	40,516,828,000
391	윤영환	78	M	대웅제약 회장	40,358,096,250
392	이재원	44	M	슈프리카 대표이사	40,355,460,200
393	허지홍	29	M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장남	39,829,109,000
394	김동선	23	M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삼남	39,812,500,000
395	김동원	27	M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차남	39,812,500,000
396	장상돈	75	M	한국철강 회장	39,784,445,650
397	장세영	44	M	장철진 영풍산업 회장 차남	39,734,094,000
398	구근희	69	F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 장녀	39,608,934,000
399	우자형	54	M	우삼기 신도리코 창업주 차남	39,371,016,800
400	김영호	68	M	일신방직 회장	39,264,681,300

대한민국 주식부호 500인

401~500

순위	성명	나이	성별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순위	성명	나이	성별	회사/관계/직위	평가총액(억원)
401	조시영	68	M	서원 회장	39,148,005,520	451	이종상	76	M	한진피앤씨 회장	33,987,535,725
402	구자훈	65	M	LIG손해보험 회장	39,132,058,000	452	서영민	51	F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부인	33,814,380,600
403	최은아	39	F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차녀	38,803,908,000	453	오길봉	50	M	동일금속 대표이사(오순택 동일산업 회장 친인척)	33,774,815,500
404	윤재승	50	M	대웅제약 부회장(윤영환 회장 차남)	38,702,958,425	454	서민정	21	F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 장녀	33,721,334,000
404	한규석	53	M	우림기계 사장	38,621,512,800	455	이광식	65	M	환인제약 회장	33,646,800,700
406	이종우	51	M	우전엔한단 대표이사	38,557,240,860	456	노은식	55	M	디케이락 대표	33,580,000,000
407	원희희	86	M	코리안리재보험 명예회장	38,482,375,900	457	김성진	82	M	파라다이스 고문	33,440,839,000
408	김재철	52	M	에스텍파마 대표이사	38,446,612,750	458	윤인중	50	M	중앙백신연구소 대표이사	33,437,577,600
409	황철주	53	M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38,354,572,400	459	김 정	52	M	삼양사 사장(김상하 회장 차남)	33,285,772,900
410	박기석	64	M	시공테크 대표이사	38,238,651,120	460	허연숙	52	F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여동생	33,077,300,200
411	구본호	37	M	범한토비스 대주주	38,095,677,300	461	이종각	80	M	대한제분 회장	32,976,328,000
412	김영민	67	M	서울도시가스 회장	37,963,046,800	462	이지용	49	M	구인회 LG창업주 외손자(구자혜씨 아들)	32,848,108,650
413	이종훈	56	M	인천도시가스 회장	37,879,758,000	463	박민관	49	M	우양에이치씨 대표	32,784,397,340
414	정동형	51	M	현대종합상사 회장	37,702,322,900	464	유충식	76	M	동아제약 부회장	32,771,648,000
415	유종근	68	F	최창길 고려아연 명예회장 부인	37,557,867,000	465	김중섭	65	M	삼악악기 회장	32,557,488,130
416	박철승	44	M	드래곤플라이 CTO	37,448,056,800	466	이정자	68	F	이범무 아세아시멘트회장부인(이회림회장 3녀)	32,440,016,200
417	권영렬	66	M	화천기계공업 회장	37,173,766,200	467	구은정	51	F	태은물류 대표(구두회 에스코 명예회장 장녀)	32,265,408,500
418	김석환	55	M	삼천리자전거 대표이사	37,109,478,600	468	이정수	68	M	유니슨(주) 회장	32,196,952,200
419	구동휘	30	M	구자열 LS전선 회장 장남(카네기 멜런대 재학)	37,012,118,000	469	허윤홍	33	M	GS건설 상무보(허창수 GS그룹 회장 장남)	32,063,840,800
420	승미혜	49	F	승만호 서부티엔디 대표 여동생	36,980,010,600	470	배종식	61	M	월덱스 대표이사	31,926,000,000
421	이상웅	54	M	세방전지 부회장(이의순 세방 회장 아들)	36,932,239,950	471	변두섭	53	M	예당컴퍼니 회장	31,852,621,200
422	양희성	37	M	신양엔지니어링 대표이사	36,536,387,000	472	이경하	49	M	중익홀딩스 사장(이종호 회장 아들)	31,473,486,530
423	김종인	67	M	미래엔지니어링 대표이사	36,443,412,000	473	김 윤	59	M	삼양사 회장(김상홍 명예회장 장남)	31,451,506,800
424	남광희	53	M	KH버텍 대표이사	36,388,968,000	474	박중훈	87	M	약사	31,215,572,000
425	윤장섭	90	M	성보산업 회장	36,334,584,950	475	변대규	52	M	휴맥스 대표이사	31,185,060,050
426	이용한	58	M	아이피엑스 회장	36,269,900,660	476	김재철	77	M	동원그룹 회장	31,116,305,000
427	고광일	55	M	고영테크놀러지 대표	36,231,000,000	477	이정우	66	M	동아지질 대표	31,104,713,400
428	이흥복	38	M	유비벨룩스 대표이사	36,203,422,000	478	오완수	73	M	대한제강 회장	31,059,720,350
429	윤성태	48	M	휴온스 대표이사	36,018,540,000	479	김장중	40	M	이스트소프트 최대주주	30,998,500,000
430	정영배	51	M	아이에스티테크놀러지 대표	35,878,641,300	480	허연호	54	F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여동생	30,991,564,400
431	정세호	45	M	영풍산업 전무(장철진 영풍산업 회장 장남)	35,772,708,000	481	염대상	59	M	신성통상 회장	30,977,201,440
432	김성욱	44	M	한올바이오파마 사장(김병태 회장 차남)	35,717,764,160	482	장진혁	38	M	진로발효 부사장(고 장봉용 진로발효 회장 아들)	30,974,411,000
433	박용근	80	M	두산그룹 명예회장	35,629,652,400	483	장진미	35	F	고 장봉용 진로발효 회장 딸	30,974,411,000
434	장원준	40	M	신동제약 대표이사	35,602,191,640	484	허승호	50	M	대원강업 부회장	30,969,862,010
435	이성철	57	M	에스맥 대표	35,601,433,200	485	최병두	55	M	유원컴텍 대표이사	30,747,909,540
436	김 원	54	M	삼양사 부회장(김상하 회장 장남)	35,459,334,500	486	이택선	63	M	바이오랜드 최대주주	30,653,000,000
437	김병태	75	M	한올바이오파마 회장	35,351,009,280	487	장경호	54	M	이녹스 대표이사(경영총괄)	30,455,388,600
438	차광렬	60	M	차병원임치료센터 소장	35,313,760,020	488	박미영	N/A	F	승만호 서부티엔디 대표이사 친인척	30,203,540,700
439	김정민	50	M	제로투세븐 대표(김정완 매일유업 회장 동생)	35,061,135,750	489	정강위	41	M	동아체육용품유한공사 대표이사	30,150,240,000
440	박운소	71	M	엔케이 대표이사 사장	35,050,050,000	490	황부연	58	F	양웅진 코미팜 회장 부인	30,106,116,550
441	김종규	60	M	블루콤 대표이사	35,018,513,260	491	하경태	47	M	플렉스컴 대표이사	29,980,541,700
442	장세희	44	M	동국산업 부회장(장상건 동국산업회장 장남)	34,980,219,790	492	방인복	45	M	토펅 전무	29,883,048,400
443	전지혜	41	F	고 전략원 파라다이스그룹 창업주 차녀	34,936,596,000	493	김영대	70	M	대성 회장	29,800,523,000
444	허영수	43	M	허승호 알토 회장 장남	34,842,441,400	494	김영진	56	M	한독약품 대표이사 회장	29,724,636,150
445	장순상	68	M	비츠로그스 회장	34,629,101,140	495	최현석	51	M	하나투어 부사장	29,532,062,000
446	오지훈	38	M	대한제강 부사장(오완수 대한제강 회장 아들)	34,480,453,400	496	박용태	62	M	녹십자 부회장	29,392,043,000
447	박헌서	74	M	한국정보통신 회장	34,358,513,000	497	이동욱	64	M	무림페이퍼 회장	29,330,274,819
448	구재고	71	M	해덕파워웨이 대표	34,224,708,960	498	권상선	54	M	티에스이 대표이사	29,283,443,100
449	담경선	27	F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장녀	34,107,513,000	499	이우성	34	M	이북영 삼광유리 회장 장남	29,249,852,500
450	담서원	23	M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장남	34,107,513,000	500	홍석현	63	M	중앙일보 회장	29,150,748,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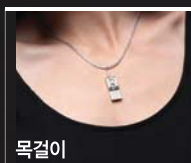
스와로브스키와 USB의 만남

- 쥬얼리 USB **마이메모리아** -



with SWAROVSKI's cut Crystals

마이메모리아 스타일링 방법



목걸이



귀걸이



팔찌



핸드백



휴대폰



LX3



LX7



LX8



LX9

www.mymemoria.co.kr | 고객상담실 : 1588-4957

Memoria^{MY}

Premium Jewelry USB

代를 잇는 起業家정신 - LS그룹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조여매고 있다.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금융으로 인해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60년 성상의 산업사회가 외환위기에 이어 금융위기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한 명분으로 재계를 옥죄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계 곳곳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다름 아닌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에서 해법을 찾아 난국을 돌파하자는 움직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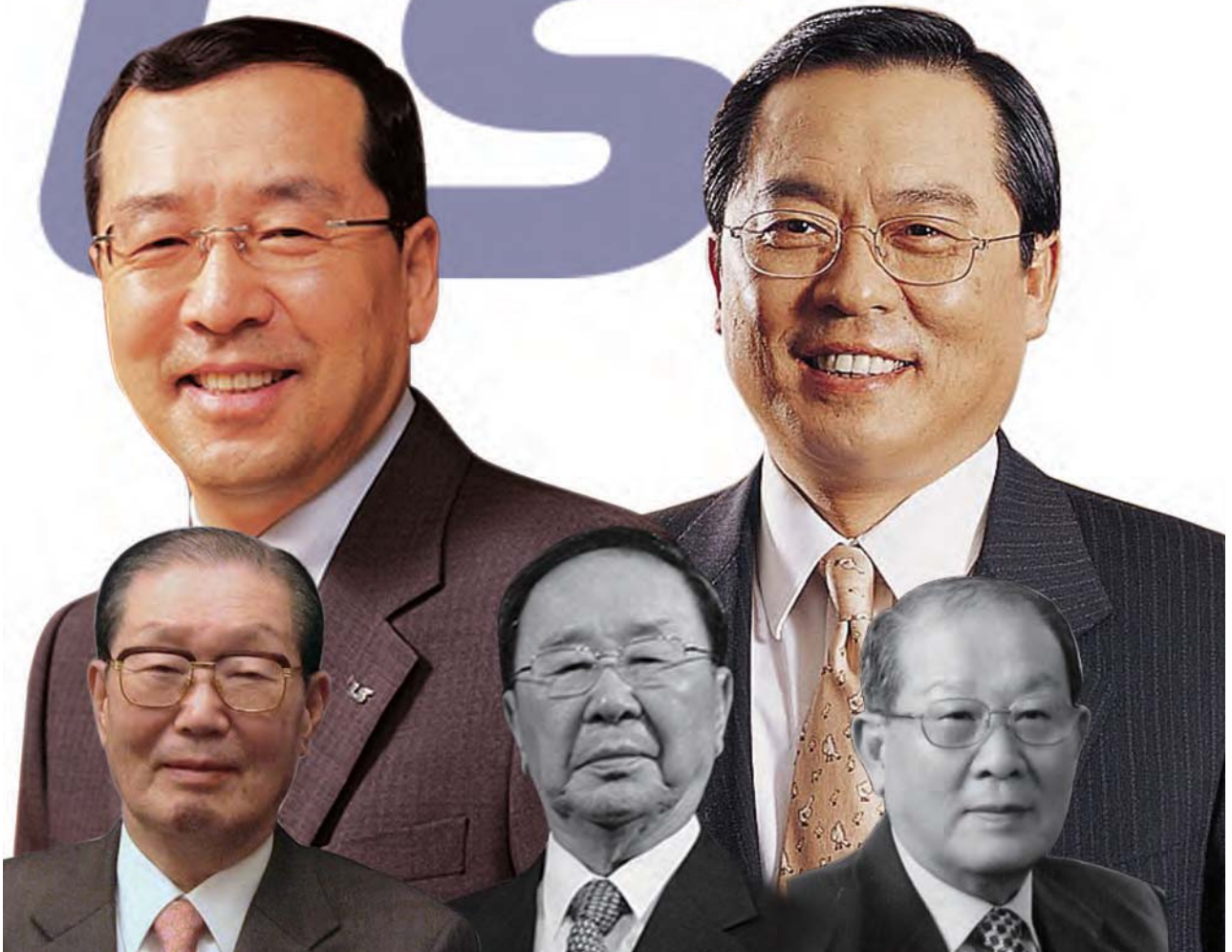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가정신은 경솔하지 않으면서도 과감하게 혁신을 추진하는 자세"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연중기획물 '창업주에게서 배우는 起業家정신'에 이어 '代를 잇는

起業家정신'을 시리즈로 싣고 있다. 이번 호에는 재계 역사상 첫 '사촌승계'를 실현한 LS그룹의 아름다운

승계를 다룬다. '태평두'로 일컬어지는 구태회, 구평회(작고), 구두회(작고) 등 1세대들이 세운 LS그룹을 재계

순위(자산규모) 13위로 키운 2세대 구자홍·구자열 회장과 똘똘 뭉친 사촌들의 대를 잇는 기업가정신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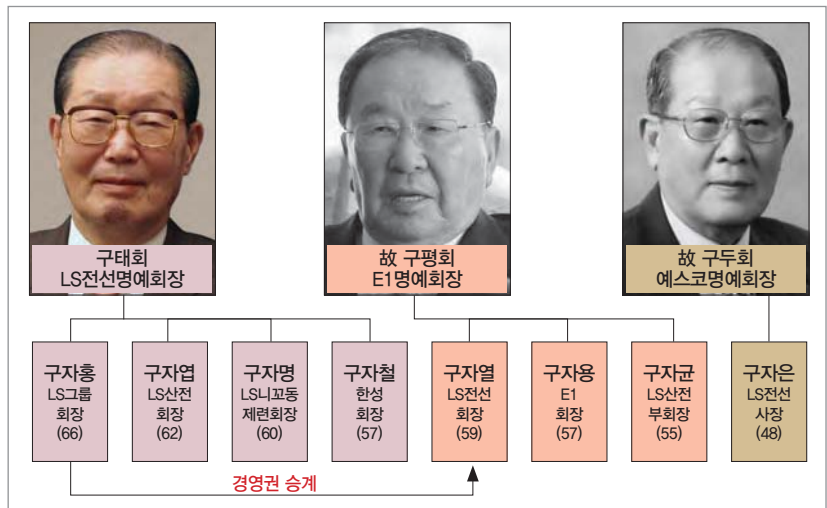


구자홍 회장, 사촌동생에게 ‘바통 터치’ ‘수평승계’ 실천 財界에 기념비적 사례 남겨

지난 11월 둘째 주 일요일, LS그룹은 우리 산업사에 기념비적인 경영 승계안을 발표했다. 이튿날 언론 헤드라인은 ‘무욕 경영’, ‘아름다운 경영권 승계’, ‘65세 룰 지켜’ 등으로 장식됐다. 형제간에도 경영권과 재산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LS家の 결정은 신선함으로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다. 구자홍 LS 회장이 내년부터 구자열 LS전선 회장에게 그룹 회장직을 승계하기로 결정했다. LS그룹에 따르면 창립 10주년을 맞아 현 구자홍 회장이 12월31일자로 물러나고 구자열 LS전선 회장이 그룹 회장을 맡는다. 공식 승계는 내년 주주총회 이사회가 열릴 3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 관례에 따라 내년 1월 2일 이·취임식을 갖고 회장직 업무를 인수인계한다는 방침이다. 구 회장은 내년부터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 회장직을 맡아 현역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 회장은 주로 인재육성, 조직문화 혁신, 브랜드 가치 제고, 사회공헌 등 그룹 전반의 정신적 버팀목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동안의 경영활동을 통해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LS의 글로벌 비즈니스 부문에서 신임 회장을 측면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에 승계...공식 취임은 3월

LS그룹은 현재 창업주인 구태회,故



구평회,故 구두회 명예회장 일가가 지분을 일정 비율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구태회 명예회장의 장남인 구자홍 회장이 LS그룹을,故 구평회 명예회장의 장남인 구자열 회장이 LS전선을 맡아 사촌 간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

구 회장은 경영권 승계 발표와 함께 “회장을 맡은 지 꼭 10년이 됐고, 그룹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임을 다했다”며 “LS가 출범 당시에 비해 크게 성장한 것은 더없이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LS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더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경영인이 제2의 도약을 이뤄야 할 때며 구자열 회장이 그 최적임자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또 “차기 회장과는 사촌 형제지간으로 LS의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는 모범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

을 것”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2003년 LS가 LG에서 계열분리 하면서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구 회장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기반으로 그룹의 기틀을 확립하고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본업인 전기·전자, 소재, 에너지 분야에 있어 M&A와 다양한 혁신활동, 글로벌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계열분리 당시에 비해 매출 4배, 이익 3배, 기업가치를 7배로 늘려 LS를 재계 13위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LS 관계자는 LS는 창립 10년 만에 사촌형제간 경영권 이양이라는 ‘아름다운 승계’의 원칙을 이어가게 됐다”며 “구자홍 회장이 이임 이후에도 계속 현업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신임 회장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 비즈니스는 사업이자 사명” 商社·電子서 잔뼈 굵은 소통형 리더



구자홍 LS그룹 회장

구자홍 회장은 2003년 LS가 LG에서 계열분리 하면서 초대 회장에 취임,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기반으로 그룹의 기틀을 확립하고,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인물이다.

구 회장은 2005년 1월 새로운 그룹명 'LS'와 CI를 발표했다. 그동안 LG전선, LG산전, LG니코동계련 3사 매출의 50%가량이 해외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사명을 영문 이니셜 2자로 정한 것이다.

‘LS(Leading Solution)’는 LG전선과 LG산전의 ‘Device’ 중심 사업구조에서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았다.

구 회장은 사명 변경을 계기로 전선, 동(銅)제련 사업, 에너지 등 부품소재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높여 나가면서 전자 정보통신이 주력인 LG그룹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분야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LG전선과 LG산전 등 주력 계열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는 한편 인수합병과 제휴 등을 통해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섰다. 구 회장은 경영 체제와 관련 각 계열사들은 독자 경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술협의회를 통해 공동 연구와 개발을 강화했다. LG그룹 장점에 LS만의 정체성을 결합한 독창적인 조직문화도 만들어 나가는 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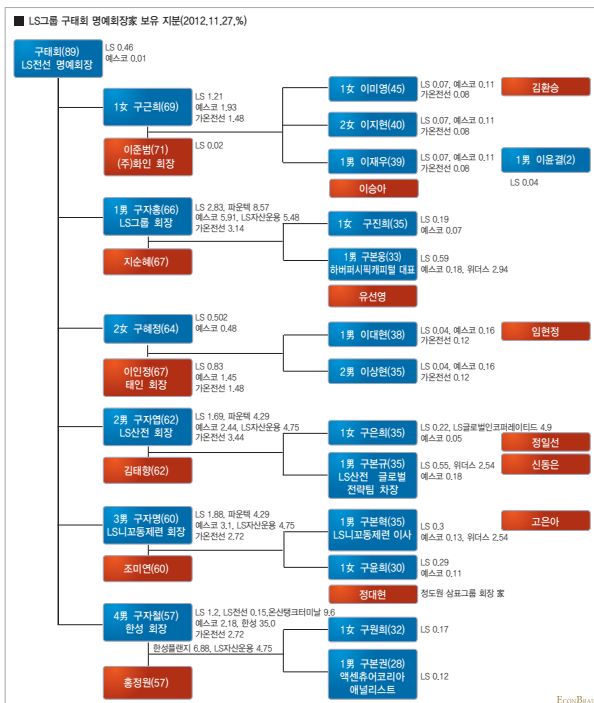
2008년 구 회장은 LS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그룹 주력 기업이었던 LS전선은 (주)LS와 LS전선, LS엠트론 등 3개 회사로 분할됐다. 기존의 사업 가운데 초고압 전력케이블과 통신케이블 생산 분야는 LS전선이,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생산 분야는 LS엠트론이 각각 맡았고 (주)LS는 순수 지주회사로 남았다.

구 회장은 구태희 LS전선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수재다. 1973년 반도상사 수입과에 발을 디딘 후 홍콩지사 부장, 럭키금성상사 싱가포르지사 본부장 등으로 경영수업을 시작했다.

반도상사는 LG그룹 계열의 종합 무역상사로 1953년 12월
 락희산업으로 설립한 뒤 1956년 반도상사, 1984년 럭키금성
 상사를 거쳐 1995년 3월 지금의 LG상사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구 회장은 금성사 해외사업본부 전무이사, 대표이사 부사장,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 회장을 역임 한 후 LS전선 회장, 의사회 의장, LS산전 회장을 거쳐 그룹 회장을 맡았다. 다양한 분야, 직급을 두루 섭렵해 실무에 밝고 소통에 능한 장점이 있다. LS그룹 회장 취임 후 국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해 회사 외형을 크게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 회장은 특히 그룹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핵심부품, 해외자원 개발 등



그린 비즈니스를 차세대 핵심사업을 육성해 왔다. 또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영철학인 'LS partnership'을 선포하고 글로벌 전도사로서 전파와 실천에 앞장서 왔다.

LS의 파트너십은 창업 1세대인 구태희 LS전선 명예회장, 故 구평희 E1 명예회장, 故 구두희 예스코 명예회장이 세웠던 공동경영 원칙으로 LS의 정신적 뿌리이자 행동양식이다. 이번 사촌간 승계는 이런 정신의 계승이란 게 그룹 측 설명이다. 구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잇볼 수 있는 한 시상식이 올 초 있었다. 지난 2월 17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경영학회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경영자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올해의 경영자대상'은 한국경영학회가 매년 한 차례 우리나라 경영자 중 진취적이고 확고한 윤리관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경영인상을 제시한 경영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구 회장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근간으로 LS그룹을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투명경영으로 글로벌기업 성장” 인정

구 회장의 경영 이념은 '그린'으로 함축할 수 있다. 그는 LS그룹의 전기, 전자, 에너지 분야 등 사업을 그린 비즈니스로 승화시키려고 천착하고 있다.

“그린 비즈니스는 LS의 미래 사업(事業)인 동시에 LS가 반드시 해내야 할 사명(使命)과도 같다”

구 회장이 지난 7월 열린 LS그룹 임원 세미나에서 그린 비즈니스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역설했다.

그는 “유럽 위기를 비롯한 세계 경제 불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LS 주요 계열사의 해외 수주 등 최근의 사업 성과는 고무적”이라며 “그린 비즈니스는 단순히 그룹의 미래 먹거리 차원이 아닌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구 회장은 4월부터 6월까지 그린 비즈니스 분야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 칠레, 베트남, 미국, 러시아에 이르는 글로벌 행보를 거듭해 왔다. 

구 회장의 바둑 사랑... “바둑은 파트너십 되새기는 창의 활동”

지난 11월 17일 경기도 안성의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제3회 LS파트너십 바둑대회'가 열렸다. 그룹 각 계열사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회는 바둑을 통해 조직 활성화 및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구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연 것이다.

구 회장은 “참가자 모두가 진지하게 대회에 임하고 프로 선수에 버금가는 집중력을 보여줘서 매우 놀라웠다”며 “바둑은 창의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LS가 추구하는 파트너십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참가선수는 물론 임직원 모두가 이번 대회를 통해 파트너십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바둑애호가인 구 회장(아마 6단)은 지난 1997년부터 '꿈나무 프로젝트'를 통해 바둑 후원활동을 해왔다. 당시 14살이던 이세돌 기사 후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잠재력 있는 어린 선수를 지원하고 있다. 최철한 9단, 박영훈 9단, 조혜연 9단, 강동운 9단, 김지석 8단 등이 이 프로젝트가 배출한 스타들이다. 현재는 차세대 유망 기사로 꼽히



구자홍 회장의 바둑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아마 6단인 구 회장은 매년 'LSpartnership 바둑대회'를 이어가고 있고 1997년부터 꿈나무 프로젝트를 통해 이세돌 기사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발굴해 왔다.

는 이원영 3단, 천재 여류기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최정 2단을 후원하고 있다.

구 회장의 바둑사랑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유명하다. LS그룹은 지난해와 올해 LS-베트남 바둑 챔피언십을 후원했다. 구 회장은 올해 대회에 직접 참가해 양국간 문화 교류와 바둑 보급에 일조하기도 했다. 

“혁신 통해 시대 변화를 기회로 만들자”

商社・證券・電線 분야 섭렵한 실행형 리더



구자열 LS그룹 차기 회장

구자열(LS전선 회장) 차기 LS그룹 회장의 경영 키워드는 ‘혁신’이다. 전 임직원의 명함에 ‘No Innovation, No Future’라고 새겨 넣을 정도로 혁신 애창자다.

이 혁신의 지향점은 바로 ‘글로벌’이다. 지난 5월 구 회장은 ‘LS I(Innovation)-Fair

2012’를 열었다. ‘LS I-Fair’는 그룹 내 혁신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 의지와 시너지 창출을 점검한다. 연구개발 성과공유 회의인 ‘LS T-Fair’와 함께 LS그룹이 미래 성장을 위한 대표적인 행사다.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인 혁신이 LS의 성장에 큰 힘이 됐다”며 “사업 환경의 거대한 변화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기회이며 이는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자홍 회장이 강조하는 그룹의 실천전략인 그린 비즈니스와 LS파트너십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린 비즈니스 분야에서 그룹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서는 혁신 리더들의 활약이 더욱 중요하다”며 “LS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창의와 열정을 모아 새로운 혁신 에너지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LS그룹은 구자홍 회장이 성장동력을 위한 인력, 연구개발, 혁신마인드 구축 등 그룹 비전을 제시하면 구자열 회장이 실천적인 혁신경영을 통해 이를 실행하는 쪽이다.

보수적인 기업문화를 바꾼 것도 구 회장의 공이다. 구 회장은 서울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1978년 사촌형인 구자홍 회장의 뒤를 따라 반도체사에 입사해 1994년까지 실

무를 익히다 LG증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약 6년간 증권업무를 보다가 LG전선으로 이동해 계열분리 전까지 대표이사 부사장, 사장,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LS니코동제련·LS엠트론 대표이사 회장을 지내고 현재는 LS전선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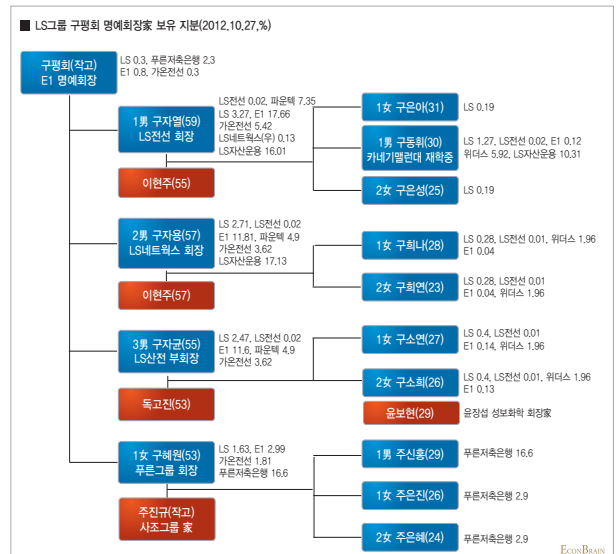
LS전선은 사업 특성상 해외 시장 개척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다. 그만큼 해외 비즈니스가 활발한 곳이다.

LS전선은 199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해 24개국 100여개 운영 사이트를 갖고 있다.

LS그룹은 중국, 아시아, 중동, 러시아, 미국, 유럽, 중동 등 각 권역별에 40곳의 해외법인과 지사를 두면서 다양한 사업으로 진출해 있다.

LS전선과 LS산전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구 회장이 명예영사로 있는 베트남에는 1996년 진출, 현재 2개 현지법인에 6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년 3억5000만불(한화 약 39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 매년 한국 대학생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해 민간교류



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구 회장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올 3월 베트남 정부의 2등급 노동훈장과 베트남이코노믹타임스가 주는 ‘골든 드래곤’ 상을 수상했다.

한편 구 회장은 LS만의 독특한 ‘사촌경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변의 ‘아름다운 승계’라는 시선에 일정 정도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는 의미다.

구 회장은 승계 발표 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사촌형제들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든든하다”며 “지금보다 사촌 간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 회장은 올 연말 LS그룹 2기를 위한 복안을 만들어 신년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룹 인사 부분에서는 구자엽 회장이 산전을 내려놓고 전선을 맡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막내동생인 구자균 LS산전 부회장이 산전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촌간 파트너십 더욱 발전시킬 터”

구태회, 故 구평희, 故 구두희 명예회장 등 이른바 ‘태평두(泰平斗)’ 3형제가 2003년 LG에서 떨어져 나와 LS그룹을 만들 때 구자홍 회장이 한 약속이 있다. 만 65세를 지나면 구자열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재계에 회자되는 ‘65세가 넘으면 현역에서 은퇴’한다는 LS家の ‘65세 룰’ 때문이다. 약속대로 하면 올 초에 경영권을 넘겨줬어야 한다.

룰에 따르지 않고 구자홍 회장이 1년 더 한 것은 구자열 회장의 간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S家の 우애의 근간은 ‘8인회’라는 데 이견이 없다. 구자홍 회장을 비롯해 8명의 사촌형제들이 매달 첫주 금요일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조율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운명을 달리한 박무여사(구태회 명예회장 부인), 구두희 명예회장, 김태향 여사(구자엽 LS산전회장 부인), 구평희 E1 명예회장 등 네 차례 장례를 치르면서 우애가 더욱 남달라졌다는 후문이다. 

구 회장의 자전거 사랑... “전기자전거 가정필수품 될 것”

구자열 회장의 자전거 사랑은 각별함을 넘어 유별나다. 서울 자택에서 안양 사업장까지 왕복 40km를 자전거로 출퇴근하기도 하고 양평부터 낙동강까지 1200리(480km)를 달리기도 했다.

지난 2002년에는 알프스 18봉을 자전거로 넘는 ‘알프스 챌린지’에 참가하는 등 주위에서 걱정할 정도의 과도한 사랑을 쏟고 있다. 2009년부터는 대한사이클연맹 회장을 맡아 아마추어 선수 육성에도 적극 나서는 등 자전거 전도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다.

자전거는 LS그룹의 그린 비즈니스와 맞닿아 있다. LS네트웍스는 자전거 전문매장 ‘바이클로(Biclo)’를 운영하고 있다. 구 회장은 바이클로를 앞세워 2010년 자전거 사업에 진출, 전기자전거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전기, 전자부품 산업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에 내놓을 명품 전기자전거를 만드는 것이 구 회장의 목표다. 구 회장



올 2월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보도사진상’을 탄 ‘두바퀴 천국을 꿈꾸는 남자’ 구자열 LS전선 회장의 자전거예찬. 조선일보 이진한 기사가 담았다. 구 회장의 자전거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진이다.

은 이미 지난 9월 토마-300이라는 전기자전거를 선보였다. 구 회장은 “2015년께 세계적으로 1억대 판매를 넘을 전망으로 성장성이 충분하다”며 “전기자전거는 각 가정의 필수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촌 8명이 ‘사업부문제’로 시너지 창출 현 사촌승계 시스템상 차차기는 구자은 사장

구자열 LS전선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영전하면서 전선을 비롯한 계열사 회·사장단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LS그룹 가문의 향후 계속될 사촌 승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 따르면 LS그룹은 12월 하순 경 조직개편을 통해 공식이 될 LS전선 회장 등 계열사 승계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LS그룹은 ‘사업부문제’라는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다. 문화단위와 사업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를 묶어 미래지향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계열사간 사업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신설했다.

전선-엠트론 사업부문은 구자열 LS전선 회장이, 산전-가온 사업부문은 구자엽 LS산전 회장이 각각 맡고 있다. 비철금속인 동제련-에스코는 구자명 회장이 맡고 있다. 지주사 산하의 LS전선, LS산전, LS니꼬동제련, LS엠트론은 사촌간 공동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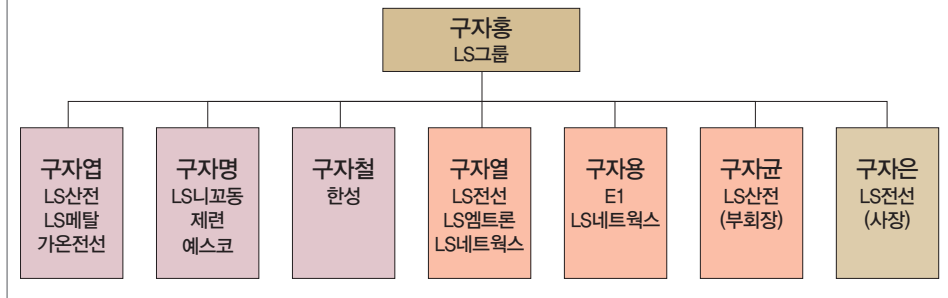
에스코는 구태희 LS전선 명예회장과故 구두희 에스코 명예회장의 집안이 분할했다. E1은故 구평희 명예회장 자손들이 경영 하고 있다.

구자엽 회장 LS전선 맡을 가능성 높아

LS전선은 연 매출 8조8000억원에 달하는 LS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따라서 중량감 있는 인사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태희 LS전선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구자홍 현 회장 동생인 구자엽 LS산전 회장이 맡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LS그룹의 사업부문제 경영 체제



구자엽 LS산전 회장

이후 회성전선, 회성건설을 거쳐 가온전선 부회장에 이어 2008년 LS산전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고속 승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계열사 LS메탈, 가온전선 등도 회장직을 맡고 있다.

LS산전과 가온전선이 공동으로 신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LS산전의 전력IT와 차세대 자동차 부품 등을 신수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이다.

구자균 부회장 LS산전 총괄할 듯

구자균 부회장은 중앙고와 고대 법대를 나와 텍사스주립대 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 석사와 기업재무 박사 학위를 받은 수재다. 고려대, 국민대에서 10년간 후학을 가르치다가 2005년 LS산전 관리본부 부사장으로 가업에 발을 들여놨

주력 계열사라는 중요성 측면과 집안 내 역학구도를 감안하면 가장 순리에 맞는 인사라는 해석이다.

구자엽 회장은 경북고,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고려대 국제대학원을 나와 럭키화재해상보험(LG화재), LG건설에서 잔뼈가 굵었다.



구자균 LS산전 부회장

다. 이후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부회장을 재임 중이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과 국제그리드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구 부회장은 사촌 승계 발표 이후 임직원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불황기 극복 키워드로 품질과 소통을 꼽았다.

그룹내 산전 부문을 총괄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관심을 끌었다.

구 부회장은 “L자형 장기 침체에 대비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수익구조가 열악한 사업은 진단해 근본 원인부터 파악, 개선하고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 중심의 사업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찌감치 산전 부분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구 부회장은 긍정의 힘을 믿는 소통형 리더인 점에서 사촌 형인 구자홍 회장과 많이 닮아 있다.

구 부회장은 늘 “마음에 품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긍정적 사고방식만 있어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고 강조하는 긍정 마인드 소유자다.

구자명 회장 非鐵분야 계속 지휘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홍 회장의 둘째 동생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은 올 연말 이동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에스코와 LS니꼬동제련을 맡아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보여줬고 LS그룹 내 비철금속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 회장은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이후 디킨슨대와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1983년 미국 쉘브론(Chevron)사에 입사, 1997년까지 14년간 GS칼텍스 전신인 호남정유에서 근무했다.



LS그룹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구 씨 일가 수장들이 임직원들과 2009년 신년하례를 나누고 있는 모습. 우측편 맨 앞부터 구자홍 LG그룹 회장, 구자열 LS전선 회장, 구자엽 LS산전 회장,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용 E1 회장, 구자균 LS산전 부회장.

구 회장은 동제련과 에스코 사업부문을 이끌면서 비철산업의 성장에 공헌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스코는 1981년 LG그룹 계열사로 세워진 극동도시가스를 2003년 계열분리 때 떼내서 이름을 바꿨다.

주요 사업은 도시가스로 불리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중심부와 동북부 지역, 경기 일부지역(구리, 남양주, 포천) 등에 LNG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구자철 한성 회장 변화 없을 듯



구자철 한성 회장

구자홍 회장의 막내 동생인 구자철 한성 회장은 올 연말 인사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성이 영위하는 업태가 에너지 그룹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한성은 주택자재제조, 주택분양 및 임대, 토목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1975년 세워졌다.

2004년 세일산업을 흡수합병 해 전선포장용품 제조 및 판

사촌 경영

매업을 추가했다. 2009년에는 회사를 전선포장용품제조 및 판매업과 건설 및 PC제조업으로 분할했다.

구 회장은 럭키금성상사 국제금융부 외환과를 시작으로 뉴욕법인 금융과장, 도쿄법인 금융부장을 거쳐 세일산업 대표이사에 오른다.

이를 한성과 합병시켜 회장에 올라 연간 영업수익 123억 원 짜리 회사로 키웠다.

구자용 E1 회장 자리 지킬 듯



구자용 E1 회장

구자용 E1 회장은 올 연말 그룹 인사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회장은 서울고와 고려대 무역학과,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을 나왔다.

구 회장은 오랜 해외 경험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LPG 무역에 한정돼 있던 사업영역을 프로스펙스를 인수해 스포츠 브랜드, 물류 등으로 확장시키는 등 강한 추진력과 승부사 기질을 지녔다는 평가다.

노사가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18년째 연속 임금 무교섭 타결을 기록 중이다.

E1은 LPG 수출입과 저장 및 충전 업체로 전신은 여수에 너지다.

이후 효유에너지, LG-Caltex가스였다가 LG에서 계열 분리 후 지금의 사명으로 바꿨다.

구 회장은 사내 각 팀마다 커뮤니케이션 활성 담당자(facilitator)를 지정해 티타임을 유도, 팀 구성원간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또 회사 경영 성과와 주요 현안을 전 임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 분기 경영현황설명회를 여는 등 LS그룹의 DNA인 '소통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년 이상 LG전자에서 잔뼈가 굵었다. 이후 LG칼텍스, E1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골프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구자은 LS전선 사장 차차기 승계 전망



구자은 LS전선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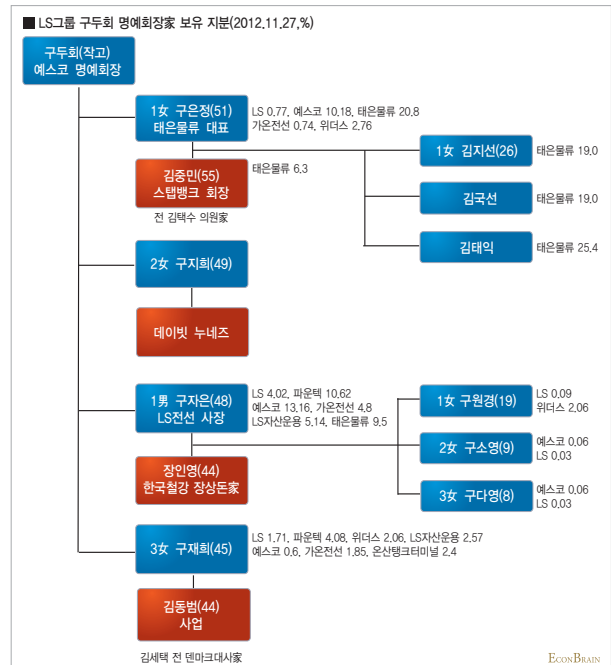
구자은 LS전선 사장은 지난해 연말 LS니꼬동제련 부사장에서 승진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동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촌간 경영권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차기 구자열 회장 이후 차차기는 구자은 사장에게 넘어갈 확

률이 높다. 세 집안 안배와 사촌 가운데 구 사장의 LS 지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도. 때문에 당장 이번 인사는 아니지만 구자균 LS산전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할 경우 그 자리를 이을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구 사장은 홍익대사대부고, 베네딕트대 경영학과, 미국 시카고대 MBA를 마친 후 GS칼텍스, LG 등에서 근무했다. 계열 분리 후 LS전선으로 이동해 중국지역담당, 사출시스템사업부장, 통신사업부장 등 사업부를 두루 거쳤다.

2009년 LS니꼬동제련 영업담당과 CMO(최고마케팅책임자)등을 맡았다



2003년 계열분리 직전 ‘사촌경영’ 당부 구태회 회장만 생존해 아름다운 약속이행 지켜봐

2003년 3월 국내 대기업 사상 최초로 LG가 지주회사로 공식출범함에 따라 그룹이 분리됐다. 이 때 LG그룹 창업자 고 구인회 명예회장의 셋째~다섯째 동생인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 故 구평희 E1 명예회장, 故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 등 ‘태평두’ 삼형제가 전선과 도시가스 업종만 따로 떼어내 독립했다.

LG전선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한 회사들은 LG전선을 비롯해 LG니코동제련, LG칼텍스가스, 극동도시가스 등 4개사였다. 이어 LG산전이 그룹에 합류했다.

같은 해 5월 LG전선 본사, LG니코동제련 서울사무소가 아셈타워로 이전되면서 실질적인 LG그룹과의 결별이 시작됐다.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분리 승인을 받아 LG그룹에서 완전히 분리됐다.

2005년 3월 상호를 LS전선, LS산전, LS니코동제련으로 바꾸고 CI 선포식을 가졌다. 2005년 11월 11일에는 LS그룹의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2006년 4월에는 경기도 안양에 LS그룹 사옥 및 R&D복합센터를 기공했다. 2008년 5월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7월 1일자로 지주회사체제를 출범했다.

현재 LS그룹은 LS전선, LS산전, LS니코동제련, LS엠트론, E1, 예스코 등 주력 7개사를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전자 및 소재분야의 사업을 영위 중이다. 1세대가 2세대에게 한 당부 중 아직도 회자되는 일화가 있다.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한 달가량 앞둔 2003년 10월 LS그룹 공동 창업주 중 맏이인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은 장남인 구자홍 LS그룹 회장과 차남 구자엽 LS산전 회장에 게 회장직을 독점하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당부를 했다.

그리고 한 달 뒤 구 명예회장은 동생들과 LS그룹을 만들었다. 이들 창업 1세대 삼형제는 구자홍 회장을 LS그룹 초대회장으로 앉히면서 사촌들이 회장직을 계승하는 ‘사촌경영’을 만들었다. 2대 구자엽 회장의 탄생에는 이같은 1



LG그룹에서 분리한 LG그룹이 2004년 4월 서울 아셈타워에서 입주식을 갖는 장면. 1세대 3형제가 나란히 모였다. 왼쪽부터 고 구평희 E1 명예회장,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

세대의 간곡한 당부와 이를 지킨 2세대들의 아름다운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삼형제 중 맏이인 구태회 회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6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80년대 정계를 떠나 럭키금성그룹 고문, LG그룹 창업고문으로 활약했다.

구평희 E1 명예회장은 지난 10월 20일 판교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구태회 회장과 같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지만 정치인보다 기업인의 삶을 택했다. 럭키화학(LG화학)에 입사한 그는 뛰어난 교섭력과 외국어 실력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선봉에 섰다. 재계 원로로는 드물게 영어에 능통해 ‘재계의 외교관’이란 별명을 얻었다. GS칼텍스와 E1 등의 설립을 통해 중화학 공업을 한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은 지난해 10월 83세 일기로 별세했다. 고려대 상대와 뉴욕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은 고인은 우리은행 전신인 한일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63년 금성사(LG전자)를 시작으로 가업 승계의 길을 걸었다. 대한석유협회 회장을 맡았던 시기에는 에너지 정책을 공급자관리 중심에서 수요관리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선견을 내놓는 등 신중함으로 정책개발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OULASY



www.boulasy.com

BOULASY

어두워진 얼굴, 검버섯-불라지 스팟이 解法입니다.

어두워진 얼굴 그리고 검버섯 지금부터 신경 쓰셔야만 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지나치게 어두워지고
검버섯과 유사한 색소침착(色素沈着)현상도 보이시지요?

이러한 현상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얼굴 및 손등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필드에 자주 나갈수록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신감도 결여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금부터 신경 쓰셔야만 합니다.

블라지는 어두워진 얼굴,
검버섯에 解法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프리미엄급 프랑스 製品입니다.

블라지스팟 SPOT, Serum 35ml | 남녀공용 |
BOULASY | 블라지 | Made in FRANCE



本誌 선정

임진년을 빛낸 차세대 리더 10인

“전방위 불황 불구하고 최선 다해”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도 저성장 늪에서 허덕이는 가운데 임진년 한 해도 저물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의 외부요인과 내수부진 등이 겹치면서 기업들 성적표가 예년만 못하다. 마땅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나마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다. 바로 경영 전선(戰線) 전후방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차세대 리더들이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송년특집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3세 가운데 올해 뛰어난 경영 성과를 이끌어 낸 10인을 선정, 이들의 활약상을 정리했다.



세계 굴지기업 CEO 회동 ‘廣幅 경영’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출생연도 (나이)	1968 (44)	주요 계열사 지분율 삼성전자 0.57 삼성에버랜드 25.1 삼성SDS 8.81 가치네트 36.69 삼성SNS 45.9
	입사연도 (임원승진)	1991 (2001)	
	학력	하버드대경영대학원 박사수로 게이오기주쿠대학교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경복고	
	지분평가 총액	1조1631억원	

〈표 보는 법(공통) : 지분평가총액과 지분율(%)은 11월 21일 종가기준, 적색은 상장사〉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의 보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넓어지고 있다. 더불어 내닫는 ‘걸음걸이’에서 진한 자신감이 느껴진다. 세계 굴지기업인 삼성전자 사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행보라는 평가다.

이 사장은 최근 들어 태양광, 반도체, 자동차, 통신 등 다양한 업계 최고경영자들을 만나면서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은 물론 인맥, 신성장 동력 찾기에 바쁜 모습이다.

이 사장은 올 초부터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분주하게 시작했다. 1월 10일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12’를 참관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넜다. 그는 이곳에서 폴 오텔리니 인텔 CEO와 만남을 가졌다. 모바일 영토 확장에 필요한 무선사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월에는 독일 BMW와 지멘스를 방문해 전기차 전지 사업 강화를 모

색했다. 또 지난달에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은 물론 삼성과 소니의 LCD 합작법인 ‘S-LCD’를 청산한 이후 소니 히라이 카즈오 사장과 만나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경영 승계를 위해 잔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5월에는 세계적인 자동차그룹 피아트와 크라이슬러그룹 지주회사 엑소르(Exor) 이사회의 사외이사가 되고 같은 달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 회장을 만나 자동차용 2차 전지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5대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자동차용 전지 사업 강화를 위한 것이다.

올 여름 이 사장은 중국 시장을 누볐다. 8월 28일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중국 왕치산 부총리와 면담하고 삼성 계열사의 중국 사업 추진현황과 반도체·LCD 투자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6월에는 삼성 최고

경영진과 함께 중국 리커창 부총리와 면담을 갖는 등 거대 시장인 중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사장이 지난 9월 말 추석 휴가를 반납하고 멕시코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 회장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 지난 4월 카를로스 슬림 회장의 방한 이후 두번째였다. 반도체, 통신 등 삼성전자 주력사업과 관련된 해외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신수종 사업인 태양광 사업을 위해 광통신장비와 태양광패널을 제조하는 미국 태양광기업 엠코어의 루벤 리처드 최고경영자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다양한 만남으로 ‘스펙’을 쌓은 이 사장의 올 연말승진 인사가 재계 관심사다. 지난 2010년 12월 부사장 승진 1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한 전례가 있고 그의 광폭경영이 예상롭지 않기 때문이다. 



위기 속 무게감 있는 ‘靜中動 경영’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출생연도 (나이)	1970 (42)	주요 계열사 지분율 기아자동차 1.74 글로벌비스 31.88 현대자동차 6,445주 이노션 40.0 현대위스코 57.87 현대오토에버시스템즈 20.1 현대엘코 25.06 서림개발 100
	입사연도 (임원승진)	1999 (2003)	
	학력	샌프란시스코대학교대학원 MBA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취문고	
	지분평가 총액	2조9638억원	

정의선 현대자동차 기획·영업 담당 부회장은 지난 8월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적자 늪에 빠져 있던 기아차를 ‘디자인 경영’으로 건져냈다. 이 과정에서 정 부회장은 세계 3대 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해 K시리즈를 만들어 흑자를 일궈냈다.

부친 정몽구 회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 행보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디자인으로 기아차를 부활시킨 정 부회장은 현대차에 새 브랜드 슬로건인 ‘새로운 사고, 새로운 가능성(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등을 도입했다. 디자인에다 품질을 덧입혀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조용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행보를 보였다.

경영 일선에서는 아직까지 정 회장의 ‘그림자’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차분하게 내실 있는 경영 수업을 쌓아가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정중동(靜中動) 경영’이라 부르고 있다. 묵묵히 맡은 업무에 충실할 뿐 아니라 행보가 요란하지 않아서 붙여진 것이다. 그러나 나서야할 때에는 거리낌 없이 대중 앞에 서서 과감함을 드러내는 게 정 부회장의 면모다.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신차 설명회다. 헤드셋을 끼고 나와 현장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카리스마를 각인시킨다. 작고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터틀넥 티셔츠와 단출한 청바지로 신제품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같은 이미지즘이다.

정 부회장은 올 초 현대제철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돼 품질부문 부회장을 맡았다.

이로써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에 이어 6번째로 계열사 등기이사에 올랐다. 차츰 그룹 전체에 영향력과 지배력을 높이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대차는 3분기 매출액 20조 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률 10% 선을 지켜냈다. 포드, 푸조, 제너럴모터스 등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과 상반되는 실적이다.

현대차는 3분기에 100만748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 매출 19조6456억 원과 영업이익 2조558억 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대비 판매는 0.9%, 매출은 3.6%, 영업이익은 3.1% 늘었다. 3분기 누적은 이보다 더 실적이 좋다. 판매 318만3516대, 매출 61조7507억 원, 영업이익 6조84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7.8%, 15%나 증가했다.

이는 부친인 정 회장의 발 빠른 현지화 전략과 정 부회장의 탄탄한 뒷받침이 빚어낸 합작품이란 평가다. 그러나 호사다마이기 마련.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연비오류와 광고저작권 문제 대처가 정 부회장의 입지를 굳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실적 고공비행 이용한 ‘高段數 경영’

 조원태 대한항공 전무	출생연도 (나이)	1976 (36)	주요 계열사 지분율 대한항공 0.1 한진 0.03 정석기업 1.28 싸이버스카이 33.3 한진지티앤에스 25.0 유니컨버스 40.0
	입사연도 (임원승진)	2003 (2006)	
	학력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경영대학원 MBA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美 마리안고	
	지분평가 총액	39억3000만원	

조원태 대한항공 전무는 최근 2년 만에 공식석상에 잇달아 나왔다. 지난 10월 25일 열린 대한항공 3분기 실적발표와 11월19일 부산테크센터 조성관련 부산시와 양해각서 체결 자리에서다.

2010년 같은 자리에 참석한 이후 2년 동안 기자들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조 전무를 보기가 쉽지 않았다.

우연의 일치일까. 그동안 대한항공의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3분기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조 전무가 오랜만에 실적 발표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무는 “고유가 등 영업환경 악화 속에서도 3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다”며 “항공우주산업 부문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항공우주 종합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다.

흑자전환에 대한 안도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를 염두한 발언을 쏟아냈다.

3분기 대한항공의 매출은 조 전무의 어깨를 한껏 가볍게 하기 충분했다. 탑승률 82%, 여객 매출 3조4300억원, 영업이익 3132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조 전무의 등장은 대한항공 실적보다는 KAI 인수에 무게를 뒀다.

조 전무는 이와 관련 “아직 입찰이 진행 중이어서 많은 부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기본방향은 적정가에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직 실사를 거치지 않아 적정가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실사 과정을 통해서 적정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계 항공사 등 다수 투자자가 의견을 보내왔지만 방위산업체여서 외국계 보유 지분이 10% 미만으로 제한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단 단독 인수에 나서고 추후 일정한 투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수 후보인 현대중공업과 관련해서는 안정된 재무는 인정했지

만 항공기 제작과 항공 산업 경험 면에서는 대한항공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장을 떠났다.

흑자실적 발표라는 좋은 분위기를 이용한 KAI 인수를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배팅’을 하지 말 것을 은연중에 흘린 자리였던 셈이다. 이를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고단수’ 행보였다는 평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한항공의 실적 ‘고공비행’이 조 전무의 경영능력을 대외적으로 알린 분기점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2010년 전무 승진에 이어 또 한 번의 승진인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조 전무의 누나인 조현아 전무 역시 기내식 설명회에 직접 나섰는가 하면 여동생인 조현민 상무 역시 진여와 대한항공 광고분야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빛날 ‘價値 경영’

 김동관 한화솔라원 실장	출생연도 (나이)	1983 (29)	주요 계열사 지분을 한화 4.44 한화S&C 50.0
	입사연도 (임원승진)	2010 (-)	
	학력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美 세인트폴고	
	지분평가 총액	1060억원6050만원	

김동관 한화솔라원 실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다.

군대를 제대하고 한화솔라원 차장으로 갓 입사한 김 실장을 김승연 회장이 세계인 앞에 데뷔를 시킨 것이다.

김 실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기업 구성원들이 개인과 조직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과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효과적인 기업 가치체계를 위해 기업과 사회 지도층 역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기업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경영권 승계 예정자다운 발언이다. 그는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기업 가치를 논하고 있다. 총수 ‘김승연’의 장남이 아닌 자연인 ‘김동관’을 인식시키기 위해 변별력 있는 ‘가치’를 추구한 것이다.

그만큼 김 실장은 긴 안목이 있다

는 평가다.

김 실장은 현재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는 ‘태양광 산업’ 한 복판에 서 있다. 지난해 김승연 회장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김 실장을 한화솔라원 본사가 있는 중국으로 보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김 회장의 의중을 담은 인사인 동시에 김 실장의 경영 능력을 시험대 위해 올린 승부수였다.

실제로 그는 이번 보직발령으로 사업을 짜고 직접 집행하는 실무책임자가 됐다. 한화는 지난 10월 독일 태양광 회사 ‘큐셀’ 인수를 최종 마무리했다.

1999년 설립된 큐셀은 2008년 셀 생산능력 1위에 올랐던 세계적인 업체. 큐셀의 인수로 한화는 세계 3위(셀 생산능력 기준) 태양광 회사로 올라가면서 한 단계 도약을 가져왔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현재

저성장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얼마나 버틸지가 관건이다.

제대로 오래 버텨야 승자가 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김 회장은 김 실장을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 초 김 회장은 “태양광 투자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적을지라도 훗날 더 큰 과실을 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2020년까지 태양광을 비롯한 핵심 사업 부문에서 세계 일등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이면 김 실장이 30대 중후반으로 중책을 맡을 시기다.

결국 한화의 미래는 태양광에 사활을 건 셈이다. 그 한가운데 김 실장이 서 있고 많은 이목이 그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다.

김 실장은 올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소재 한화솔라아메리카 연구소에서 개관식에 참석하는 등 해외 태양광 산업을 총괄하면서 경영수업을 단단하게 쌓아가고 있다. 

프레젠테이션·SNS 적극 활용 ‘疏通 경영’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	출생연도 (나이)	1975 (37)	주요 계열사 지분율 금호산업 6.96 금호타이어 3.22
	입사연도 (임원승진)	2002 (2006)	
	학력	매사추세츠공과대학경영대학원 MBA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취문고	
	지분평가 총액	728억원2392만원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은 영업을 총괄하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장남인 그는 올 6월 헤드셋을 끼고 나타나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장식했다. 3세 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임팩트’하게 표명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뒤에 물러나 있지 않고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부사장은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격납고에서 친환경 타이어 ‘에코윙S’ 신제품 발표회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전무에서 올 초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처음 주재한 공식행사 자리다.

금호타이어는 물론 계열사 임직원, 대리점 대표, 고객체험단 등 400여명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박 부사장은 ‘에코윙 S’를 장착한 쏘나타를 타고 깜작 입장을 했다.

이어 직접 단상에 올라 신제품 설명회를 진행했다. 마치 애플이나 마이크

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들이 신제품 발표회를 보는 듯 했다는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박 부사장은 직원들과 ‘번개’모임을 했다. 이날 만남은 박 부사장이 사원과 대리, 과장급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한마디로 ‘소통’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의도였다. 박 부사장은 모임에서 “금호타이어가 조속히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직원 여러분들이 보다 원대한 꿈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박 부사장은 젊은 나이답게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한 소통에도 능하다. 지난 8~9월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문제가 발생하자 트위터에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다들 한번 해보자고 기를 쓰며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사람 기운 빠지게 만드네. 정말 자신이 몸담은 곳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도 없나? 나머지 고생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 더 더욱 힘

내시길”이라며 노조와의 협상 파행을 사측 입장에서 지적했다.

이 역시 소통의 도구를 적절히 이용한 일종의 경영스킬이다. 한편 ‘승자의 저주’로 불리는 대우건설의 무리한 인수 부작용으로 금호그룹 전체가 위기에 직면,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주력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박 부사장은 금호산업의 지분 6.96%를 보유, 채권단을 제외한 개인으로는 2대 주주다.

최대주주는 7.23%를 보유한 부친 박삼구 회장이다. 이를 두고 재계는 워크아웃 기간에 경영권만 견고히 하려는 게 아니냐는 눈치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금호그룹 내부 형제간의 끝까지 않은 계열분리 소송을 놓고 봤을 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래 향한 창조적 발상 ‘挑戰 경영’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출생연도 (나이)	1968 (44)	주요 계열사 지분을 신세계 7.32 이마트 7.31 광주신세계 52.08 신세계건설 0.8 신세계&C 4.31 신세계인터내셔널 0.15 삼성전자 0.19
	입사연도 (임원승진)	1995 (1997)	
	학력	브라운대학교 경제학과 경복고	
	지분평가 총액	1조1910억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그룹을 총괄하면서 사실상 대외적으로는 ‘회장’ 이미지가 강하다.

현재 그룹은 이명희 회장, 백화점은 구학서 회장이 이끌고 있지만 대외 활동을 도맡기 때문에 빛어진 일이다.

그래선지 도전에 직면하는 일도, 해결하는 것도 대부분 정 부회장의 몫이다.

정 부회장의 올 한해 경영상 도전 중 하나는 면세점 사업 진출이다.

삼성(신라면세점)과 롯데그룹(롯데면세점)이 독점하고 있는 면세점 시장에 후발주자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롯데와의 전선(戰線)을 면세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정 부회장의 특명에 따른 것이란 소문이 재계에 나돈다.

정 부회장은 올 신년사에서 ‘도전’을 강조했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면서다.

정 부회장은 “모든 임직원들이 호기심과 변화, 도전 정신 필요하며 이것이 발휘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창조적 발상을 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올 한해 경영 키워드가 담긴 신년사다. 면세사업 진출은 그가 올 경영 목표를 실천하는 하나의 포석이란 해석이다.

정 부회장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생겼다. 부친인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이 최근 특강에서 “착한기업보다 스마트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면서 ‘책임경영’ 실천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정 명예회장은 최근 기업과 사회 간의 갈등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공약 등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스마트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스마트한 기업’이란 기업의 경제

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 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정 부회장은 다소 움츠러드는 모양새다.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거부하는가 하면 그룹 내 베이커리사업 철수도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같은 ‘반칙’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대척점에 서 있다.

한편 그는 지난 2009년 12월 승진 인사가 발표되고 2010년 취임해 3년 동안 부회장 업무를 수행했다.

큰 공과는 없지만 유통재벌 롯데와의 ‘전쟁’이 다소 버거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 대한 추가 인사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구학서 체제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정 부회장 신상의 변화가 없는 한 구 회장의 거취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간개발로 사업다각화 ‘速度 경영’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출생연도 (나이)	1968 (44)	주요 계열사 지분율 삼호 1.76 대림산업 0.47 대림코퍼레이션 32.1 대림아이엔에스 89.69
	입사연도 (임원승진)	1995 (2001)	
	학력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응용통계학 석사 덴버대학교 경영통계학과 경복고	
	지분평가 총액	116억원9478만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등기 대표이사다. 회장 타이틀만 달지 않았을 뿐 명실공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부사장에서 부회장 승진 후 1년 만에 대표이사로 올라섰다.

20년 동안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오너일가 친정체제로 변하는 순간이다. 속도감 있는 승진답게 그의 사업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속도 경영’이다.

아울러 어려운 건설업계 상황을 책임경영으로 돌파하려는 오너일가의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대림은 민간개발 사업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이 부회장이 대표를 맡은 이후부터 비즈니스호텔, 오피스 빌딩 등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이 부회장 체제가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은 이

부회장 대표이사 취임 후 속도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대표 취임 후 비주거용 개발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외 플랜트사업과 리스크 관리로 이익을 실현한 데 이어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과 중장기적으로는 수익형 부동산 외에 민자발전 플랜트(IPP)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속도 경영 이면에는 취미생활이 있다. 이 부회장은 흰철한 외모에 걸맞게 오토바이로 속도감을 즐긴다. 계열사인 대림자동차의 업무 파악을 위해 타던 것이 취미로 발전했다.

이 부회장이 존재감을 나타낸 것은 ‘e 편한세상’을 통해 아파트를 브랜드화 시키면서다.

딱딱한 아파트 이미지를 신개념 주거공간을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관급공사를 통해 대형 건물 위주의 대림의 경직된 기업 문화를 바꿔놓은 공로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부회장에게는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사업에서 아시아 최고의 전문화 된 기업을 꿈꾸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건이 있다.

검찰 조사 중인 비자금 조성 혐의다. 대림산업 하청업체로부터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하청업체 등을 통해 단가후려치기, 공사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등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설계, 기자재구매 의사결정 단계부터 협력업체를 직접 참여시키는 D&P시스템이 원가절감이 아닌 단가후려치기로 악용됐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60년 역사 현대정신 잇는 ‘繼承 경영’

 정지이 현대유엔아이 전무	출생연도 (나이)	1977 (35)	주요 계열사 지분율 현대상선 0.02 현대유엔아이 7.89 현대아산 0.44 현대글로벌 7.89
	입사연도 (임원승진)	2004 (2006)	
	학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이화여자외국어고	
	지분평가 총액	8억5600만원	

얼마전 현대아산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유상증자 청약결과 현대유엔아이 가 4억2200만원을 투자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종전 3.70%에서 3.95%로, 미 대학에서 수학 중인 차녀인 정영이씨와 장남 정영선씨도 각각 2억5389만원을 투자, 지분율을 0.26%에서 0.44%로 끌어올렸다.

정지이 현대유엔아이 전무도 1억 1492만 원을 투자, 지분율을 종전 0.55%에서 0.56%로 소폭 높이면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유엔아이는 현대그룹의 IT서비스 계열사로 물류분야 전문 IT 업체다.

정 전무는 현대그룹을 이끌고 있는 현 회장의 장녀로서 그룹 승계서열 첫 번째로 손꼽히고 있다.

그는 부침이 심한 그룹보다는 안전한 온실인 계열사에서 경영수업을 받

고 있다.

현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대북한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룹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보다는 현 회장의 장녀로 계열사 전무 수준의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서 ‘현대’의 적통을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현대정신’ 계승을 표방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지난 6월 1635억원을 들여 서울 강북의 유일한 6성급 호텔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구 타워호텔)을 인수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 전무의 입지를 넓혀주려는 현 회장의 투자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놴다.

현대 측은 금강산호텔사업의 연장선상인 호텔사업이라고 일축했지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놓고 보면 재계 분석이 설득력 있다.

또 재벌가 호텔사업에 ‘딸’들이 대거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같은 해석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건희 회장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대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딸 정유경 조선포털 등기이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윤이 현대해비치호텔&리조트 전무 등이 호텔업계 ‘여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 전무는 2004년 현대상선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재정부 대리, 회계부 과장을 거쳐 2007년 현대유엔아이 전무로 승진했다.

정 전무는 탁월한 경영수완으로 설립 5년 만에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다.

이 공로로 지난해 아시아소사이터티 코리아센터에서 주는 ‘젊은 여성 리더상’을 김은혜 KT 전무,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수상했다. 

경영권 완전승계를 위한 ‘持株 경영’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	출생연도 (나이)	1970 (42)	주요 계열사 지분율 한국타이어 5.79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5.79 엠프론티어 28.0 신양관광개발 44.12 아노텐금산 97.13 아노텐더블유티이 63.25
	입사연도 (임원승진)	1997 (2002)	
	학력	시라큐스대학교 경제학과 美 힐스쿨	
	지분평가 총액	3225억원9696만원	

지난 8월 한국타이어가 술렁거렸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조양래 회장이 대표이사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장남인 조현식 사장을 투자사업 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후계 승계를 본격화했다.

한국타이어는 9월1일에 투자사업 부문(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과 타이어사업 부문(한국타이어)으로 분할했다. 기존 한국타이어의 존속회사로 남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신설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사업 부문을 담당한다.

조 사장은 지주회사를 맡아 경영권을 거머쥐었다. 타이어사업과 투자사업 분야 분할비용은 0.1860495대 0.8139505이다. 일각에서는 후계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최대주인 조양래 회장과 두 아들이 기업분할 과정에서 한국타이어 지분을 지주회사에 넘기고 지주회사 지분을 높게 가져가면서 후계구

도를 완성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당시 조 회장의 깜짝 등장은 경영권 승계 연착륙을 위한 바람막이 역할이란 게 중론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75세 노구를 이끌고 경영복귀까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 회장의 복귀는 책임 경영 하에서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려는 결단이라는 해석이다.

조 회장은 그동안 전문경영인인 서승화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맡긴 채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조 사장이 지주회사를 맡으면서 동생인 조현범 사장은 신설 법인인 한국타이어 매출을 견인한다. 조 사장은 빠른 승진을 거듭해 왔다. 2010년 3월 등기이사로 선임된 후 3개월 만에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동안 전문경영인 체제로 이끌던 회사를 장남인 조 사장에게 맡기려는 조 회장의 복선이 깔려 있는 대목이다. 한국타이어는 그동안 조 사장

의 동생인 조현범 사장이 후계를 잇는 것이 아니냐는 설도 돌았다. 한국타이어 지분도 동생이 많았고 대외활동 역시 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이사회 때만 해도 신설 법인인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 장남인 조 사장 선임됐지만 5월 25일 이사회에서는 차남 현범 씨가 대표에 변경 선임되는 등 경영권 승계를 두고 장차남이 경쟁하는 모양새였다.

조 사장은 홍익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힐스쿨 고등학교와 시라큐스대 경제학과 졸업과 동시에 1995년 10월 미국 미쓰비시 상사에 입사했다.

이후 1997년 한국타이어에 합류해 한국타이어 전략기획부문 내 경영혁신팀 차장을 거쳐 2003년 글로벌 해외영업본부장(상무), 2006년 마케팅 본부장(부사장), 2008년 한국지역 본부장(부사장)에 이어 2010년 6월 한국타이어 사장에 올랐다. 

스스로 낮춰 회사 살리는 ‘降等 경영’

 설윤석 대한전선 사장	출생연도 (나이)	1981 (31)	주요 계열사 지분율 대한전선 5.5 옵토매직 12.59 TEC리딩스 53.77 대청기업 50
	입사연도 (임원승진)	2004 (2008)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지분평가 총액	562억원195만원	

설윤석 사장은 한때 재계 최연소 부회장으로 이름을 집중시켰다. 지난 2010년 12월 연말 정기인사를 통해 부사장에서 단숨에 부회장으로 2단계 초고속 승진을 했다.

선친인 설원량 회장이 작고하고 모친인 양귀에 명예회장이 회사를 지키고 있던 터라 다소 급했던 것이다.

입사 이후 7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고 나이가 막 30세가 되던 무렵이다. 이쯤 되면 고속승진을 넘어 과속승진인 셈이다.

이런 점을 의식해설까. 그는 올 2월 책임경영 강화를 앞세워 직급을 사장으로 스스로 강등했다. 이른바 몸을 한껏 낮춰 위기를 돌파하려는 ‘강등경영’이다.

이에 대해 설 사장은 “회사 선배님들이 여기까지 만들어 온 회사를 전력을 다해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직위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일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만 주력했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설 사장은 언론 노출이 흔치 않은 경영자다. 다소 어린 나이에 갑작스레 경영 일선에 나서는 바람에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회사 또한 급격히 어려워지는 바람에 나설 타이밍을 찾지 못했다. 대신 양귀에 명예회장이 전면에서 회사를 이끌었다.

설 사장은 서른 살을 넘기면서 점차 단단해져 갔다. 그 사이 대한전선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쳤다. 팔수 있는 건 모조리 인수합병 시장에 내놔고 채권단 협조용자 만기 연장을 받는 등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

한때 10대 그룹에 포함될 정도로 잘 나가던 회사였던 점에서 보면 아직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보긴 힘들다. 하지만 고비를 넘긴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대한전선은 3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시장 조달 차입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금융권

차입금만 남게 된다. 앞으로 유동성 위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긴 실향했다.

설 사장은 재무적인 구조조정은 연말까지는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부터는 공격적인 국외 수주활동을 통해 영업 측면에서도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한편 대한전선은 3분기 영업이익 300억원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누적 영업이익도 620억원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이 차입금 이자를 넘는다. 채권단 지원 없이 홀로서기가 가능한 것이다.

옛 안양공장 터에 추진했던 평촌 스마트스퀘어 사업과 남부터미널 용지 등 나머지 자산과 국외 자산 매각이 연내에 마무리되면 대한전선은 다시한번 비상할 여력을 얻게 된다. 



나무로 살아나는 벽 디자인 동화디자인월

자연을 디자인한 마루에서 나무 벽재 디자인월까지
당신의 자부심이 되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벽재 - 디자인월 볼케이노(좌), 오아시스 그레이(우)
마루 - 엑셀렌 셀렉트 월넛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4회 연속 수상



2012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2012 신소재 개발대상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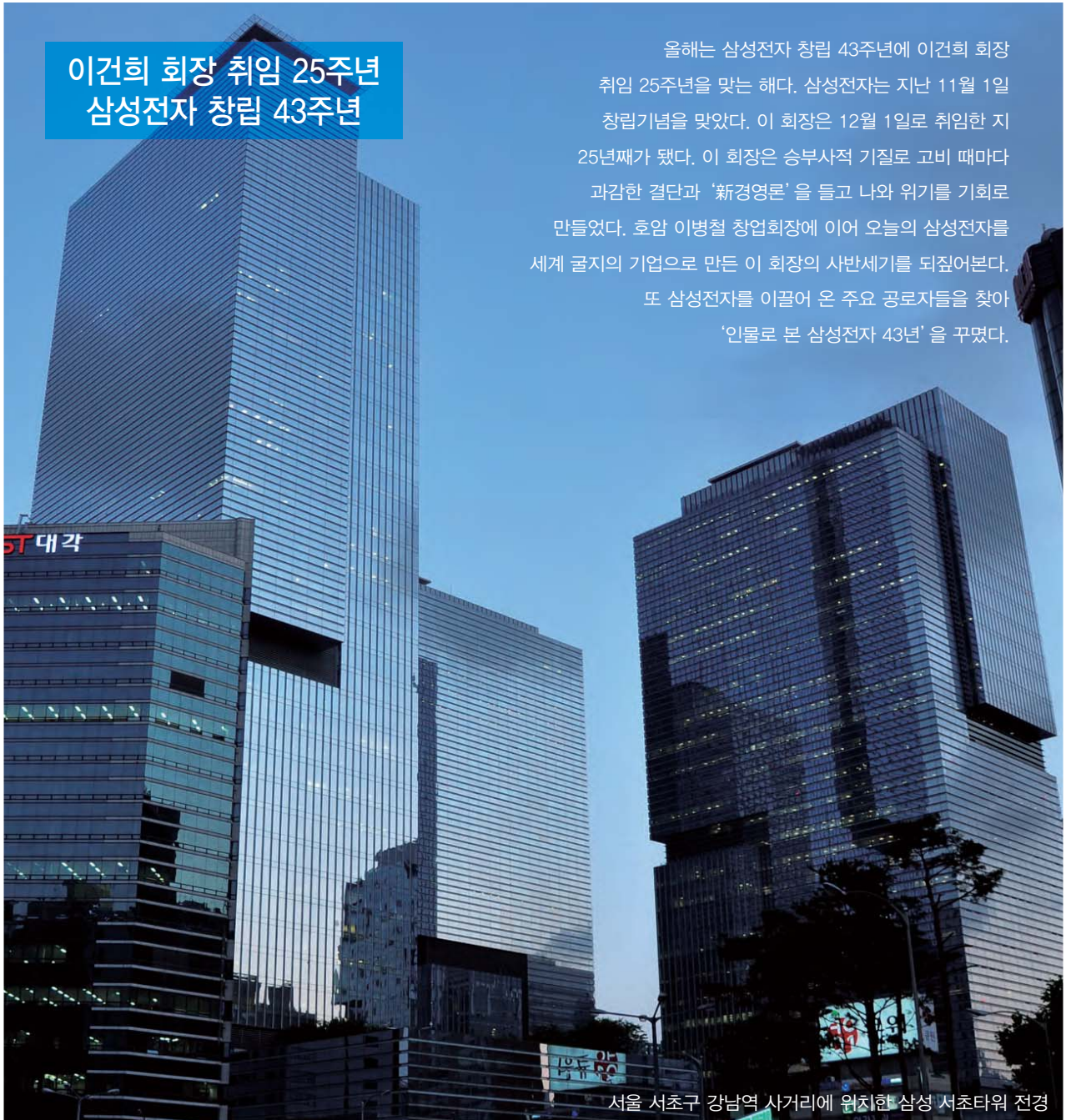


LIVE IN PRIDE
동화자연마루
www.greendongwha.co.kr

‘대한민국 밥그릇’三星을 초일류기업으로 키운 승부사

이건희 회장 취임 25주년
삼성전자 창립 43주년

올해는 삼성전자 창립 43주년에 이견희 회장 취임 25주년을 맞는 해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1일 창립기념을 맞았다. 이 회장은 12월 1일로 취임한 지 25년째가 됐다. 이 회장은 승부사적 기질로 고비 때마다 과감한 결단과 ‘新경영론’을 들고 나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호암 이병철 창업회장에 이어 오늘의 삼성전자를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만든 이 회장의 사반세기를 되짚어본다. 또 삼성전자를 이끌어 온 주요 공로자들을 찾아 ‘인물로 본 삼성전자 43년’을 꾸몄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삼성 서초타워 전경

“25년 전 메아리 없는 외침 실현” 평가 사업보국·인재양성·인화단결 유지 계승발전

삼성은 이건희 회장 취임 25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자랑스런 삼성인상’ 시상식과 함께 기념식을 열었다. 아울러 그룹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경영론, 유년시절 모습 등을 전파했다.

특히 블로그를 통해서서는 지난달 19일부터 말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리즈로 이 회장의 업적, 리더십, 글로벌 진출 현황 등을 소개했다.

1987년 12월 1일 이 회장은 취임식에서 △삼성의 전통과 창업주의 유지 계승·발전 △90년대까지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으로 성장 △인재 양성 △인화와 단결 △국가경제발전 기여 등을 밝혔다.

개인의 독선보다는 조직을 우선하고 책임경영과 공존공영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를 통해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의 경영이념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첨단 기술 산업 분야를 더욱 넓히고 해외사업 활성화로 국제화를 가속시켜 신기술개발과 신경영 기법 도입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재 발굴과 관련해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시켜 최선의 인간관계와 최고의 능력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뒷



1987년 12월 1일 회장 취임식에서 삼성 사기(社旗)를 받아 든 이건희 회장.

받침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삼성의 전통인 엄격한 신상필벌과 학연·지연·혈연을 철저히 배제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떠한 조직도 상호 신뢰, 성실, 존경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와 파멸이 있기 마련”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또 취임사 말미에서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 사회에 공급하고 건실한 경영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약속은 당시에는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했지만 25년 세월 속에 하나씩 실현됐고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취임 후 매출 39배·시총 303배 늘어

한편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 취임 이후 25년 동안 회사 매출이 39배 증가했다. 취임 당시 9조9000억원 수준이던 삼성그룹의 매출은 올해 384조원으로 늘어났다. 25년 전에 비해 39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삼성의 수출도 25배나 크게 늘었다. 특히 신경영을 선언한 1993년 이후로는 15배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87년 삼성그룹의 수출이 국내 총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13% 남짓이었다. 현재 삼성그룹의 수출액은 1567억 달러로 국내 총 수출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28% 비중을 차지

회장취임 사반세기



1951년 10살 무렵 모습



1961년 서울사대부고 졸업 사진



90년대 초반 무렵 모습



1993년 신경영 선언 때 모습



90년대 후반 무렵 모습

하고 있다. 삼성의 자산은 올해 435조원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2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글로벌 마케팅리서치 회사인 인터브랜드가 지난달 발표한 ‘2012 세계 100대 브랜드’에서 삼성은 329억달러의 브랜드가치로 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브랜드가치가 40% 이상 늘면서 순위가 수직 상승했다.

삼성그룹은 “올해 글로벌 브랜드 9위에 올랐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며 “세계 초일류를 향한 본격적인 도약이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T 강국을 위한 과감한 승부수

1974년 이 회장은 파산 직전의 한국반도체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주위에서는 웅성거림이 들렸다.

“TV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최첨단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일본보다 2·30년 뒤쳐졌는데 따라가거나 하겠는가?’라는 우려가 대부분이었으며 한결같이 반대한다는 목소리 뿐이었다.

오늘날 삼성이 있기에는 반도체가 지대한 공을 세웠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반도체 인수는 엄청난 무리수였다.

자본, 기술, 시장 등 가장 필요한 3대 요소 중 하나도 제대로 갖추질 못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은 안 된다는 3불가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웃 일본의 한 기업 연구소까지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비판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언제까지 그들의 기술 속국이어야 하는가?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일, 삼성이 나서야 한다. 내 사재를 보태겠다”며 반도체 미래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던 이 회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 나섰고 스스로 자료를 분석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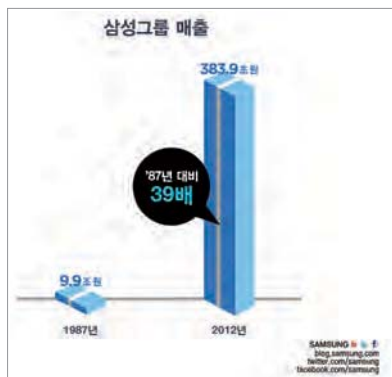
반도체 사업 초기는 기술 확보 싸움이었다. 일본통인 이 회장은 거의 매주 일본으로 가서 반도체 기술자를 만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1986년 7월 삼성은 1메가 D램을 생산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꽃 피우기 시작했다. 일본이 주춤거리는 사이 과감한 투자를 계속해 나갔다. 당시 세계 반도체 업계는 새로운 기술적 난관에 부딪쳐 있던 상태였다.

4메가 D램의 엄청난게 늘어난 용량을 어떻게 칩에 담을 것인가에 대해 스택 또는 트렌치 방식을 두고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를 던져야 했다.

만약 성공한다면 삼성이 기술 주도권 쥐게 되는 정체절명의 순간을 맞은 것이다.

당시 해외 선진 기업들은 아래로 가고 내려가는 트렌치 방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추세였다. 이 회장은 역발





2005년 한 잡지와 인터뷰 모습



2006년 뱅플리트상 수상 모습



2007년 전경련 회장단 회의 참석 모습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고 감격하는 모습



2012년 칠순을 맞은 모습

상을 선택했다.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지하로 파는 것보다 위로 쌓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인류의 반도체 기술을 방향을 틀게 했다.

결과는 적중했다. 트렌치 방식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기술을 수용해 나가지 못했다.

이 회장은 “트렌치로 했으면 지금쯤 반도체는 망했고 그룹까지도 흔들렸을 것”이라고 회고 했다.

1993년 두 번째 과감한 결단이 이뤄졌다. 기존 6인치 웨이퍼가 주류를 이루던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은 8인치 생산을 결행했다. 모두가 하는 6인치로는 일본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이 회장의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삼성은 64메가 D램 개발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한데 이어 생산량을 늘리며 시장 점유율도 1위를 기록, 기술과 생산 모두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반도체의 성공에 이어 애니콜 신화가 뒤를 이어받았다.

1984년 모토로라 카폰이 처음 등장한 이후 국내 휴대폰 시장은 모토로라가 석권하고 있었다. 삼성으로서

는 철옹성 같던 모토로라의 위력을 뛰어 넘는 것이 과제였다.

1994년 10월 삼성은 마침내 애니콜 브랜드의 첫 제품인 SH-770을 출시했다. 시장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반드시 1명당 1대의 무선 단말기를 가지는 시대가 온다. 전화기를 중시해야 한다”는 이 회장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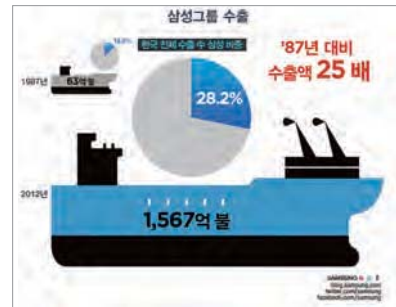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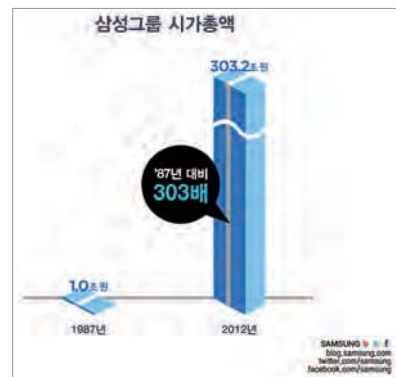
경영의 중심을 양에서 질로 바꾸자는 신경영 선언 이후 삼성의 신수종 사업으로 휴대폰 사업의 서막이 올랐다. 1995년 8월 애니콜은 모토로라를 제치고 51.5%의 점유율로 국내 정상에 올라섰다.

밀레니엄 시대의 시작인 2000년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1세기 초일류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경영을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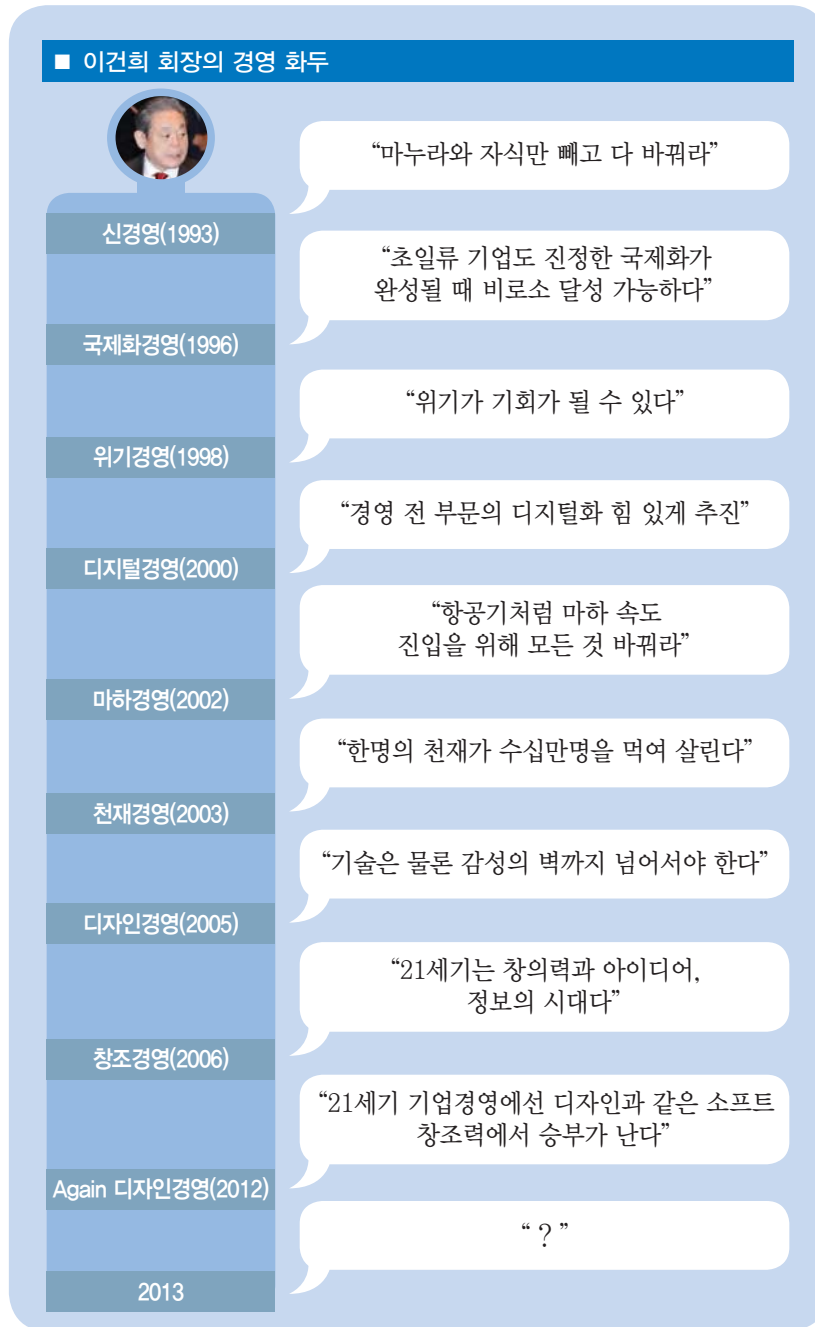
“새 천년이 시작되는 올해를 삼성 디지털 경영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제2의 신경영, 제2의 구조조정을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사업구조, 경영 관점과 시스템, 조직 문화 등 경영 전 부문의 디지털화를 힘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먼저 변화의 흐름

을 읽고 전략과 기회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인재와 기술을 모두 모아 사활을 걸고 TV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아날로그 시대 출발은 늦었지만 디지털 시대는 출발선이 같아 1등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TV 시장이 브라운관에서 디지털 TV로 전환되면서 삼성은 앞선 기술력과 뛰어난 디자인을 앞세워 보르도TV를 출시, 단숨에 선두권으로 치고 나왔다. 이후 최근의 스마트TV에 이르



회장취임 사반세기



기까지 삼성 TV는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글로벌화 가속…‘세계의 삼성’ 성공

1993년 신경영을 거치면서 삼성의

글로벌화는 더욱 속도가 붙었다.

이 회장은 1996년도 신년사를 통해 “21세기 우리의 기회는 세계에 있으며 초일류 기업도 진정한 국제화가 완성될 때 비로소 달성 가능한 것”이라

며 세계화에 박차를 가했다.

글로벌 경영의 핵심은 단순히 삼성 제품을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파는 것이 아니었다.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결과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근본이 되는 마음을 얻자는 전략이었다.

1998년 8월 러시아 당국이 ‘모든 외채 지불을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자 외국 기업들이 앞 다투어 떠났다. 삼성은 수천만 달러 적자를 감수하며 러시아에 더 깊이 파고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고 마침내 시장을 선점했다.

2000년대 들어 베스트바이, 서킷시티 등 내로라하는 미국 유통업체들이 삼성 제품들을 매장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삼성의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이 인정받은 것이다. 앨런콜루 서킷시티 회장은 2004년 1월 “무엇보다 소비자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 삼성은 브랜드 구축에 주력해 왔고 좋은 제품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제 삼성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는 ‘삼성은 워크맨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던 10년 전의 소니와 같다’는 제하의 장문의 기사를 통해 삼성이 소니를 역전했다는 소식과 성장비결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의 글로벌 삼성 전략은 세계인의 가슴을 파고드는 데 성공했고 2012년 12월 현재 삼성의 위상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

故이병철 명예회장

반도체 신화 신호탄 쏘아 올린 '3라인'



1986년 9월, 한 신문에는 국내 생산 반도체 제품은 모두 외국 복제품에 불과해 현재와 같은 단순 모방 기술만으론 결코 반도체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를 본 이 회장은 한남동 자택을 떠나

노구를 이끌고 몸소 기흥 사업장으로 갔다.

이 회장은 담당자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영국이 증기기관 개발로 1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예를 들며 3라인 투자가 실현된다면 반도체사업은 영국의 그것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반도체사업을 독려했다.

그러나 당시 임원들은 3라인 투자에 회의적이었다.

3라인에 3억40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기엔 이미 1, 2라인 건설로 적자인 회사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가장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며 계속 3라인 건설을 독촉했다.

마침내 이 회장은 착공식에 참석하겠다는 말과 함께 1987년 8월 7일 3라인 착공을 엄명했다.

착공식은 이 회장이 마지막으로 참석한 공식행사였다. 3라인 착공 3개월 후 이 회장은 영면했다.

이 회장의 예견은 틀리지 않았고 그룹 내에선 3라인 투자가 '반도체 신화'의 요체이자 최고의 승부수였다는 것을 단 한 사람도 부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마지막 유산이 된 3라인은 한국 반도체사업을 영국 증기기관에 비견될 만큼 위대한 업적으로 끌어올린 역작이 됐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위기 상황에 빛난 결단력

반도체사업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마지막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업 진출의 최종 결단을 내리고 이를 추진한 인물은 이 건희 회장(당시 부회장)이었다. 이 회장은 1974년 추진된 한국반도체



인수에 깊이 관여하면서 반도체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전기나 삼성전관 등 계열사들이 고전을 거듭하고 있을 때였던 터라 그룹 차원에서 또 다시 전자사업에 투자할 여력도 없었고 명분도 없었다.

게다가 비서실에서조차 한국반도체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한국반도체 인수는 계속 난항을 겪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회장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이는 이 회장이 이미 한국반도체를 통해 국내에서 반도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한국반도체 인수는 당시 그룹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선행 투자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적확(的確)한 판단이었다.

도시바, NEC, 샤프, 세이코 등의 생산 공장을 둘러보면서 일본 전자공업계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했다. 뿐만 아니라 단독 세계여행 중에도 주로 반도체 관련 인사를 만나고, 공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특히 이 회장은 IBM이 일찍부터 자체 수요의 반도체를 자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반도체사업 진출의 필요성을 선대회장에게 건의했고 선대회장이 이를 추진하기로 결단을 내리자마자 스카우트, 자료 입수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았다. 이처럼 메모리 반도체사업에 진출해 오늘의 반도체 신화를 이루기까지 이 회장의 역할은 대단했다. 그러기에 반도체사업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마지막 작품이자 이 회장의 첫 작품인 것이다. 

인물로 본 삼성전자 43년

정재은 前 삼성전자 사장

초일류기업 초석 다진 윤리경영 선구자



만년 업계 2위였던 삼성전자를 정상으로 등극시키고 세계시장 진출의 기틀을 다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사람은 정 사장이다.

그는 윤리경영이라는 경영철학에 근거해 기업이념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초석을 다졌다.

미국 유학과 기업 경험을 통해 세계적인 선진 기업들이 규모뿐만 아니라 기업이념도 남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국내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기업이념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정 사장은 1969년 삼성전자의 전신인 삼성전자공업에 입사했다. 정 사장은 입사 후 3년 만에 업무부 차장으로 승진해 업무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1977년, 신세계백화점에서 5년간 경영수업을 받은 후 다시 삼성전자공업 기획담당이사로 돌아온 정 사장은 삼성전자의 미래 설계를 시작했다. 이후 그는 삼성전기의 전신인 삼성전자 부품의 대표이사를 거쳐 1982년 삼성전자공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일찍이 전자산업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한 정 사장은 연구개발의 가속화와 선진기술 도입에 역점을 뒀다.

그 결과 1983년 세계 세 번째로 전자레인지의 핵심 부품인 마그네트론 공장 준공, 1984년 세계 네 번째로 VCR헤드 생산 달성, 1985년 디지털 테이프 레코더와 CD플레이어의 개발에 성공했다.

정 사장의 이런 노력은 기업경영 활동에 관련된 모든 구성원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이뤘고 1984년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업계 1위였던 금성사를 추월해 업계 정상을 차지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종용 前 삼성전자 사장

수많은 난관 뚫고 이룬 세계 정상



윤 사장은 1966년 삼성에 입사한 후 기획·조사를 시작으로 VCR 업무를 총괄해 삼성 전자 VCR을 세계 정상으로 이끄는 등 거의 대부분을 전자사업에 몸 담았다.

삼성전자가 VCR 개발에 성공한 것은 1979년 9월이었고 세계에서

네 번째였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이다. 당시 VCR은 가정용 전자제품으로선 최첨단 기술력의 결정체였기에 선진업체들도 그 기술만은 이전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었다.

윤 사장은 VCR 개발엔 성공했지만 워낙 기술이 없었기에 많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출장 때마다 경쟁사 담당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캐묻고 밤중에 국제전화로 국내 직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주기도 했다. 또 JVC 표준 인증을 받기 위해 영하 20도가 넘는 조건에서 실험하는 직원들과 밤을 새우기도 했다.

윤 사장은 품질관리 개념을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VCR 사업을 시작한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특히 품질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당시 부회장이던 이근희 회장이 직접 품질회의를 주재해 VCR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그룹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 보단 차라리 지금 당장 생산을 중단하고 품질이 안정된 후 생산을 재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위기 속에서 윤 사장은 과감한 결정을 내려 라인을 스톱시킨 후 3개월 동안 문제점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품질 안정 후 생산을 재개해 초창기의 어려움을 딛고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강진구 前 삼성전기 회장

정보통신 선진화의 숨은 주역



강 회장은 삼성반도체통신 사장에 부임하자마자 통신 산업의 새로운 흐름에 대처하고자 했다.

이에 당시 몇몇 선진기업만 보유하고 있던 시분할방식 디지털 교환기 기술의 도입을 서둘러 협력관계에 있던 ITT와 S-1240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 습득을 위해 ITT의 자회사인 벨기에의 BTM사에 기술연수생을 파견할 때 강 회장은 연수생 간부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조립기술이나 운영기술 뿐만이 아닌 핵심기술까지도 알아오라고 당부했다.

BTM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대여섯 가지를 더 묻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연구하라고 당부했다. 심지어는 근본원리와 핵심기술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면 아예 귀국하지 말라는 엄포도 놓았다.

각오를 다지고 벨기에로 떠난 연수생들은 처음 7~8개월간은 그쪽에서 준비한 일정에 따라 조립과 운영기술을 전수받았다. 유의선 팀장은 기본 연수과정은 BTM의 계획대로 진행하되 우리나라 환경에 적용시키는 CDE만큼은 BTM과 공동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BTM은 그 요청을 거부했으나 M10CN을 설치할 때 BTM이 CDE를 소홀히 했던 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자 BTM도 주장을 굽혀 S-1240의 CDE는 공동으로 개발하게 됐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현장설계를 하려면 S-1240의 핵심원리와 기술을 충분히 알아야 했지만 고급기술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BTM의 보안조치가 엄격해 그들이 허용한 접근영역을 넘어서려면 바로 제동이 걸렸다.

각 분담조는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숙소에 돌아와 함께 검토해 해결하거나 우회적인 접근법을 사용해 해결하면서 CDE 개발에는 약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EB**

이윤우 前 반도체총괄 사장

소통이 만들어 낸 메모리 세계 1위



이 사장은 회복세로 돌아선 반도체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3라인의 양산체제를 마무리 짓고 차세대 신제품 개발을 책임지는 반도체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부임 후 연구소장으로서는 받은 첫 보고는 시생산 때만 하더라도 기대

할만한 수율을 확보했던 4메가 D램이 본격양산에 필요한 개발수율이 0%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내용이었다.

원인은 각 임원들 간 개발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사소한 의견대립이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변졌던 것. 반도체연구소가 가장 뛰어난 인재 집합소지만 개발과제에 대한 개개인의 강한 자존심과 한정된 개발과제에 대한 자기 소유욕이 빚어낸 결과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던 이 사장은 갈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놓고 토의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반도체연구소 관련 임원 및 간부들이 함께 하는 수요공정회의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출석수범을 보이고자 회의참석을 모든 스케줄의 우선으로 삼았다. 처음에는 불만 섞인 자기주장이 난무하던 회의가 참석자들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 열의도 점차 높아져 회를 거듭할수록 건전한 토론문화와 문제해결의식으로 바뀌어 갔다.

주제도 설계와 공정개발 중심에서 신기술 연구, 경쟁업체 기술의 벤치마킹 등으로 다양해지고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

이 사장이 주도한 수요공정회의를 통해 반도체연구소는 개발 풍토와 분위기를 쇄신했고 선행 개발력도 확보해 1기가 D램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해 메모리 세계 1위의 반도체 신화를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EB**

인물로 본 삼성전자 43년

진대제 前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대표이사

반도체 호황 일등공신 ‘타도 코낙’



일 본을 이기는 것이 평생 소원이던 진 대표는 일본을 능가하는 제품 개발을 위해 IBM에 사표를 제출하고 삼성에 입사했다. 입사 후 진 대표는 4메가 D램 개발의 수석 엔지니어를 거쳐 16메가 D램 개발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16메가 D램은 선진업체의

기술과 노하우가 없어 자체 기술만으로 개발해야 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발 시작 1년 4개월 만인 1990년 7월 선진업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전동작 칩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반도체는 상용제품을 먼저 개발하는 것도 개발 성공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했다. 이에 진 대표는 상용 샘플 확보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1991년 6월, 샘플을 얻는데 성공했다. 7월엔 대형 거래선인 IBM에 샘플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IBM에 16메가 D램 샘플을 갖고 온 것이 삼성전자가 처음이었다. 최초의 샘플 전달은 놀랄 만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방문한 DEC, 웨스턴 디지털, HP 등에선 이미 환영준비를 마치고 진 대표 일행을 기다릴 정도였다. 최초 개발은 아니지만 상용 샘플 최초 전달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HP로부터 삼성보다 우수한 ‘코낙’이 있다는 말을 전했다. 코낙은 일본의 도시바였다. 도시바는 삼성보다 3개월 후에 샘플을 전달했지만 속도는 삼성보다 훨씬 빨랐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 타도 코낙을 목표로 완전 재설계에 들어가 속도와 성능을 더욱 개선한 16메가 D램을 개발해 HP에 전달했다.

그 후 삼성은 16메가 D램을 곧바로 상품화해 세계시장 석권에 나섰다. 삼성의 16메가 D램은 세계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며 1995년의 반도체 호황을 장식한 일등공신이 됐다. 

황창규 前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

땀 노력 눈물이 빚어낸 256메가 D램

수 요공정개발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황 사장은 ‘256메가 D램 워킹 다이 확보.’라는 짧은 메모를 전달 받았다.

이 메모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56메가 D램 개발에 성공했다는 의미였다. 처음 256메가 D램 개발 계획 때만 하더라도 0.25미크론의 기



술을 구현하기엔 넘어야 할 기술의 벽이 많았고 기초기반 기술도 취약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연구원들은 256메가 D램 개발에 회의적이었고 자신감도 결여돼 황 사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황 사장은 오히려 연구원들에게 우리 기술력이 일본의 콧대 앞에 무너질 수 없다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함께 기술현실의 분석과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경쟁사 기술회의를 통한 벤치마킹을 꾸준히 습관화해 개발의지도 계속 불타오르게 했다. 이런 그의 노력은 젊고 적극적인 연구원들이 개발에 대한 집념과 확고한 신념을 갖게 만드는 데 한몫했다. 기초준비를 거쳐 1992년 3월 드디어 개발의 긴 여정에 들어갔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연구원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됐고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도 얻었다. 이를 토대로 시제품 설계팀은 4월에 설계를 마무리 했고 공정연구원들은 새로 갖춰진 포토 설비의 인프라를 이용해 밤낮으로 연구소의 불을 밝혔다.

첫 번째 테스트가 있던 1994년 8월 11일, 아홉 번째 웨이퍼에서 2억6700만개 셀 전부가 동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당시만 하더라도 256메가 D램 개발 성공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가능하다고 믿던 시대였다.

황 사장은 3개월 후 완전작동 샘플을 HP와 IBM 등의 거래선에 전달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들의 땀과 노력과 눈물의 대가였다. 

최지성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세계 산업 트렌드 주도한 디지털 혁신가



삼성전자는 2005년 TV 매출액에서 세계 1위, 2006년 평면 TV 시장 세계 1위, TV 업계 최초 매출 100억달러 돌파 등 놀라운 기록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 같은 약진의 뒤에는 2003년부터 삼성전자 의 영상가전 및 IT 제품 부분인 디지털미디어총

괄을 맡은 최 부회장(당시 디지털미디어총괄 사장)이 있었다.

최 부회장은 삼성을 소니와 파나소닉 등 기라성 같은 일본 경쟁사들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영상가전 업체로 재탄생시켰다. 최 부회장은 업계에서는 드물게 TV 사업을 영업이익 10%에 가까운 우량사업으로 만들었다. 세계 최초 블루레이 플레이어 출시해 시장을 이끌어 가는 이슈 메이커가 되기도 했다.

시장 트렌드를 주도했던 최 부회장은 2003년 IFA에서 가전 사업이 디지털로 전환해 새로운 부흥기를 맞는 '디지털 르네상스'를 예측했고 그 예상은 정확했다.

2006년 IFA에서도 디지털가전이 풍요로운 경험기를 거쳐 2010년 '디지털 대폭발'의 시기를 맞을 것으로 예견해 다시 한 번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최 부회장은 삼성전자와 자신이 디지털 르네상스를 지나 디지털 대폭발 시기를 이끌 '디지털 혁신자'가 될 것을 대외에 표명했다. 이는 과거 선진기업을 따라가던 국내 기업이 이제는 혁신제품으로 산업 트렌드와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미국, 유럽 등 거대시장을 주 타깃으로 삼아 해외에서 먼저 제품을 출시해 직접 공략기로 했다.

풀HD LCD TV, 블루레이 플레이어의 경우 2006 6월 미국 시장에서 먼저 출시했고, 유럽 시장에도 어느 업체 보다 빨라 제품을 선보여 디지털 혁신자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권오현 삼성전자·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부회장

외유내강 경영으로 세계 시장 석권

권부회장(당시 삼성전자 DS총괄 사장은)은 1985년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연구소에 입사했다. 입사 후 그는 삼성전자 4메가 D램 개발팀장(부장), 64메가 D램 개발팀장(이사)을 맡으면



서 삼성그룹 기술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등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의 인생은 1997년 시스템LSI 사업부 제품기술실장(상무)으로 발령이 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인텔·IBM·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켈컴 등이 수십 년 동안 강자로 자리매김 해왔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 그들의 명성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던 시절이라 국내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불릴 만큼 암울한 시기였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권 부회장은 반도체사업부를 안정권에 올려놓기 위해 10년 동안 고군분투했다.

2008년 반도체사업부 사장에 오른 권 부회장은 직원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었다. 하지만 그런 부드러움 속에서도 늘 혁신을 추구했다. 혁신의 초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이었다.

2002년 삼성전자가 DDI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자 권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 전용 생산 공장 설립인 'S라인 프로젝트'라는 본격적인 승부수를 띄웠다. 이와 함께 우남성 시스템LSI 사장도 삼고초려해 영업하고 차세대 제품 설계를 맡겼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고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2010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분야 1위에 올랐으며 아이폰에 들어가는 AP도 수탁 생산하는 등 스마트폰 열풍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됐다. 

기업 지속가능 경영 위한 장기적 투자

사회적 책임은 선택 아닌 필수



기업과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에 바로 반영돼 관심과 참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은 현대자동차그룹구재단 해비치 써니캠프(左), 현대하이스코 사랑의 쌀 나누기, 현대위아 사랑의 연탄 나누기 모습

기업 경영에 있어 사회적 책임(CSR)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과거엔 기업이 성공을 위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전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해 기업 이미지를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양질의 상품 생산만큼 중요해졌다.

한 조사에서 국민의 93.6%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며 80%는 같은 값이면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 제품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것을 증명한다.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점차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바뀌면서

국내 기업과 기업재단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함께 느끼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감동하는 아름다운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는

‘共感 36.5’의 두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정몽구현대차재단이다.

4대 무브 운동을 기반으로 사회 구석구석을 찾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담았다.

이와 함께 최근 1조원 재단 기금 조성해 아시아 인재 육성을 발표한 관정 이종환 삼양화학 회장의

교육재단과 창립 46주년을 맞아 사회공헌활동 확대방안을 발표한 효성그룹도 함께 살펴본다.

“더 나은 미래 위해 함께 움직이는 세상”

4대무브 기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 이지무브 차량 개발, 보급
- 장애인기관 이동편의 보장
- 장애인 의족 지원
- 장애아동 놀이터 설립



교통안전문화 확산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 안전한 스쿨존지킴이 캠페인
- 해피웨이 드라이브
- 교통사고 피해자 및 유자녀 지원



자원봉사

- 그룹 사회봉사단
- 그룹 사회봉사 캠페인
- 계열사별 상시봉사단
- 글로벌 청년봉사단



환경 사회공헌

- Hyundai Green Zone
- 글로벌 자연환경 보존활동

현대자동차그룹 전 계열사는 ‘4대무브를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문화
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란 슬로건 아래 다
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적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사회책임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인간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
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룹 사회공헌 기반인 ‘4M’

‘무브(Move)’로 대표되는 현대차
동차그룹 사회공헌 사업체계는 이지
무브(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세이프
무브(교통안전문화 확산), 해피무브
(자원봉사), 그린무브(환경 사회공헌)
등의 4대무브 사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계열사별 사회공헌 대표사업 등으
로 구성돼 있다.

‘이지무브’는 장애인, 고령자, 환
자 등 사회 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대표 활동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승하차

를 위한 차량 개발을 목표로 한 자동
차 연구와 저상버스 보급이다. 앞으
로도 이지무브 차종에 대한 연구 개
발과 투자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세이프무브’는 자동차 안전의식
함양과 도로 환경 개선 등 선진 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는 활동
이다. ‘해피웨이 드라이브 캠페인’은
건전한 교통 문화 정착과 행복한 자
동차 생활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시
작됐다. 대표적 활동은 ‘천사의 날
개’로 아동용 스쿨버스에 천사 날개
모양의 어린이 승하차 보호기를 달아
타고 내릴 때 생기는 교통사고를 예
방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교육, 교통안전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그룹의 의지를 담아 건립한
‘키즈오토파크’는 연간 1만2000명
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해피무브’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임
직원들과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국내

는 물론 해외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봉사활동이다.

‘사회봉사시간 캠페인’은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시기별로 사회봉사주간
을 정해 사랑의 떡 나누기, 재래시장
상품권 전달, 집수리, 자원봉사활동
등의 대대적인 그룹차원의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한다.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을 통해 글
로벌 기업으로서 사회 책임을 목표로
‘글로벌 청년봉사단’도 운영되고 있
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미
국, 인도,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활
동하며 문화교류, 의료봉사 등의 활
동을 한다.

그룹은 ‘그린무브’를 통해 지구환
경의 보존 및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그린존 프로젝트’는 지구환경
을 되살리자는 목표 아래 중국 사막
화 방지와 생태계 복원을 통해 내몽
고 사막지역을 초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 통한 저소득층 지원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들의 자립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사진은 (사)안심생활, (주)이지무브, (주)두리반(왼쪽부터)(3등분)

현 대자동차그룹은 4대무브 활동 외에도 실업 및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위한 취지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취약계층에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부형태의 전통적 사회공헌보다 기업 활동과 복지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이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노인 및 장애인 돌봄분야 국내 1호 사회적 기업 ‘안심생활’, 국내 첫 장애인보장기구 제조업 기반의 자립형 사회적 기업 ‘이지무브’, 사회적 약자의 고용확대를 위한 지역 밀착형 사회적 기업 ‘두리반’, 미래 청년 사회적 기업이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형 사회적 기업 ‘서초창의허브’ 등의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설립하고 있다.

안심생활은 2008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함께 노인 및 장애인 방문요양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년간 노인 분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요원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전문적인 요양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고용 인원 중 62%인 186여명은 50대 이상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은 5만 5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지무브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보조 및 재활기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2010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과 협력해 설립했다.

2011년엔 2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내년까지 운전보조장치 국산화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초창의허브는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이라는 판단 하에 사회적 기업이 양성으로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2009년부터 가천대(구 경원대) 경영대학원 사회적 기업학과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공모사업

인 서초창의허브 청년 사회적 기업이 양성센터 설립 지원, 경기도 지역 사회적 기업 대상 벤처 경진대회 후원 등을 통해 연간 150여명의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화성시 새마을회와 함께 쌀과자 및 베이커리를 제조, 판매하는 지역 밀착형 사회적 기업 두리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울산 지역 사회적 기업과 자매결연을 통해 공장의 작업복 세탁, 식당의 김치납품, 중고PC 재활용 등을 지역의 사회적 기업인 한백, 아삭김치, 재활용사업단 등에 맡겨 처리하고 있다.

또 핸들커버를 납품하는 탈북여성 사회적 기업 ‘하나이웃’ 차량지원과 장애인전문여행사 ‘한벗투어’에 장애인용 관광버스 후원, 재소자 및 소년원생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목표로 법무부에 직업훈련 실습용 차량을 무상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차량지원 및 후원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따로 똑같이 실천하는 아름다운 나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맞춤형 사회복지 지원 사업 ‘함께 움직이는 세상 공모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사진은 움직이는 청소년센터에 기증한 대형버스

현대자동차는 사회복지 현장에
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
람들에게 따뜻한 나눔이 닿을 수 있
는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분야별
맞춤형 사회복지 지원 사업 ‘함께
움직이는 세상 공모사업’을 계열사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정해 지속
적으로 펼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장
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과 단

체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예산,
인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 올
해까지 총 224개 사업에 28억원을
지원했다.

또 선정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
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
제공과 실무자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기관과 실무자 역량을 강화해 사회
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어린이들이 교통사
고로부터 보호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어린이
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 아이들의 안
전을 지키기 위한 어른들의 약속을 의
미하는 ‘Kids first’를 슬로건으로
내건 ‘투명우산 나눔 사회공헌활동’
을 펼치고 있다.

2010년 시작된 이 활동은 비오는
날 어린이들의 시야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우산에 반광 재질을 사용
해 빗길 교통사고 및 충돌사고 등 어
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565개
나눔 학교와 30만 여개의 나눔을 실
천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투명우산 나눔 활동

현대카드 · 현대캐피탈



혈액이 부족한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친 현대카드 · 현대캐피탈 직원들

현대카드 · 현대캐피탈은 작은
사랑의 나눔 실천을 위해 여
의도 본사 및 양재, 흥대 사옥을
직접 방문한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받는 ‘Red Heart Campaign’을
매년 하고 있다. 2010년까지 ‘사
랑의 헌혈증 나누기’ 캠페인으로
진행됐으나 2011년에 캠페인 명칭

을 지금과 같이 바꿨다. 이 캠페인
은 헌혈증을 기부할 대상의 이야기
를 공개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를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증한 헌혈증은 전량 한국백혈
병소아암 협회에 기부돼 혈액부족
으로 고통 받는 백혈병소아암 어린
이들에게 전달된다.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지구의 녹색 미래를 함께 펼쳐나갈 에코다이나믹스 원정대를 매년 선발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물론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기아자동차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은 ‘에코다이나믹스 원정대’이다. 청소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경험과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미지의 세계와 창의적인 가치에 대한 열정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히말라야 등반, 자연생태 탐사와 오지마을 자원봉사 등을

수행한다. 2009년까지 ‘로체청소년원정대’라는 이름을 2010년부터 바뀌어 환경 및 생태 관련 부문을 강화했다. 15~19세 청소년 100명과 2~4학년 대학생 20명을 선발해 환경인사 강연회 및 환경이슈 교육 참가, 주요 생태계 탐방, 환경 정화 활동 등의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저소득층 및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에너지 효율을 높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희망의 집수리-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9년 당진의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2010년엔 인천과 포항 지역에 집수리를 완료했다.

이 활동은 전문 시공업체가 진행하지 않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자원

봉사자의 힘으로 이뤄지는 형태로 연간 1200여 명의 봉사자가 활동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2007년 시작된 어린이 환경교실 ‘초록수비대’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다.

환경캠프, 환경퀴즈대회, 환경체험교실 등의 커리큘럼을 준비,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역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현대건설



창덕궁을 비롯해 국내 주요 문화재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지난 2005년부터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킴이’ 협정을 체결해 창덕궁의 주요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과 금천교 상류 간수로 정비공사에 9000만원을 지원 하는 등 우리 전통문

화를 보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창덕궁 지킴이 활동은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하나로 지금까지 매년 1000여명의 임직원들이 꾸준히 참여해온 활동이다.

향후 창덕궁 지킴이 활동 외에도 전국의 다양한 문화재를 가꾸고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께 받은 사랑 사회에 보답할 것” 교육·복지 등 다양한 활동 추진

현대차 정몽구 재단(舊 해비치사회공헌위원회)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기업을 경영해 오면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했던 생각을 실천에 옮겨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 환경보전 사업, 교육 사업 등을 실시할 목적으로 2007년 11월 설립됐다.

재단 기금은 정 회장이 직접 사재(私財)를 출연한 것으로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시민사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용방법과 운용의 전권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 교환과 협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화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것은 많지만 재단에선 특히 ‘교육과 문화’를 중요한 요소라 생각해 왔다.

이에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이 문화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문화예술의 보급 확산과 장학 사업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밝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 회장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청년 일자리 ▲공공의료 ▲사회복지 등 5대 중점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런 활동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12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 플랜’이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지원’, 농산어촌 초등학교의 학습지원을 하는 ‘온드림스쿨’, 소아암·백혈병·심장질환·희귀질환 등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치료와 사회적응을 돕는 ‘온드림 어린이 희망의료’, 의료소외층의 치료 지원을 위한 ‘희망진료센터’ 운영,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위한 ‘H-온드림 오디션’ 및 웰

로우’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이겨내며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 가족들을 위한 ‘온드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 미래 인재들에게는 꿈을,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이 포함돼 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청년사회기업가 육성지원 협약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계적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H-온드림 오디션’

‘HYUNDAI’에 담긴 사회공헌의 의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이 한 번의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재단의 사업수행 방향을 그룹의 영문 이니셜 ‘HYUNDAI’의 7글자 안에 담아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appy on dream’을 나타내는 ‘H’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도움의 손길이 그들이 처한 고통과 좌절, 슬픔이란 짐을 덜고 그 자리에 꿈, 희망, 용기를 채워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이란 아름다운 생각을 바탕으로 계획되고 실행되는 행복한 마음가짐을 표현했다.

‘Y’는 ‘Young on dream’을 의미한다.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힘든 순간을 맞게 된다.

‘Y’는 이런 뜻밖의 좋지 못한 상황에서 그간 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도록 주저앉거나 포기하기 보단 패기와 열정으로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들을 완성할 수 있는 뜨거운 젊음을 상징한다.

사회공헌활동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선 안 된다. 이는 머칠을 굶은 사람에게 “내가 빵을 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똑같다.

배고픈 이에겐 빵을 준다는 말보단 빵을 손에 쥐어 쥐 당장의 허기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U’는 ‘Useful on dream’ 즉, 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이 함께 하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등록금이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이 모두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이 되는 것이다.

‘N’은 ‘New on dream’으로 이것은 ‘새로움’이다. 이는 재단이 매년 같은 프로그램의 사회공헌활동을 할 때에도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성이나 내용, 혜택을 받는 계층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이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 아래 항상 사회공헌 활동에 새로움을 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러 기업들과 재단들이 저마다 사회공헌을 외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남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힘찬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 역동적이란 의미를 가진 Dynamic을 재단의 사업수행 방향으로 정해 ‘Dynamic on dream’이라고 명명했다.

이 ‘D’는 재단이 어느 특정 분야의 인원과 재능만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연령, 분야 등 함께하는 사람들의 협력과 재능 기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새롭고 역동적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은 우리 사회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그 영역을 넓혀갔다. 이런 재단의 활동은 우리 사회와 인류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장이 됨과 동시에 놀라움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A’ 즉, ‘Amazing on dream’인 것이다. 앞으로도 본 재단은 우리 사회에 놀라운 행복을 주기 위해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준비 중이다.

마지막 ‘I’는 혁신이다. ‘Innovative on dream’으로 표방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사업수행 방향 ‘I’는 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이 우리 사회에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이 재단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장 하게 한다는 점에서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 및 우수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장학사업

단계별 특화 인재양성 온드림스쿨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중 ‘온드림스쿨’로 대표되는 인재양성 사업은 ‘이루어 가는 꿈(on making the dream)’, ‘따뜻한 꿈을 만들다’란 의미를 담고 있는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초·중·고·대학생 등 단계별로 특화된 맞춤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장학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통해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지향한다.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지원 대상이 폭넓게 설정돼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의 꿈을 버리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소년소녀 가정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매 학기 6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은 우수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과 학습지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온드림스쿨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에 해당하는 장학금(50만원)을 지원한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은 지원 된다. 이들에게 재단이 매 학기 지원하는 장학금은 중학생의 경우 40만원이며 고등학생은 60만원이다. 소년소녀 가정의 중고등학생도 초등학생들과 같은 방법으로 재단 장학금이 지급 된다.

재단 장학 사업은 대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공 학문에 따라 기초과학 전공, 문화예술 전공 대학생과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가정,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 북한 이탈 대학생 등으로 구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공 학문에 의한 구분의 경우 매월 20만원, 교통사고 피해나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인 대학생들에겐 매 학기 4년제 200만원, 전문대 1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북한 이탈 대학생에겐 매월 30만원씩 장학금이 전달되고 있다.

온드림스쿨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예술, 체육, 학습 등 다양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재단은 지역 공동체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그들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

현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실, 학습교실, 체육교실, 환경교실, 비전교실, 특활교실의 6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교육지원은 정규 학교 수업을 제외하면 다양한 교

육 프로그램과 학습 서비스를 접하기 힘든 농산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학생들이 새로운 체험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고 흥미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는 점도 교육지원에 재단이 많은 신경을 써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학자금 대출도 준비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가정 학생에 장학금 지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서울적십자병원, 서울대병원 등과 희망진료센터 업무 협약을 통해 의료소외층이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단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중 공공의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아암, 백혈병, 심장병, 희귀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치료는 물론, 그들이 향후 건강한 생활인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온드림 어린이 희망의료사업’을 펼치고 있다.



저소득층 소아암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준 온드림 힐링캠프

서울대병원, 연세대 의료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의 대학병원과 함께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대한심장학회와 심장학연구재단과 공동으로 심장질환 어린이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료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과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의 자녀 중 선정하며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지원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의료 혜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도 이어진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서울직십자병원, 서울대병원 등과 희망진료센터 업무 협약을 통해 의료소외층이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직십자병원 내에 설립돼 운영 중인 ‘희망진료센터’는 산부인과, 내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등 4개 진료 과목에 대해 진료를 하고 있다.

각 지역 보건(지)소, 다문화가정 관계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각 지역 적십자사 등에서 진료가 필요한 의료 소외계층 환자를 의뢰하면 대상자에 대해 외래 진료와 입원 진료 등의 2차 진료를 제공한다.

4개 과목 외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서울직십자병원, 서울대병원과의 협진 및 연계 진료로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현대차그룹과 매년 전국 사회적 기업가 육성센터의 320여 청년창업팀 등을 대상으로 ‘H-온드림 오디션’을 개최해 지난 5년간 150개 팀을 선발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현재까지 1500개의 청년 일자리도 창출해 냈다.

창업 후에는 멘토 기업 및 청년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H-온드림 펠로’를 사회 혁신을 이끄는 청년 리더 명예조직으로 육성해 현대차 미소금융재단의 추가 자금 대출, 현대차그룹 컨설팅 네트워크와 현대차 미소금융재단 내 미소학습원 등의 각종 컨설팅도 마련된다.

재단의 사회복지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따스한 온기를 전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새터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의료 부문에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와 ‘하나원’ 치과와 정신과 의료진을 파견해 원내 진료를 펼쳐 탈북 과정에서 받은 치명적 스트레스로 인한 치아 및 정신 손

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업교육을 위해선 새터민의 전문 직업훈련에 대한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탈북청소년 대안 학교인 ‘하늘꿈 학교’의 건축을 지원해 인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취약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통합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다문화가족들의 조기 정착과 다문화 자녀의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서울 온드림 다문화가족 교육센터’도 운영 중이다.

또 재단과 병원의 협력으로 인도 첸나이 지역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사회공헌 재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온드림 첸나이 의료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북한 이탈자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도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마지막 핵심 사업은 문화이다.

현재 재단은 문화와 관련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두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첫 번째 사업은 ‘나눔문화 서포터즈’로 나눔문화의 실천으로 우리 이웃과 사회, 더 나아가 세계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프로보노 활동이다. 이는 재능을 가진 이들이 모여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기획과 활동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밝히고 있다. 문화나눔의 두 번째는 ‘문화사랑 바우처’이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꿈과 희망을 자기주도적으로 키워갈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단이 선정하고 추천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을 신청하고 참관 후 소감을 서로 나누는 활동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인류행복과 사회발전을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재단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남들보다 먼저 그 원인을 찾아내고 함께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메시지와 흐름을 이끌어 가는 재단의 공익사업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갈 예정이다. 

이종환 삼영화학 회장 1조 조성

“노벨상 버금가는 장학상 제정”



1조원 규모의 재단 기금을 조성해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의 인재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싶다는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처럼 사재를 출연해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을 설립한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회장이 최근 현재 8000억원 규모인 재단 기금을 3년 안에 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에

지하 4층, 지상 27층 규모의 복합건물을 지어 기부함으로써 재단의 기금 증대에 활용하고 오는 2015년까지 남은 재산 일부를 추가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2000년 기금 10억원으로 시작한 관정재단은 2년 뒤 기금을 3000억원으로 늘려 지금의 재단 기금 규모를 이뤘다.

이 회장은 기금이 조성되면 노벨상에 버금가는 ‘관정과학상’을 만들어 자연과학, 공학,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아시아 학자를 선발해 매년 시상할 예정이다.

이에 관정재단의 새 목표를 이루는 데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쏟아 관정 장학생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꿈을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관정재단은 우수 이공계 학생들을 선발해 국내 대학은 연간 1000만원, 해외 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연간 3만~5만5000달러씩 최고 10년간 지급한다. 지금까지 47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관정재단은 장학 사업 외에도 마산고등학교, 경남대학교, 경남 의령고등학교 등에 교육지원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 사회봉사단 창단

“기업 사회공헌활동 새바람 다짐”

효성그룹이 창립 46주년을 맞아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 사회공헌활동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본사와 지방사업장에서 사내 동아리 형태로 운영 중인 기존 7개의 봉사팀을 하나로 묶어 전 그룹을 아우르는 ‘효성 사회봉사단’을 창단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새바람을 일으켜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사회공헌활동에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

침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사회 기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그룹에서도 더욱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투자를 확대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도 더욱 노력해 함께 발전하는 기업문화를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앞으로 봉사단은 ‘효성 컬처시리즈’를 진행해 발달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을 전개해 예술적 재능 발견과 재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교육과 연계한 새로운 사회공헌활동도 준비 중이다. 기존 설립된 사회적 기업 9곳과 창업을 원하는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등 경영 노하우 전수를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준다. 경남 지역은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지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지역사회 밀착형 기업 상생과 1사 1산, 1사 1하천, 1사 1촌 등의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 중이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효성그룹은 기업, 시민사회, 정부와 협조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적인 모델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寄附는 GIVE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보다 어렵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다. ‘수익에는 주머니가 없다’ 는 말도 있다.
이는 부(富)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나 빈자 모두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공수래공수거’란 의미다. 부는 나눌 때 배(倍)가
된다는 속 뜻을 현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사랑의
열매로 유명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화문광장에 온도탑을 설치하고 모금
사업을 벌인다. 공동모금회 안에는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특별한 단체가 있다. 한마디로 부를 나누는 자들의 모임이다.
미국에는 ‘기빙 플레지(Giving Pledge)’라는 자선 단체가 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생전이나 사후에 기부하기로 약정한 부자들의 모임이다.
빌게이츠 부부와 워런 버핏이 만들었다. 부자는 부를 나누는 자의
준말임을 이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들이 있어 인류의 인간애가 풍요롭다.
노블리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는 이들 앞에 그저 거창한 단어일
뿐이다. 존경받는 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와 기빙 플레지를 소개한다.

“우리 나눔이 행복 대한민국 100년 약속” 1억 이상 기부자 모임…최신원 SKC 회장도 참여

‘아너 소사이어티’ (Honor Society)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만든 한국형 ‘기빙 플레지’다.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실천하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이다. 지난달 27일 전국에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여의도 63빌딩 라벤다 로즈마리홀에 모였다. 창립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총회 자리인 동시에 기부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날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원들의 나눔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100년을 약속한다’는 의미를 되새기고 지난 5년간의 회원들 이름을 타임캡슐에 넣어 영구 보관하는 행사를 가졌다. 타임캡슐은 서울시 중구 정동에 소재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의 전당에 영구 보관된다.

이후 창립 10주년이 되는 2017년 개봉해 5년간의 추가 회원명단을 넣을 예정이다. 올해의 아너 대상 시상에는 김영덕 하나세무회계컨설팅 대표와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이 선정됐다. 공로패는 아너 1호 가입자인 남한봉 유니스코리아 회장, 감사패는 조선일보가 수상했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대표로는 최신원 SKC 회장이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선정됐다.

최 회장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함께 건강한 지역 사회와 밝은 미래를 위해 나눔의 보람과 기쁨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나눔, 5년의 성장, 100년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모금회 이동진 회장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나눔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국내의 척박한 개인고액 기부문화 환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눔전도사가 되어 준 회원들에게 존경심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모금회 회장이면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최신원 SKC 회장은 이날 세계고액기부자 모임의 한국 대표로 추대됐다.

1887년 설립된 세계공동모금회는 전 세계 41개국 1800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면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대표인 최신원 SKC 회장이 수원시 정자동 ‘꿈을 키우는 집’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최 회장은 17억원 이상을 기부해 세계고액기부자 모임의 한국 대표로 추대됐다.

개 모금 기관이 가입한 단체다.

기업가들의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리더십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10만달러 이상 기부한 기업인 중 8명을 선정해 위원회를 만들었다.

미국 아파트 개발·관리 업체인 웨스턴내셔널그룹의 마이클 하이드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최 회장은 이 8명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 위원이다.

최 회장은 꾸준한 기부로 2008년 대기업 회장으로는 처음 아너 소사이어티 멤버로 가입했다. 2009년에는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 아시아판이 선정한기부 영웅’으로 뽑히기도 했다.

아너 소사이어티 현황

2007년 12월에 만들어진 아너 소사이어티에는 현재까지 남한봉 유니스코리아 회장부터 문은수 문치과병원 대표병원장까지 175명이 가입했다.

이들 중 151명이 실명 회원이고, 24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 회원이다.

74명은 약정금액을 완납했고 101명은 약정회원으로 현재까지의 누적 기부액수(약정금액 포함)는 195억원이다.

2008년 6명을 시작으로 2009년 11명, 2010년 31명,

2011년 54명, 2012년 현재 73명이 가입하는 등 해마다 회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월에만 32명이 가입해 현재 추세라면 12월에 200호 회원 가입과 누적 기부액 200억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 가입이 연말에 몰리는 이유는 나눔과 자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높고 고액 소득자들이 결산을 앞두고 기부를 결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중앙회 포함)이 52명, 경남 21명, 부산 17명, 울산 15명, 인천 14명, 경기 12명, 경북 7명, 대구·전남 각 6명, 광주 5명, 충남·북 각 4명, 대전·강원·제주 각 3명, 전북이 2명으로 수도권과 영남권 등 대도시에 몰려있다.

2012년에는 그동안 회원이 한명도 없었던 충남(4명)과 전북(2명)에서도 회원이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직업별로는 112명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의료업 21명, 일반 개인(퇴직자) 12명,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7명, 사회단체 임원 7명, 자영업 5명, 특수직종 4명, 공무원 3명, 언론방송인 2명, 학생 1명 등이다. 최근에는 직업도 농부, 감독, 마주, 여행가, 영화인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최연소 가입자는 류원정 회원으로 1984년생이고 최고령 회원은 헤인과 구재서 회원으로 1929년생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가입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류원정 회원은 아버지 류시문 회원과 함께 가입해 부자 아니 소사이터티 회원이다. 변성자·김정원 회원은 모녀지간이며 이덕우·장선오 회원은 부부 회원이다.

미국 공동모금회에서는 1984년부터 ‘토크빌 소사이터티’를 운영, 현재 빌게이츠를 비롯해 약 2만 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눈에 띄는 아니 소사이터티 회원들. 상단 좌측부터 홍명보 홍명보장학재단 이사장, 방송인 현영,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박조신 아름방송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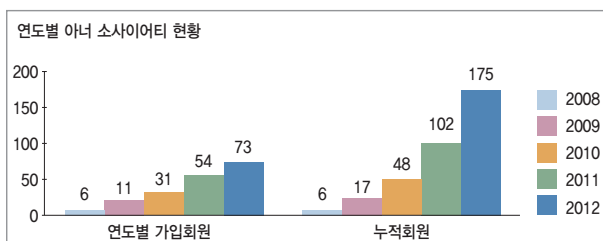
눈에 익은 가입자

최신원 SKC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선친은故 최종건 SK창업회장이고 숙부는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故 최종현 명예회장이다.

그는 2008년 12월 가입해 경기도 모금회장을 맡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2 월드컵 영웅 홍명보 홍명보장학재단 이사장 역시 우리 눈에 친숙하다.

그는 재단을 통해 자선 축구대회를 열어 어린이를 돕고 있다. 출산으로 한동안 뜸하다가 최근 방송에 복귀한 방송인 현영 씨도 2009년 12월부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말 모금회가 주관한 ‘소아암 전문지원센터 건립 협약식’에 참석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은 2008년 12월 부산에서는 최초로 아니 회원이 됐다. 자신의 국민연금도 매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있다. 2011년에는 사재를 포함해 330억원을 출연해 ‘세정나눔재단’을 설립해 자선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조신 아름방송 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착한가게 캠페인’을 펼치면서 성금을 모아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현황 (2012. 11. 20 기준)

기부자명(생년)	소속 및 직책	기부자명(생년)	소속 및 직책	기부자명(생년)	소속 및 직책
남한봉(41년)	유닉스코리아 회장	박병출(62년)	태현게이텍 대표	정연옥(62년)	경남에너지 대표이사
류시문(48년)	한맥도시개발 회장	이일수(71년)	트루컴 대표	이순학(46년)	통일건설 대표이사
정석태(56년)	진성토건 회장	김진희(73년)	웅전놀이랜드 대표	박영우(55년)	대유에이텍 대표
우재혁(43년)	경북타일 대표	김재경(47년)	인탑스 회장	백 석(65년)	백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순호(46년)	세정그룹 회장	장선오(37년)	덕양 회장 부인	성우중(54년)	도원이엔씨
최신원(52년)	SKC 회장/경기모금회 회장	이덕우(32년)	덕양 회장	박광재(56년)	유익이엔씨 대표이사
박조신(45년)	아름방송 회장	이정순(43년)	제이테크 대표	강희설(37년)	개 인
박순웅(54년)	인천폐차사업소 회장	강상대(53년)	미래여성병원 원장	송영수(48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홍명보(69년)	홍명보장학재단 이사장	김해곤(57년)	김안과 원장	김경배(56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이우중(48년)	셀커코리아 회장	김정리(40년)	개인	오상근(47년)	동영스틸 대표
원영식(61년)	오션인더블유 대표	장미옥(65년)	아이탑에셋 대표	백승희(66년)	사랑모이통증의학과 원장
현 영(76년)	방송인	유봉기(47년)	삼보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일석(61년)	진주EXR 대표
황규철(53년)	경림종합건설 회장	한영수(49년)	솔로몬테크놀로지 대표	정성우(51년)	지맥스 대표
유수복(54년)	대양종합건설 회장	김영덕(65년)	하나세무회계컨설팅 대표	박상팔	스파렉스 대표
이금식(40년)	경암문화장학재단 이사장	김평웅(44년)	전 삼호산업 대표	박양춘(58년)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사장
류성열(53년)	유성 회장	심재선(56년)	공성운수 대표	이동한(51년)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
오 청(66년)	신선설농탕 대표	조봉순(45년)	개인	김명수(70년)	드라마치과 원장
박점식(55년)	천지세무법인 회장	이대공(41년)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경북지회 회장	예태환(55년)	라인테크 대표
이찬승(49년)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이재호(48년)	덕일토건 대표	배준식(53년)	농부 (인삼농사)
장복영(48년)	백양산업 대표	조영제(58년)	입석전기 대표	강문석	보템 대표
박홍순(36년)	범진캐터링 대표	김종민(65년)	호텔리츠컨벤션웨딩 대표	박봉준(57년)	구암문구 대표
송경애(61년)	BT&I 대표	김성주(62년)	김성주치과 원장	노동일(53년)	민코코리아 대표
이순철(62년)	진영ETS 대표	박종옥(50년)	서원컴프레스 대표	이응훈(62년)	인터넷신문 행복인 발행인
김일섭(46년)	한국경영경영연구원 원장	정우준(68년)	순천 예치과 원장	박달흙(59년)	자영업
김영갑(56년)	법무법인 서광 대표변호사	정영식(60년)	마주	김상열(61년)	(주)호반건설 회장, 광주지회장
김영관(35년)	영백염전 회장	채종성(61년)	CK치과병원 원장	이정(59년)	전이수산 대표
최충경(46년)	경남스틸 대표	김진홍(52년)	동우개발 회장	김원길(61년)	안토니(주) 대표
류종춘(46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회장	장덕홍(65년)	신진씨엔테크 대표	안병렬(57년)	명보개발 대표
김백영(56년)	법무법인 삼덕 대표변호사	조성호(61년)	신진파워텍 대표	이상춘(57년)	(주)에스씨엘 대표
최병부(44년)	삼정E&W 대표	문종술(37년)	변호사	故 노경원	개인
김일곤(45년)	대원홀딩스 회장	여영진(41년)	개인	신홍식	사단법인 아트빌리지 대표
이상춘(69년)	현대강업 대표	전태준(42년)	前 대전공업 대표	김은규(65년)	염산제일외관 대표
박상호(54년)	신태양건설 회장	이도명(60년)	두손건설 대표	김진구(56년)	(주)지스콧 회장
황세희(63년)	보승코퍼레이션 대표	조만호(47년)	화진 대표	윤수명(58년)	전국24시콜센터 대표
한철수(52년)	고려철강 대표	박상은(49년) · 김경희	박상은 국회의원 부부	이영식(56년)	ERA Korea Group 회장
이재준(68년)	에이라인 교정전문치과원장	김상수(52년)	한림건설 회장	변성자(56년)	미도치과 이사장
혜 인(29년)	개인	이훈구(50년)	해성당한약방 대표	김정원(83년)	미도치과 원장
이수근(48년)	온누리대학약국 대표	최영수(68년)	삼두종합기술 대표이사	이길수(44년)	(주)원일인터내쇼날 회장
하성식(52년)	경상남도 함안군수	고 권수(49년)	덕산종합건설 회장	김희상(59년)	Leading Digital 대표/재외동포
이충희(55년)	에트로 대표	전영채(44년)	삼부토건 상임고문	양인준(58년)	진영마트 회장
한동호(55년)	아름다운치과의원 원장	정무순(38년)	사회복지법인 청아복지원 대표이사	서병직(56년)	(주)이더블유알 대표
최병철(60년)	이우 회장	진재근(62년)	대상산업 대표	김상태(53년)	평화큰나무복지재단 이사장
오춘길(44년)	현대정밀 대표	박성진(63년)	에스제이랜거 대표이사	이부형(72년)	(주)MP 대표이사
구재서(29년)	전 영화인	최영돈(53년)	여행가	故김은희	前 담양교육지원청 행정5급
정영근(57년)	중앙금속 대표	김경수(63년)	자산어보 대표	이승호	경북한의원 원장
강대청(47년)	유니온 회장	안병근(43년)	안세 대표이사	손광락	손광락한의원 원장
윤영선(41년)	아이윤 안과 원장	심장식(53년)	(주)선광	송해섭	경주버튼이치과 원장
안진공(63년)	김해미치과 원장	이영건(59년)	필동주유소 대표	정갑윤(50년)	現 국회의원(19대)
故 서근원(69년)	개인	주기영(71년)	대박물산 대표	문은수	문치과병원 대표병원장
류원정(84년)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생	이동건(38년)	부방그룹 회장	익명회원	24명
이연배(46년)	오토젠대표이사/서울지회 회장	최창걸(41년)	고려아연 명예회장	합계	175명

재산 절반 내고 “기부는 특권이자 행복” 빌 게이츠 만들고 주커 버그 등 92명 참여



‘기빙 플레지’를 창립한 빌&멜린다 게이츠 부부와 워런 버핏(맨 왼쪽)

2010년 6월 미국의 대표적 부호 빌 게이츠 부부와 워런 버핏이 세계 기부 문화를 바꿔 놓는 신기원적인 운동을 들고 나왔다. 바로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다. 부자들이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서약 운동이다.

기빙 플레지는 창립자들이 워낙 ‘슈퍼리치’라서 가입자들 역시 현재까지 억만·백만장자들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약정한 기금은 한 해 우리나라 예산 규모인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마어마한 부를 포기한 이들에게 기부는 특권이자 행복이다.

기빙 플레지 운동을 통해 기부자들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를 위해 써달라고 ‘기부 서약’해야 한다. 서약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서약자의 도덕적 책임을 믿는 것이다. 서약자들은 자신의 결정 과정과 기부 이유 등을 담은 편지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읽은 이들에게 기부문화의 감동을 전해주기 충분하다. 또 이들은 일 년에 한 차례 만나 기부문화를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지난 9월 새 식구 11명이 합류했다. 인텔의 공동창업자, 세계적 주류회사의 전 회장,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주, 세계적 보험회사 회장, 잘나가는 케이블TV 창업자 등이 재산 절반을 기꺼이 떼어 냈다. 기빙 플레지에는 이미 CNN 창립자인 테드 터너, 세계적 경제통신사를 소유한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오라클의 공동창

업자인 ‘래리 엘리슨’, 영화감독 ‘조지 루카스’ 등 쟁쟁한 이름이 함께하고 있다. 현재 서약자는 개인과 가족(대부분 부부) 등 모두 92명이다.

이들이 내놓은 재산은 미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꾸는 재원으로 사용된다. 특히 가족이나 개인들에게 발생하는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미국 내 부자가족이나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전 세계에 이 같은 운동이 확산되는 것이다.

서약자들은 28살부터 97까지 세대를 초월해 참여하고 있다. 또 미국 내 23개 주와 워싱턴DC에 사는 기부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서약 내용은 교육, 보건, 의료 연구, 사회 복지, 환경 등 매우 다양하다.

이 단체 설립자 빌 게이츠는 세 자녀에게 1000만 달러만 물려주기로 하고 재산의 99%를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해 내놓았다. 자식에게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은 ‘기부’임을 실천했다. 공동 설립자인 워런 버핏 역시 전 재산의 85%를 기부 서약했다. 



기빙 플레지에 기부를 서약한 미국의 대표적인 억만장자들. 상단 좌측부터 래리 엘리슨, 마이클 블룸버그, 폴 앨런, 칼 아이칸, 로날드 펠레만, 제임스 시몬스(포브스誌 자산 순위)

■ 기빙 플레지 서약자 명단

이름	직업	이름	직업
Bill and Karen Ackman	헤지펀드 PSCM CEO 부부	Alfred E. Mann	바이오 분야 사업가
Paul G. Allen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Joe and Rika Mansueto	모닝스타 CEO(창업주) 부부
Laura and John Arnold	헤지펀드 매니저 부부	Bernie and Billi Marcus	홈포 공동창업자
Nicolas Berggruen	베르그루엔 홀딩스 이사장	Red and Charline McCombs	RMAG 창업자
Manoj Bhargava	5-Hour에너지 창업자	Michael and Lori Milken	금융사업가 부부
Steve Bing	영화제작자	George P. Mitchell	부동산 개발자
Arthur M. Blank	홈포 공동창업자	Thomas S. Monaghan	도미노피자 창업자
Michael R. Bloomberg	블룸버그통신 창업자	Gordon and Betty Moore	인텔 공동창업자
Eli and Edythe Broad	미술수집가	Tashia and John Morgridge	시스코시스템 회장 부부
Charles R. Bronfman	전 씨그램 회장	Michael Moritz and Harriet Heyman	벤처투자자 부부 · 전 구글 이사
Edgar M. Bronfman	전 씨그램 CEO	Dustin Moskowitz and Cari Tuna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Warren Buffett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Elon Musk	스페이스엑스 · 페이팔 창업자
Jean and Steve Case	AOL 공동창업자 부부	Jonathan M. Nelson	Providence Equity Partners CEO
Lee and Toby Cooperman	오메가투자자문사 CEO 부부	Bernard and Barbro Osher	사업가 · 자선사업가 부부
Joe Craft	기업가 · 변호사	Ronald O. Perelman	투자사업가
Joyce and Bill Cummings	부동산업자 부부	Jorge M. and Darlene Perez	부동산 사업가 · 작가 부부
Ray and Barbara Dalio	헤지펀드 매니저 부부	Peter G. Peterson	투자은행가 · 전 리만브러더스 회장
John Paul DeJoria	헤어사롱 폴 마텔 창업자	T. Boone Pickens	헤지펀드 매니저
Barry Diller and Diane von Furstenberg	사업가 · 디자이너 부부	Julian H. Robertson, Jr.	헤지펀드 매니저
Ann and John Doerr	벤처투자자	David Rockefeller	은행가
Glenn and Eva Dubin	하이브리지자산운용 CEO 부부	Edward W. and Deedie Potter Rose	투자사업가 부부
Larry Ellison	오라클 창업자	David M. Rubenstein	칼라일그룹 공동창업자
Charles F. Feeney	DFS Group 창업자	John and Ginger Sall	소프트웨어개발자 부부
Ted Forstmann (亡)	IMG 회장 부부	Henry and Susan Samuelli	브로드컴 공동창업자 부부
Phillip and Patricia Frost	전 테바제약 이사회위원장 부부	Herb and Marion(亡) Sandler	Golden West Financial 공동 CEO 부부
Bill and Melinda Gates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 부부	Denny Sanford	유나이티드 내셔널 CEO
Dan and Jennifer Gilbert	클리브랜드 구단주	Vicki and Roger Sant	서밋펀드 창설자 부부
David and Barbara Green	프랜차이즈 하비로비 창업자 부부	Lynn Schusterman Walter Scott, Jr.	자선사업가
Jeff and Mei Sze Greene	부동산사업가 부부	Tom and Cindy Secunda	블룸버그 공동창업자 부부
Harold and Sue Ann Hamm	석유 사업가	Annette and Harold Simmons	사업가 · M&A전문가 부부
Reed Hastings and Patty Quillin	넷플릭스 창업자 부부	Jim and Marilyn Simons	헤지펀드 매니저 부부
Lyda Hill	사업가	Jeff Skoll	이베이 창업자
Barron Hilton	힐튼 호텔 창업자 아들	John A. and Susan Sobrato, John Michael Sobrato	부동산개발업자 가족
Jon and Karen Huntsman	사업가 · 한츠만사 창업주	Michele and Patrick Soon-Shiong	의사출신 사업가 부부
Carl Icahn	투자사업가	Ted and Vada Stanley	MBI 회장
Joan and Irwin Jacobs	퀄컴 공동창업자	Tom Steyer and Kat Taylor	은행가 · 자산운용가 부부
George B. Kaiser	BOK Financial 회장	Jim and Virginia Stowers	아메리칸센츄리투자 창업자 부부
Vinod and Neeru Khosla	벤처캐피탈리스트 부부	Claire and Leonard Tow	센츄리커뮤니케이션 창업자 부부
Sidney Kimmel	영화제작자	Ted Turner	CNN 창업자
Rich and Nancy Kinder	킨더모건 회장 부부	Albert Lee Ueltschi(亡)	FlightSafety International 창업자
Elaine and Ken Langone	벤처캐피탈리스트 부부	Dr. Ramesh and Kathleen Wadhwani	Symphony Technology 그룹 창업자
Gerry and Marguerite Lenfest	미디어 기업가 부부	Sanford and Joan Weill	은행가 · 전 씨티은행 회장
Peter B. Lewis	Progressive Insurance 창업자	Shelby White	디자인스피레이션 창업자
Lorry I. Lokey	비즈니스 와이어 창업자	Charles Zegar and Merryl Snow Zegar	블룸버그 공동창업자 부부
George Lucas	영화감독 · 제작자	Mark Zuckerberg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Duncan and Nancy MacMillan	블룸버그 공동창업자	합계	92명

분권형 경영구조 ‘따로 또 같이 3.0’ 운영

최태원 회장 “계열사 중심 성장 플랫폼 만들라”

SK가 그룹 경영구조를 ‘분권형’으로 개편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SK와 최태원 그룹 회장의 직접적 역할을 축소, 계열사들의 자율적 참여조직으로 그룹을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배임·횡령혐의 재판과 관계있다는 재계 분석이다. 오히려 일가의 경영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제스처란 의미다.

최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SK 경영진 30여명은 서울 광장동 아카디아 연수원에서 ‘따로 또 같이 3.0’을 통한 안정과 성장’을 주제로 ‘2012년 CEO 세미나’를 열었다. SK 경영진은 이번 CEO 세미나에서 글로벌 경제침체 장기화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면서, 각 계열사 중심의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그룹 경영 시스템을 진화·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태원 회장은 각 사 중심의 수평적 그룹 운영체계를 통해 3차 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계열사 중심의 성장 플랫폼을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K CEO들은 지난 9월부터 자체적으로 사전 토론을 거쳐 왔고, 이번 세



SK그룹이 분권형 경영구조로 개편한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이 배임·횡령혐의로 4년형을 구형 받는 등 대외 업무에 차질이 전망된다. 최 회장이 지난 10월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국회의사당에서 나지브 라자크(오른쪽) 총리를 만나 에너지와 정보통신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미나에서 이를 공유해 장단점과 보충해야 할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 그룹 경영체계를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로 혁신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따로 또 같이 3.0’으로 규정했다.

각 사 CEO는 이사회와 자율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운영 체계의 내용을 구체화해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SK는 ‘따로 또 같이 3.0’을 통해 지주회사가 그룹 및 각 사의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각 사와 협력해 운영해 오던 업무는 대폭 축소되고 지주회사는 자체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SK는 2002년 제주선언을 통해 각 사별 생존 경영 중심의 ‘따로 또 같이 1.0’을 시작한 뒤,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출범과 함께 브랜드와

기업문화를 공유하면서 각 사별 생존력을 높여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 ‘따로 또 같이’ 경영을 해 오고 있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수백억 원 대 회삿돈을 빼돌려 배임·횡령 혐의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5년을 구형받았다. 이번 검찰의 구형으로 SK그룹은 재계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작년 한해 140일 동안 해외 사업현장을 누빈 선례를 볼 때 해외진출과 신사업 등 차질이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SK그룹에서 최 회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이번 검찰의 구형은 어떤 방식으로든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계열사에 '높은 완성도'로 시장선도 주문 구본무 회장 “어려울 때 진짜 실력 드러나”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어려울 때 진짜 실력 드러난다”며 시장 선도 기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구 회장은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된 업적보고회에서 CEO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번 업적보고회에서 계열사 CEO 및 사업본부장들과 올해 사업성과 및 시장선도 관점에서의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글로벌 시장선도 기업은 경기 침체기에도 수익성이 탄탄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구 회장은 시장선도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 △상품·서비스 완성도 제고 △과감한 적기 투자 △미래 승부기술 발굴 △핵심인재 확보 등 4가지 핵심 실천 사항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는 “‘여러개’ 또는 ‘최소’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객 입장에서 완성도 높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상품·서비스 완성도 제고’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완성도 높은 품질 확보에 필요한 투자가나 기술개발은 실기하는 일 없이 일등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적기 투자로 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혁신활동 공유 대회인 '2012 LG 혁신한마당'에서 구본무 회장(사진 오른쪽)이 참가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투자 우선순위를 OLED TV에 두고 시장선도 지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제품개발에만 치중해 미래 상품과 핵심기술 확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전기자동차 전지 사업과 관련 해선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하면서 한번 충전하면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고용량·고출력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구 회장은 “시장선도를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신사업 분야에서는 리더급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해 빠르게 사업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R&D인력은 질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를 과감하게 확보해 기술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당부도 빠트리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구 회장은 지난 9월 임원

세미나를 통해 ‘시장선도’를 위해 해야 할 일로 △고객가치 측면에서 탁월한 시장선도 상품 출시 △시장선도 기업에 걸맞은 보상경쟁력 확보 △고객가치에 몰입하는 LG만의 일하는 방식 정착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LG 관계자는 “이번 업적보고회는 그 어느 때 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는 구 회장이 지난 9월 임원세미나에서 시장선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를 개별 사업을 놓고 CEO 및 사업본부장들에게 다시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회장은 지난달 1일 열린 ‘LG글로벌챌린저’ 시상식에도 “‘세계 최고’나 ‘일등’이라는 호칭은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할 때 비로소 자격이 생긴다”며 역경 속에서의 실력이 진짜라는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동남아시아 이해 높이고 사업 확대 당부

허창수 회장 “성장잠재력 · 지리적 이점 많아”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지난달 4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장단회의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진출로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중국 칭다오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에서 열리는 사장단회의에서 허 회장은 “세계 경제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는 부존자원이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도 있어 우리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GS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및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도 적극 진출해 시장을 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GS 사장단들은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전문가로부터 싱가포르 시장의 경제성장 및 주력산업의 변천과정, 향후 성장전략 등에 대한 소개를 받고 GS의 주력 산업인 에너지, 유통,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진출 방안 및 미래성장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GS는 에너지 분야에서 원유수입 및 석유제품 수출 다변화, 현지 유향유 완제품 생산역량 강화, 해외 유전개발사업 본격화,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처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허창수 GS 회장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에 위치한 GS글로벌 자회사 디케이티(DKT) 용잠공장을 둘러보는 모습.

나가기로 했다.

또 유통분야에서는 소매 유통시장 신규 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에 진출한 홈쇼핑 사업을 본격화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재 트레이딩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분야에서는 플랜트·발전·환경사업 등 공종을 다각화하고, 인프라·주택 등 개발사업 진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 회장은 또 싱가포르 시장에서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의 안정적 공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GS칼텍스·GS글로벌 싱가포르 법인, GS건설이 수주한 NTF병원 신축공사 현장 등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GS 관계자는 “허창수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 개척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계열사의 해외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격려하고 있

으며 이번 싱가포르 사장단회의 및 현장방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허 회장은 GS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노력이 기본이 돼야한다는 믿음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현장도 적극 챙기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 9월 중국 쑤저우(蘇州)시 GS칼텍스 복합수지 제2공장과 GS글로벌 스틸서비스센터, 지난 6월 충남 부곡산업단지 GS EPS 3호기 발전시설, 4월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방문하는 등 국내외 주요 계열사들의 연구시설, 생산·판매 및 건설현장 등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허 회장은 10월 25일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에 위치한 GS글로벌 자회사 디케이티(DKT) 용잠공장을 방문해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효자 美 ‘밥캣’ 찍고 미얀마 현장경영 박용만 회장 “글로벌시장 신성장 사업이 관건”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밥캣이 올해 턴어라운드(실적 개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밥캣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미국 건설기계 자회사로 그동안 실적이 나빠 그룹의 애물단지처럼 여겨졌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지난달 1일 미국 뉴욕 한인커뮤니티재단(KACF)이 맨해튼 타임스퀘어 메리어트 호텔에서 주최한 KACF 10주년 연례 만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KACF로부터 ‘자랑스러운 경영인상’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올해 밥캣이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등 완전히 턴어라운드할 것”이라며 “밥캣이 없었더라면 올해 두산의 전체적인 실적이 실망스러울 뻔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올해 대형 중장비 수요가 많은 중국 등 신흥시장이 침체된 반면 소형 중장비 수요가 많은 미국 건설시장이 회복되면서 이 분야 주력인 밥캣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다”며 “밥캣이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저성장 기조가 3~4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사업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며 정치적인 영향과 글로벌 신 성장 사업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이어 해외 신규시장 개

척 및 아세안 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현장 경영을 펼쳤다. 박 회장은 지난달 20~23일 박정원 두산 지주부문 회장 및 주요 계열사의 마케팅, 지역 담당 임원들과 함께 미얀마 수도 양곤을 방문해 현지 사회상을 체험하고 전반적 산업 환경과 인프라지원사업(ISB) 시장을 살펴봤다.

박 회장 일행은 미얀마 최대 철강회사인 아시아 메탈과 주요 기반시설인 필라와(Thilawa) 항구 등을 둘러보고 두산의 주력인 발전과 건설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을 살폈다.

또 사회 분위기 파악을 위해 현지인 주거지와 학교, 전통시장 등도 방문했다.

미얀마는 양질의 노동력, 중국 인도 동남아를 잇는 지정학적 이점, 풍부한 자원 등을 갖춘 나라로 최근 민주화 개혁, 시장 개방, 대외 관계 개선 등이 추진되면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발전, 건설기계 등 ISB 시장이 커지는 상황이다.

미얀마 전력부에 따르면, 미얀마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력과 복합화력 발전을 중심으로 총 21GW의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광산, 산림 채취 등 부존 자원 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발의 영향으로 건설기계 장비 소요도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늘어났다.

두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해외 시장 다각화를 위해 최고 경영진이 직접 사전에 시장환경을 살펴 보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신규 시장을 개척할 때 직접 방문해 챙기는 것이 박 회장의 글로벌 경영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회장은 남미 건설기계 시장 공략을 위해 2011년 초 브라질을 직접 방문한 후 브라질 굴삭기 공장 건설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공장은 내년 초 준공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이밖에도 2009년 준공한 베트남 두산비나 생산공장, 인도 발전 설비 시장 공략을 위한 2011년의 첸나이웁스 인수 등에서도 이와 같은 글로벌 경영 스타일을 보였다. 

항공우주산업 2020년 매출 3조원 목표

조원태 전무 “KAI 인수 테크센터와 경쟁 발전”

대한항공이 부산 테크센터를 최고의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최강의 항공우주업체로 도약을 선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9일 부산시의 회 대회의실에서 항공기 제조산업의 산실인 테크센터 규모 확장 및 중소항공 파트너사 지원방안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 방향을 골자로 하는 ‘항공우주 비전 2020’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첨단 기술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메이저 업체로 도약함과 동시에 아시아 최고의 종합정비 개조(MRO) 업체로 발돋움해 오는 2020년 매출 3조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우주산업 분야 매출은 6000억원 규모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테크센터 인근지역 23만㎡ 규모의 부지에 제2테크센터를 조성하고 부산지역 항공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부산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대한항공 테크센터 94만㎡ 규모로 확대되며 인근에 항공기 조립공장, 복합재 공장, MRO센터,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센터 등 첨단 설비가 구축된다.

특히 확장부지에 들어설 ‘항공기 조립 공장’은 신규 미래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되는 시설로, 전략 무인기 양산 및 해외 수출을 위한 최종 생산



대한항공이 부산 테크센터를 최고의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최강의 항공우주업체로 도약을 위한 ‘항공우주 비전 2020’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 테크센터 조감도. 원내는 조원태 전무.

라인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대형항공기 동체 및 날개 조립, 항공기 최종조립, 대형 전략무인기 최종조립 공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우주제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을 주도하고 세계 수준의 성능개량과 정비수리 능력을 갖추는 등 성장가능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항공기 제조업체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한항공은 부산시가 테크센터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 클러스터 내 상생협력단지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상생협력단지에 벤처기업관 및 항공우주지원센터, 복합재 부품생산공장, 항공기 부품 정비 공장 등 50여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이며 이

에 대한항공은 상생협력 단지에 입주하는 파트너사에게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조원태 대한항공 전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와 관련 자금은 준비돼 있으며 적정가 이상은 지불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조 전무는 “현재 KAI는 연 매출 1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사를 진행해보니 가치를 높게 평가할 만한 자료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예전부터 밝힌 적정가에 인수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 테크센터와 관련 센터는 구조물과 복합재 생산, KAI는 방산, 완제기 생산 등 특성이 달라 현대와 기아차의 사례처럼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웅렬 회장 長男 구미공장 발령



1985년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열린 이웅렬 코오롱 회장의 장남 규호군 돌잔치에서 직계 4대(代)가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고 이원만 창업회장, 이 창업주 부인 이위문 여사. 뒷줄 왼쪽부터 이 회장 부인 서창희씨, 이 회장, 이동찬 명예회장, 규호군, 이 명예회장 부인 신덕진 여사.

코오롱그룹 오너 일가의 4세가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시작했다.

코오롱은 이웅렬 회장의 장남 규호씨가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 차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차장 직급으로 입사한 규호 씨는 신입사원들과 함께 일정 기간 공장 OJT(직무교육) 과정 거쳤다.

이 차장은 故 이원만 창업주, 이동찬 명예회장, 이 회장에 이어 코오롱그룹

코오롱인더스트리서 4세대 경영수업 시작

오너 일가의 4대째다. 이 회장의 1남2녀 중 장남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오롱은 그동안 장남승계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 차장의 구미 공장행은 이 회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미국 코넬대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했다. 이후 지난해 말 동두천 소재 제6포병여단에서 행정병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EB**

김영훈 회장 WEC 차기의장 선출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차기의장인 공동의장에 선출됐다.

김 회장은 WEC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3년간 공동의장으로 활동한 뒤 2016년에 의장에 취임, 3년간 단체를 이끌게 된다.

김 회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태지역 국가들과 함께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유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현재 2013 대

2016년 취임 3년간 협회 이끌 예정

구 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세계 모든 지역, 에너지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B**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정몽원 회장 만도 대표 사임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만도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한라건설 대표이사직은 유지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안양한라이스하키단 구단주직은 사임하는 한편 다만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만도의 동기이사직은 유지키로 했다. 정 회장은 책임경영을 위

현대중 이재성 사장과는 사돈 맺어

한 첫 걸음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지난달 15일 한라건설 주식 1만2000주(지분율 0.04%)를 장내에서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이번 지분 매입으로 정 회장은 한라건설 보유지분 24.21%(663만4995주)로 늘었다. 특히 이번 지분 장내매입은 지난달 말 정 회장의 책임경영 발표 이후 첫 행보란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정 회장의 자사주 매입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한편 정 회장의 딸 지연 씨가 이재성 현대중공업 사장의 아들과 오는 12월 29일 결혼을 함에 따라 양측이 사돈을 맺는다. 지연씨는 한라그룹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만도 영업팀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EB**

최태원 SK 회장 형제 선고 어찌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좌)·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수백억원대의 화삿돈을 빼돌려 개인투자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5년을 구형받았다.

수 백억원대의 화삿돈을 빼돌려 개인투자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동생 최재원 수석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5년, 장진원 SK 전 부는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결심 공판서 각각 징역 4·5년 구형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지난달 22일 열린 최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할 어떠한 법적 요인도 없어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횡령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서 부정적 양형요소가 10여개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 손해가 크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최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한 것으로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측은 진술·사실 조작 등으로 최 회장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검찰과 법원 위에 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현대판 ‘리바이어던(성격 속 괴물)’”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최 회장의 변호인은 “펀드 투자는 정상적이었고 계열사들이 출자한 것은 최 회장의 지배력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투자 자금 마련에 최 회장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선고는 12월28일 있을 예정이다. 

구자원 LIG그룹 일가 구속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LIG 부회장과 불구속 기소된 구 부회장의 부친 구자원 LIG그룹 회장, 동생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좌로부터)

1800 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지난달 15일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 최대주주인 구본상 LIG텍스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구 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 재판 넘겨져

검찰은 또 그룹 차원에서 업무를 총괄한 오춘석 LIG 대표 이사장과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LIG 재무관리팀 상무 등 간부급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 일가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지난해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사기성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정적으로 악화된 LIG건설의 CP를 팔기 위해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 등을 조작해 1500억원대의 광범위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발행한 CP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자 이미 진행이 중단된 사업장을 우량 사업장인 것처럼 속여 미래 발생하지도 않을 수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도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석 신청



김승연 회장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 천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회장은 “관련 사건의 쟁점이 많아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또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도 보석 신청 사유에 포함됐다.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조만간 보석 사유 등을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

방어권 보장 · 건강 악화 이유

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회장은 40대 초반인 지난 1993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돼 12월에 보석허가를 신청한 전례가 있다.

한편 충남 천안 출신인 김 회장을 선거해 달라는 충청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충청향우회와 일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김 회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충청권 경제단체들도 구명운동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도 출향인들의 모임인 충청향우회는 김 회장의 선거를 바라는 1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부여군민 7000여명, 공주시민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는 이미 재판부에 전달됐다.

한화그룹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기업인데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화그룹은 충청 출향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재계 10대 그룹에 속해 있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계열분리 패소



박찬구 회장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에서 분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지난달 15일 금호석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 집단지정거부 취소 청구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주요 의사결정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박 회장이 금호산업 등 각 자회사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인정되는 만큼 계열분리

금호산업 · 타이어, 아시아나그룹에 존속

를 거부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회장에게 경영을 위임한 채권금융기관은 박 회장의 경영을 감시할 뿐”이라며 “이들 역시 박 회장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3월18일 금호석화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정위에 계열제외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박 회장이 각 회사에 대해 30%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지배력’은 없지만 해당 계열 회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는 공정위 판단에 불복, 지난해 7월 14일 서울고법에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에 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사안이 파급력이 컸던 만큼 재판부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금호석화는 대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다. 

수입차 25년 점유율 10% 시대

국내 수입 자동차가 10만대를 돌파해 올해 이미 작년 전체 누적 8만7928대를 뛰어 넘었다. 그야말로 수입차 쓰나미다. 수입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증가는 국내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변화시켜 고객들을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에 본지는 신차발표와 시승기,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 및 수입차 대표 인터뷰 등 수입차 업계 전반에 대한 동향들을 매호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선 국내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미래 성장 전략을 밝힌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사 사장의 기자간담회와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토요타의 신차를 소개한다. 또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시승기도 함께 심는다.

“매년 1조원 이상 투자해 신차 개발 역량 높일 것”



세르지오 호사 사장

출범 10주년을 맞은 한국지엠주식회사(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사 사장이 부평 본사에서 한국지엠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성과와 미래 성장 전략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호사 사장은 “지난 10년간 GM과 쉐보레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해 온 한국에서 앞으로 선보일 신제품 개발과 투자 확대가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쉐보레의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지엠은 GM의 글로벌 경차 및 소형차 개발 본부로서 역할을 바탕으로 향후 신차 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우수한 성능의 새로운 친환경 파워트레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에 2013년 소형 SUV ‘트랙스’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향후 순수 배터리 전기차인 스파크 전기차 등 신제품을 지속적

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해 친환경 생산설비 구축과 청정에너지 생산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자인 및 제품 개발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성장의 필수 요건인 차량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인천 부평 본사에 위치하고 있는 디자인센터를 기존의 2배 이상의 규모로 확장하고 GM의 친환경 디자인 원칙에 따라 고에너지 효율 및 재활용 자재를 활용해 시공한다. 호사 사장은 “한국지엠은 글로벌 GM 디자인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확장될 디자인센터가 신차 디자인의 산실이 돼 글로벌 경쟁에서 한발 더 앞서나가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 소재 청라 프루빙그라운드(주행시험장)에서도 향후 준공될 추가 테스트 시설을 통해 보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신차 개발 역량을 확장할 계획이다. 

BMW '뉴 3시리즈 투어링'

우아·역동성 갖춘 스포츠 왜건...5850만원



BMW 코리아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넓은 실내 공간,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을 갖춘 프리미엄 스포츠 왜건인 5세대 BMW 뉴 3시리즈 투어링(320d 투어링, 320d 투어링 M 스포츠 패키지)을 국내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뉴 3시리즈 투어링은 모두 BMW 트윈 파워 터보 기술과 커먼레일 직분사 방식의 직렬 4기통 1955cc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 최고 출력 184마력과 최대 토크 38.8kg·m의 힘을 발휘한다. 제로백은 7.1초, 최고 속도는 226km/h이며 연비는 복합 연비 17.5km/ℓ로 모두 1등급이다. 495ℓ를 수납할 수 있는 트렁크는 투어링 모델다운 실용적인 넓은 실내공간을 갖춰 야외 레저 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다. 트렁크의 높이도 지면으로부터 62cm밖에 되지 않아 화물 적재나 장비를 손쉽게 운반할 수 있고 40:20:40 분할식 뒷좌석 시트를 접으면 최대 1500ℓ까지 확장도 가능하다. 완만한 곡선의 루프 라인과 뒤쪽으로 길게 뻗은 사이드 윈도우, 긴 보닛 라인과 휠베이스 등의 디자인은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연출한다. 트윈 헤드라이트는 BMW 키드니 그릴과 함께 시각적 요소를 형성하고 차체의 짧은 오버행은 스포티함을 강조했다. 가격은 기본사양 5070만원, M 스포츠 패키지 5850만원(VAT포함)이다. 

엔진형식	I4 2.0	최대토크	38.8kg · m
배기량	1995cc	최고속도	225km/h
연료	디젤	구동방식	후륜구동
연비	자동 17.5km/ℓ	변속기	자동8단
최대출력	184마력	제로백	7.1초

메르세데스-벤츠 'The new SL 63 AMG'

프리미엄 로드스터의 진보...2억790만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프리미엄 로드스터 The new SL 63 AMG 6세대 모델을 출시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60여 년 간 이어온 SL-클래스만의 정통 로드스터 디자인에 현대 감각의 스포티함과 우아함이 어우러졌다. 여기에 프론트 베이스 시스템, 매직 비전 컨트롤 등 처음 선보이는 혁신적인 기술과 한층 다이내믹하면서도 편안함이 더해져 럭셔리 로드스터 세그먼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차체는 올 알루미늄 보드로 256kg의 무게는 기존 모델에 비해 약 110kg 이 가벼워졌다. 또 비틀림 강성도 20% 향상돼 폭발적인 출력과 주행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연료 소비와 배기가스 배출은 30% 이상 감소되어 파워와 효율성 모두를 만족시킨다. The new SL 63 AMG에는 메르세데스-AMG의 5.5ℓ V형 8기통 바이터보 엔진에 AMG SPEEDSHIFT 7단 멀티클러치 변속기가 장착됐다.

최고 출력 537마력, 최대 토크 81.6kg·m의 주행능력을 발휘한다. 제로백은 4.3초,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한다면 최고 출력은 27마력, 최대 토크는 11kg·m가 증가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0.1초 단축된다. 복합연비는 7.8km/ℓ 이다. 가격은 2억79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엔진형식	V8 5.5	최대토크	81.6kg · m
배기량	5461cc	최고속도	—
연료	가솔린	구동방식	후륜구동
연비	7.8km/ℓ	변속기	자동7단
최대출력	537마력	제로백	4.3초

NEW MODEL

아우디 '뉴 S8'

고효율 고성능 프레스티지 세단...1억7810만원



아우디 코리아는 고효율 고성능 프레스티지 모델 '뉴 S8' 모델을 출시했다.

뉴 S8에는 V8 4.0 TFSI 트윈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가속 시 8개의 실린더 모두 작동해 강력한 파워를 뿜어낸다

반면 항속주행 시엔 실린더 4개만 작동해 연료 소비를 줄여주는 가변 실린더 기술로 고성능, 고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최고출력은 520마력으로 기존 모델에 비해 70마력이 증가했다. 최대토크도 11.2kg·m 늘어난 66.3kg·m를 나타낸다.

또 제로백은 4.2초밖에 되지 않아 예전의 5.1초에서 거의 1초나 빨라졌다. 최고속도 250km/h이다. 복합연비는 7.7km/ℓ로 이 역시 이전에 비하면 13%나 향상된 수치다.

차체 100%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철제보다 40%나 무게를 줄일 수 있어 이 또한 차량의 성능과 효율면에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8단 팁트로닉 변속기 장착과 좌우 토크 배분이 가능한 스포츠 디퍼런셜을 채용한 최신 풀타임 4륜구동 시스템은 확실한 그립력과 탁월한 코너링을 제공한다.

부가세를 포함한 국내 판매 가격은 1억7810만원이다. 

엔진형식	V8 4.0 TFSI	최대토크	66.3kg · m
배기량	3993cc	최고속도	250km/h
연료	가솔린	구동방식	풀타임 4륜구동
연비	자동 7.7km/ℓ	변속기	자동8단
최대출력	520마력	제로백	4.2초

토요타 '벤자'

SUV와 세단의 크로스오버...4700~5200만원



한국토요타자동차가 11월 1일 스타일리쉬 크로스오버 벤자 출시 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지난 2008년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통해 처음 선보인 벤자는 SUV를 연상케 하는 세련되고 스타일리쉬한 디자인과 세단과 같이 차체의 전고를 낮춰 전후, 측면에서 안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이번에 선보인 2013년형 모델은 라디에이터 상하단 그릴과 안개등 등을 새롭게 디자인해 럭셔리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여기에 SUV의 강인함과 세단의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 측면은 매끄럽고 스피디한 느낌이다.

한편, 벤자 내부는 '60:60 공간 구성'을 적용해 운전자와 승차자 모두 자신의 탑승 위치에서 60%의 공간을 점유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벤자에 탑재되는 2.7ℓ 직렬 4기통 엔진과 3.5ℓ V6 엔진은 자동 6단 시퀀셜 시프트와 짝을 이뤄 보다 매력적인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다양한 속도 구간에서도 동급 차량 대비 추월 가속 성능이 뛰어나며, 고속도로는 물론, 출발과 정지를 반복하는 도심에서도 스트레스 없는 운전이 가능하다.

국내 판매가격은 VAT를 포함해 XLE 4700만원, 리미티드 5200만원이다. 

엔진형식	I4 2.7	최대토크	25.2kg · m
배기량	2672cc	최고속도	—
연료	가솔린	구동방식	전륜구동
연비	자동 9.9km/ℓ	변속기	자동6단
최대출력	184마력	제로백	—

세단에서 느껴지는 스포츠카의 향기 페라리 엔진 삼킨 최고의 럭셔리카...최고 2억4090만원

이탈리아어로 ‘문 네 개’라는 뜻의 ‘콰트로포르테’는 이름 그대로 문이 네 개인 마세라티의 첫 4도어 세단형 스포츠카다.

1963년 처음 세상에 나온 후 지금까지 네 번의 세대교체를 거쳤다.

5세대 콰트로포르테는 국내 시장에 2004년 첫선을 보였고 2009년 부분변경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차량의 앞부분은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 등을 바꿔 날카로운 이미지를 강조했다.

헤드램프는 크기가 조금 커지면서 안쪽 모서리를 뾰족하게 다듬었다.

램프 밑면 안쪽에는 LED가 촘촘히 박혀있다. 차량 전면은 마세라티 특유의 세로 일자형 라디에이터 그릴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닮은 마세라티의 로고가 달린 마세라티 고유의 모양을 유지했으나 좌우 폭은 조금 줄었다. 공기흡입구를 다듬은 하부 범퍼엔 원형 안개등이 추가됐다.

앞부분의 60% 이상이 변했지만 얼핏 봐선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옆면은 사이드 미러와 사이드 스커트, 휠 등의 디자인을 변형시켜 조금 더 날렵해졌다.

안쪽 모양을 바꾼 테일램프와 머플러를 강조한 뒤 범퍼는 한층 더 단단한 느낌이다. 실내는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정도만 변경했고 스포츠카답게 운전석은



잘 살린 기존 이미지에 스포츠카만의 날렵함을 더한 5세대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다소 딱딱하다.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고유의 이미지를 잘 살렸다.

콰트로포르테는 모델에 따라 두 종류의 엔진을 사용하는데 모두 페라리에도 사용중인 엔진이다. 일반 모델은 최고 400마력, 47kg·m의 힘을 내는 V8 4.2ℓ 엔진이다. 제로백은 5.5초, 최고속도는 시속 270km, 공인연비는 6.0km/ℓ 다.

S 모델은 V8 4.7ℓ 엔진을 단다. 최고출력 430마력, 최대토크 50kg·m의 힘을 내고 제로백은 5.4초이다.

최고속도는 280km/h이다. 스포츠 GT S는 S와 같은 엔진이지만 최고출력을 10마력 높여 제로백을 0.3초 줄이고 최고속도를 5km/h 늘렸다. 공인연비는 두 모델 모두 6.1km/ℓ 다.

변속기는 ZF사의 6단 자동변속기로 바뀌었다. 자동변속기는 차체 앞쪽에 엔진과 맞물려 있어 앞뒤 무게 배분율이 49:51을 이룬다.

자동변속기를 달면서 인기가 높아졌고 2009년 부분변경 모델로 거듭나며 완성도마저 한층 상승했다.

콰트로포르테는 다양한 색깔의 가죽 마감으로 개별 주문 프로그램을 적용해 다양한 재질과 편의장비로 개성 있는 실 내를 꾸밀 수 있다.

최고급 알칸테라는 물론, 폴트로나 푸라우 사의 이탈리아 최고급 천연 가죽으로 도배할 수도 있다.

여기에 외장 16가지, 내장 가죽 10가지, 8종류의 재질을 갖춘 우드패널 대시보드와 뒷좌석 뒤쪽 선반 7가지, 스티어링 휠 10가지, 스티칭 13가지 등 고객의 개성과 기호에 따라 수많은 색상 조합을 연출할 수 있다. 콰트로포르테의 가격은 일반모델 1억9540만원, S모델 2억1570만원, 스포츠 GT S A/T 2억2570만원, 스포츠 GT S Award Edition A/T 2억4090만원이다. 📌

세계의 명품①-불가리

최근 몇 년 사이 화장품과 패션 등 일부 국산제품은 세계인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제품으로 떠올랐다. 특히 한국 화장품은 가격과 품질면에서 세계인들로부터 최고라는 찬사를 받는 게 최근의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 화장품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제품력도 인정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100개 기업 최고 경영자가 최근 한국산

명품 창출을 위한 ‘명품창출포럼’을 만드는 등

세계인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패션 종주국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진입 장벽은 현실적으로 너무 높다.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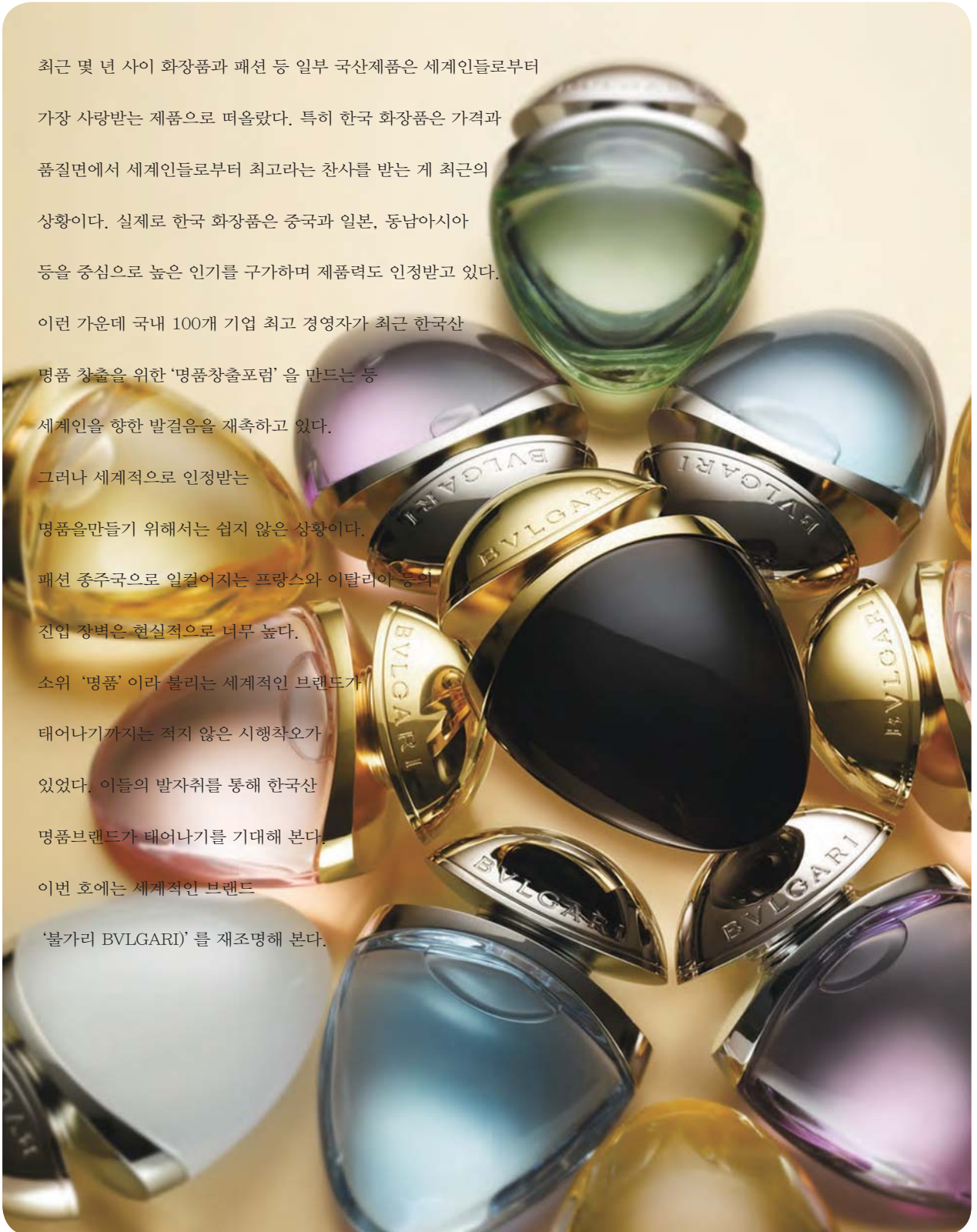
태어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한국산

명품브랜드가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호에는 세계적인 브랜드

‘불가리(BVLGARI)’를 재조명해 본다.





그리스 고전미·이탈리아 우아함의 조화 은세공으로 시작 90년대 사업다각화 성공

‘불가리’의 시작은 ‘은’

이었다. 불가리 창립자 소티리오 불가리(Sotirio Bulgari)는 대대로 은을 세공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는 고대 그리스의 에피루스란 작은 마을에서 은세공업을 해왔고 소티리오 역시 은으로 장식품을 만들었다.



3대째 이어 받아 불가리를 이끌고 있는 파올로 불가리 회장과 그의 사촌 트라파니 사장, 영화배우 줄리엣 비노쉬, 파올로의 동생 니콜라 불가리 부회장이 지난 2010년 파리에서 열린 불가리 12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던 소티리오스는 1879년 이탈리아 로마로 이주했다. 핀치오(Pincio)에 있는 프랑스 아카데미 앞에서 노점으로 시작해 한 그리스 상인의 매장 진열대 한편에 자신의 상품을 놓고 팔았다.

소티리오스의 은 장식품은 입소문을 타고 1884년 로마의 시스티나(Rome Sistina) 거리에 최초 매장을 열었다. 불가리의 초기 제품은 은으로 만든 장신구가 주를 이뤘다.

나뭇잎과 조개, 사자 등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세공품이 많았고 회화적인 요소가 강했다. 1970년경 만들어진 팔찌는 헬레닉 전통의 보석 제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 7개 사자 머리모양의 장식판에 각각 원형 펜던트가 달려 있다. 1870년에서 1880년 사이에 만들어진 은 소재 버클은 나뭇잎에서 영감을 얻어 돌을새김을 했다. 화염 도금 처리된 조개모양 버클도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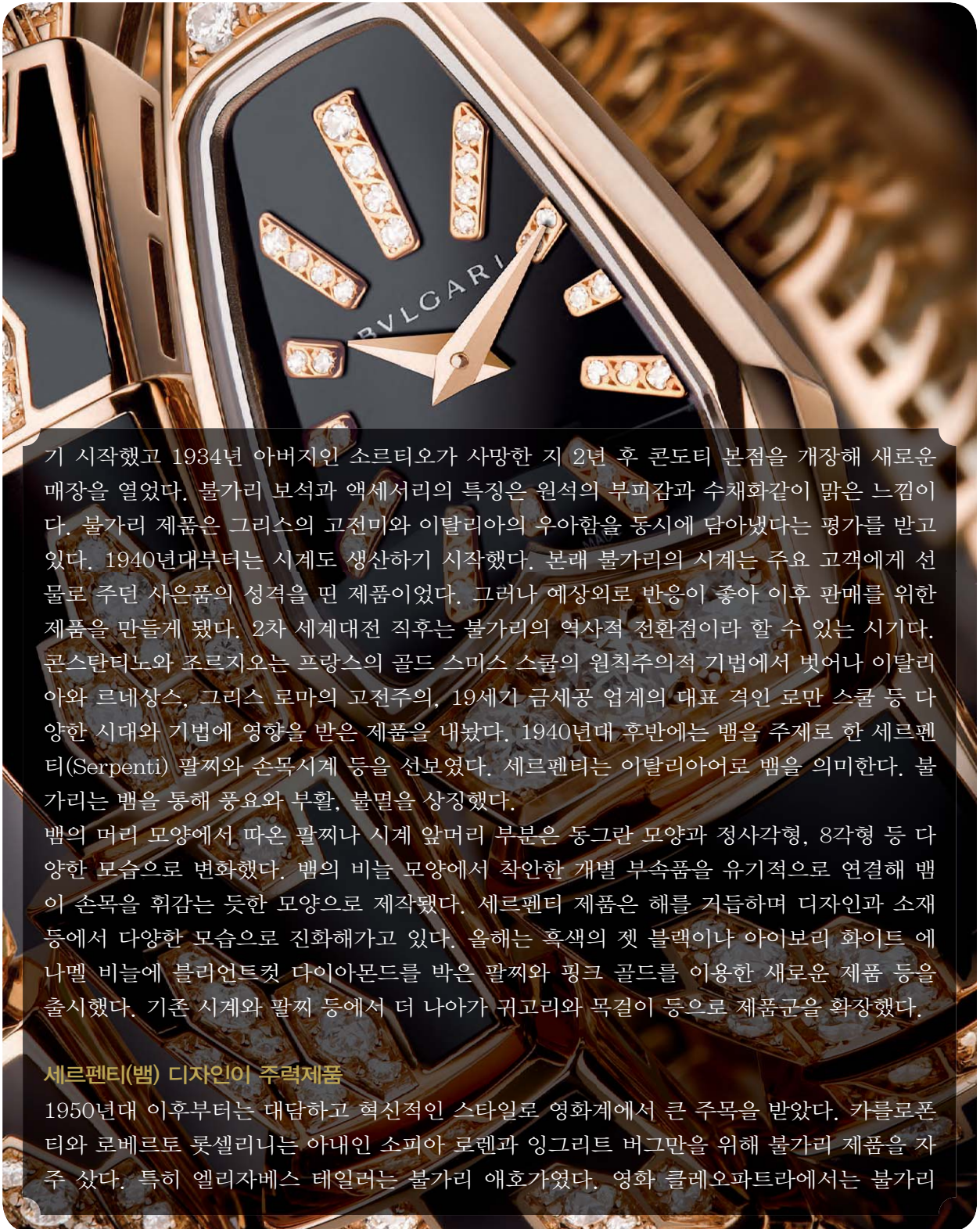
중양에 있는 카르투스슈 모양의 파란색과 빨간색의 납유리 장식이 특징이다. 네오 헬레닉 시대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1877년에서 189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목걸이는 중양에 3개의 고대 선박이 새겨진 원형 은판을 이어 만든 제품이다. 네오 헬레닉 전통 방식을 따른 것으로 팍소수, 레프카스, 케팔로니아, 잔테 등을 상징하는 문양이 모조 금박이 된 금속에 새겨져 있다.

2차 대전 직후 디자인·소재 변화

소티리오스는 로마 콘도티 상점을 연 뒤 더욱 다양한 종류의 보석과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소티리오스의 뒤를 이은 두 아들 콘스탄티노(Constantino)와 조르지오(Giorgio)는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1933년 비아 콘도티 매장을 확장하고 원석과 보석, 시계 등에 관심을 두

세계의 명품①-불가리



기 시작했고 1934년 아버지인 소르티오가 사망한 지 2년 후 콘도티 본점을 개장해 새로운 매장을 열었다. 불가리 보석과 액세서리의 특징은 원석의 부피감과 수채화같이 맑은 느낌이다. 불가리 제품은 그리스의 고전미와 이탈리아의 우아함을 동시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40년대부터는 시계도 생산하기 시작했다. 본래 불가리의 시계는 주요 고객에게 선물로 주던 사은품의 성격을 띤 제품이었다. 그러나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 이후 판매를 위한 제품을 만들게 됐다. 2차 세계대전 직후는 불가리의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시기다. 콘스탄티노와 조르지오는 프랑스의 골드 스미스 스쿨의 원칙주의적 기법에서 벗어나 이탈리아와 르네상스, 그리스 로마의 고전주의, 19세기 금세공 업계의 대표 격인 로만 스쿨 등 다양한 시대와 기법에 영향을 받은 제품을 내놔다. 1940년대 후반에는 뱀을 주제로 한 세르펜티(Serpenti) 팔찌와 손목시계 등을 선보였다. 세르펜티는 이탈리아어로 뱀을 의미한다. 불가리는 뱀을 통해 풍요와 부활, 불멸을 상징했다.

뱀의 머리 모양에서 따온 팔찌나 시계 앞머리 부분은 동그란 모양과 정사각형, 8각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했다. 뱀의 비늘 모양에서 착안한 개별 부속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뱀이 손목을 휘감는 듯한 모양으로 제작됐다. 세르펜티 제품은 해를 거듭하며 디자인과 소재 등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올해는 흑색의 젯 블랙이나 아이보리 화이트 에나멜 비늘에 브리언트컷 다이아몬드를 박은 팔찌와 핑크 골드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 등을 출시했다. 기존 시계와 팔찌 등에서 더 나아가 귀고리와 목걸이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했다.

세르펜티(뱀) 디자인이 주력제품

1950년대 이후부터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스타일로 영화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카를로 폰티와 로베르토 룬셀리니는 아내인 소피아 로렌과 잉그리트 버그만을 위해 불가리 제품을 자주 샀다. 특히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불가리 애호가였다. 영화 클레오파트라에서는 불가리



의 뱀 모양의 장신구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리처드 버튼은 로마에서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촬영하며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위해 불가리 매장에 종종 방문해 브로치와 목걸이, 귀걸이 등을 샀다. 그는 “나는 그녀에게 맥주를 소개했고 그녀는 내게 불가리를 소개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외 게리 쿠퍼와 오드리 헵번 등도 불가리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했다. 현재도 불가리는 많은 배우와 유명 인사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후 콘스탄티노와 조르지오는 1970년대에는 미국 뉴욕에 최초의 국외 매장을 열고 이어 프랑스 파리, 스위스 제네파 등에 속속 진출했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 처음 진출했다. 1977년부터는 불가리-불가리 시계 라인을 출시하며 시계 부문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다. 1982년에는 스위스 뉴샤텔에 불가리 타임(Bulgari Times)을 설립하고 시계 제품 디자인과 제작에 신경 썼다. 1984년 조르지오 불가리의 두 아들인 파올로(Paolo)와 니콜라(Nicola) 불가리 형제가 불가리의 회장과 부회장이 됐다. 사촌인 프란체스코 트라파니(Francesco Trapani)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CEO)로 취임했다.



리즈 테일러 등 배우·명사가 선호

1990년대부터는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992년 첫 번째 향수인 오페베르(Eau Parfume au The Vert) 라인 출시를 시작으로 10개의 향수 제품을 선보였다. 이듬해 스위스 뉴샤텔에 불가리 퍼퓸(Bulgari Parfums)을 설립했다. 1996년에는 실크 스카프와 가죽 액세서리 제품 등을 내세운 액세서리 분야 제품을 개발했다.

2001년에는 매리어트 호텔과 협력해 불가리 호텔&리조트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2006년 인도네시아 발리에 불가리 호텔&리조트를 열었다.

이후 합병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워왔던 불가리는 2009년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불가리의 가치를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인 활동으로 확대했다. 은은 색상이 변하고 제품은 그 디자인과 소재가 변하지만 불가리의 정신과 사회적 공헌 활동은 변하지 않을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불가리는 2009년부터 국제아동 권리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협력해 분쟁지역 어린이를 위한 아동교육 지원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다.

특히 세이브더칠드런 링을 제작해 판매수익금의 20%를 이 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한편 불가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주얼리 브랜드로 티파니, 까르띠에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다. 현재 국내에 불가리 매장 20곳이 들어와 있다. 티파니 12개, 까르띠에도 20개다. 금값 상승으로 보석류 주얼리가 많이 판매되고 있다. 



지난 5년동안 저희 Econ Brain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망! 대한민국' 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ECONBRAIN

한국 경제의 중심에서 숨가쁘게 활동하고 있는 주인공들의
거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경영정보 매거진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진정한 주인공, 그들은 누구인가?”

2012년 한해동안 아껴주신
독자여러분과 광고주께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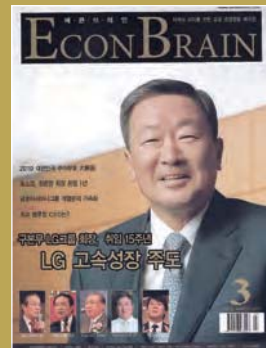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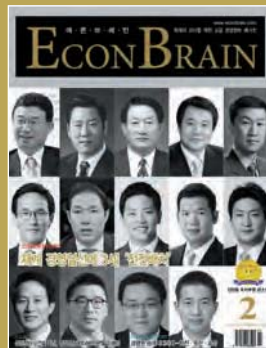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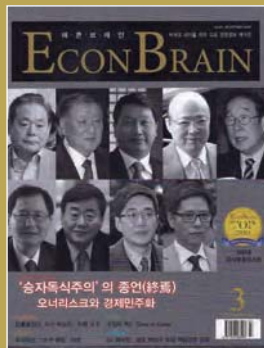
젊은 차세대 주인공들이 품은 꿈과 야망을
독자여러분과 함께 보고 느꼈으면 합니다.

구독
및
광고문의

TEL : 02)535-8119
FAX : 02)535-8110
econbrain@naver.com

NEWSis ()

독자 여러분과 만남을 환영합니다.
www.econbrain.com



입학사정관제는 현대판 음서제

최근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효율성, 합리성 등에 대한 의심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각 대학에서 위촉한 입학사정관이 수능시험 점수나 내신 성적도 아닌 인성과 재능,

발전 잠재성, 수학능력 등만을 평가해 그것도 대개는 서류전형과 단 한 번의 면접을 통해

뽑는다고 하니 입학사정관이 신이나 점쟁이, 엄청난 도덕가가 아니고서야 이를 믿을 수가 없다.

2010년 9월 한 교육업체 대표는 트위터에 “아 내가 연세대 입학사정관”이라며 지인에게 자제의 대입 합격을 도와주겠다는 뉘앙스의 특혜를 약속하는 듯한 글을 남겨 파문이 일으켰다.

당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등 고위층 자녀의 잇단 공무원 채용 비리에 이어 대입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불거지자 “이게 이명박 정부가 말한 공정한 사회냐”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때 뿐이었다. 입학사정관제는 올해 더 활성화됐다.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은 123개 대학에서 4만 3138명을 선발한다.

지난해(4만2163명)에 비해 소폭 늘어나 정원의 11.5%를 선발한다.

언론이 좋게 말하는 이른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들을 기준으로 하면 정원의 24%를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한다고 한다.

서울대는 80%, 서울교대와 카이스트, 포스텍, 울산과학기술대 등은 거의 100%를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전형도 정시모집을 줄이고 수시모집 인원을 늘리고 있다. 수시모집으로는 4만1734명을 뽑아 지난해(3만2851명)에 비해 8883명을 더 뽑는다.

반면 정시모집으로는 2226명을 뽑아 지난해(9312명)에 비해 7086명이 줄어들었다.

대학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점하고 지원자 풀을 넓히기 위해서란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최근 대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에 가담한 학생의 내역을 담임교사가 입학사정관 서류에 적지 않고 은폐했다가 나중에 발각돼 이 학생이 입학했던 성균관대에서 입학취소를 한 것을 보면 당초 성적 위주 대신 발전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겠다는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더욱이 입학사정관제 서류를 부모는 물론 전문 글쟁이가 대리 작성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 합격을 취소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지만 그게 말 한마디로 쉽게 사라질 일인가.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것, 학업 성적 평가는 최소화할 것 등 입학사정관 전형에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전형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별정직 공무원 선발에서 기관장의 입김이 닿는 현대판 음서제(蔭敍制)와 다를 게 없다고 본다.

음서제가 무엇인가. 고려·조선 시대에 부친이나 조부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웠을 경우 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 임용하는 제도다.

왜 입학사정관제가 음서제와 다를 바 없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사회적 배경이 든든할 경우 2010년 교육업체 대표의 트위터 파동에서 보듯 입학사정관이 될 만한 사람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더 합격점에 가까운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것이며, 이것이 서류심사나 면접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낙점(합격)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이른바 ‘스펙쌓기 경쟁’이라고 부른다. 그 ‘스펙’을 쌓기 위

해선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형에서 요구하는 자녀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특수학원이나 고액 특별과외를 보내야 하고, 입학사정관 서류 대필 글쟁이에게 돈을 갖다 바쳐야 하며, 공동체의식·봉사정신·책임감·리더십이 출중한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기 위해 외국 또는 가난하고 소외된 곳에 일부러라도 리더십교육이나 봉사여행을 보내야 한다.

물론 교육 당국자들과 대학들은 이를 부인한다. 이들은 “실제 소질과 능력 없이 스펙만 쌓아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과할 수 없다.

심층면접 등을 통해 스펙만 쌓은 학생들과 실제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구분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막말로 주소지가 서울 강남 주소지에 특목고 출신이면 전형에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 누가 판단하고 걸러내겠는가. 오로지 입학사정관과 학부모, 시험관리자인 대학만 믿으라는 말인가.

더욱이 대학이 인생의 8할을 좌우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입시관리가 이뤄져서야 되겠는가.

입학사정관제를 미화하는 사람들은 획일적 잣대로는 측정해낼 수 없었던 숨은 자질, 특별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한 뒤 학업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몇 가지 성공스토리를 ‘신화’처럼 내세운다.

하지만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를 ‘상식’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제도의 개선으로는 부족하고 아예 폐지돼야 한다.

입학사정관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이 퍼지면 당사자에게 엄청난 청탁전화가 걸려 온다고 한다.

게다가 입학사정관제를 처음 정착시킨 미국의 경우 선의를 가진 선진적인 제도로 출발한 게 아니고 유대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 러시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백인 주류세력들이 만든 ‘개구멍식(우회로)’ 입학전형으로 고안됐다고 하니 의도를 알면 알수록 그 순수성에 더욱 의심이 간다.

필자는 2000년대 이후 외환위기로 경제양극화가 심해지고 강남에 고액 과외나 고액 대입학원이 성행하면서 지방이나 서울 변두리 고교생의 명문대 입시가 어려워진 것을 볼 때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재력을 바탕으로 자녀를

보다 쉽게, 편법적으로 대학에 보내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찬성했거나 도입을 옹호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어느 행사나 모임에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는 좋은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원전은 입추지지(入錐之地)로서 중국 사기(史記)에 따르면 벼슬에 오르지 못하거나 한직인 사람이 송곳 하나 꽃을 만한 땅도 나라로부터 받지 못해 빈한함을 한탄하는 말로 쓰였다.

좋은 대학에 못가면 입추지지를 한탄하는 신세가 되는 게 우리나라다.

입학사정관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타락하기 쉬운 제도인데도 왜 우리나라 언론은 비판을 삼가는가. 언론 종사자들도 자녀가 그 덕을 보길 은근히 바라는가. 이에 앞서 왜 학생과 학부모, 전교조나 교총은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민란이라도 나야 할 판에 조용한 게 참으로 이상하다. 당장 폐지를 부르짖어 없애야 할 게 입학사정관제다.

교육당국은 당장 변별력이 없는 ‘물수능’을 원래대로 학력평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잡한 대입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이런 저런 전형 형태에 적응하느라 지식의 절대량이 부족해지고, 교우관계와 수면·운동에 써야 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식의 절대량이 부족한데 무슨 응용이 되고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가. 최선이 못된다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입 본고사를 부활하든지, 아니면 과거 학력고사 위주의 평가에 몇가지 항목에 가중치를 두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 He Is...

- 前 한국경제신문 의학담당 기자
- 강원대 약학박사 과정 수료
- 대한약학회 홍보간사, 한국자살예방협회 홍보이사
- ‘꼭꼭 씹어먹는 영양이야기’ ‘환자의 눈으로 쓴 약이야기’ 등 저술
- ‘중외언론인상’ ‘위암알림이상’ 등 수상



정 종 호

정종호헬스콘텐츠연구소 대표

참다운 노사관계는 갈등관리 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노와 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적일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다. 노사가 분업적으로 역할하면서 협력하여 생산한 결과물에서 얻어진 이익을 생산에 기여한 만큼 분배하는 과정이 노사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분 배라는 것이 그 본연의 성격상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되므로 대립적 성격을 띠게 되어있다. 따라서 그 분배과정은 '갈등과정'을 거쳐야 한다.

노사관계에서 갈등문제는 분배과정만이 아니라 노사가 서로 협력하는 성격을 가진 생산과정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기업 내 부서간에도 조직적 이익 문제로 근로자간에도 갈등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갈등상황'이 어찌면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勞)와 사(社)는 항상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에 노사관계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진다.

생산의 파트너이자 생활공동체의 동반자로서 갈등이 원만하게 조율될 수 있을 때 서로 상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갈등 관계 조율의 바탕은 '신뢰'

인간관계에서 서로 대립하는 갈등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하여지지만 그것은 정말 이상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모든 인간은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자기 이익을 우선 생각하기 마련이어서 이해관계가 서로 엇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이 없는 인간관계란 서로 무관심한 관계이거나, 어찌면 죽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노사관계에서 갈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근로자나 관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아니하거나 자

신이 가진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마치 생명이 없는 기계처럼 억압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근로자나 경영관리자 모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나 지식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서로 토로하고 조정해나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수정하고 나아가 공동생활체인 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살아있는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갈등이 생기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조정해가는 과정이 참다운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갈등은 오히려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순기능을 하게 된다.

글로벌경쟁시대에 경쟁력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경쟁력의 핵심기반이 무엇인가

자본주의 초기에는 사회나 조직의 경쟁력의 바탕은 물질자본이 핵심이었고 지식정보화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인적자본이 핵심바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러한 인적자본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자본'이 핵심바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구성원간의 신뢰이자 공동체의식이다.

갈등은 구성원간의 신뢰의 역현상이다.

노사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의 원인은 근원적으로는 근로자나 경영관리자가 노사관계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데 있다.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나 지식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노사간에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공감의 바탕으로 노사상생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다.

교육 통해 노사간 분쟁예방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소통을 경시하다보니 남의 말을 잘 들어보지 아니하려 하고, 대화나 토론의 경험을 가져보지 못하여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하는데 참 많이 애먹었다.

학교교육에서부터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물론 대화나 토론의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거의 문외한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초경쟁의 시대라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노사관계에 관한 의식을 재정립하는 교육, 노사간 신뢰를 형성하는 소통의 중요성과 소통의 태도와 기법, 그리고 신뢰의 역현상인 갈등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는 교육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사발전재단은 2007년 설립 당시부터 매년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맞는 노사관계의식 전환을 위해 교육사업을 전개해왔다.

이제 근원적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대립적 노사관계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노사관계의 생산성을 높이고 분배문제의 갈등을 경쟁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는 갈등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노사파트너십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노사 당사자의 상생·협력 의식을 높이는 한편, 기업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것을 관리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기법과 그 바탕이 되는 소통에 관한 교육을 전개하면서 갈등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현장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올해는 앞선 교육의 성과를 토대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더욱 체계화하고, 특히 올해는

분쟁예방 조정교육을 통해 업종별로 분쟁예방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갈등 해소와 노사분쟁에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과 지역 수준에서 기업내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강사양성과 노사갈등이 분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해결하도록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사적 조정의 활성화를 통해 공적 조정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노사갈등과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단, 분쟁예방 조정교육 지원

재단이 실시하는 교육사업을 통해 배출된 교육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사업장과 노사단체들에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노사 모두가 갈등을 관리하고 신뢰를 높이는 바탕이 되는 소통과 갈등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노사가 서로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노사의 이러한 노력과 참여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노사파트너십을 확산시키고 갈등예방과 신속하고 원만한 갈등해결이 저성장시대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생존과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근원이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 He Is...

- 행정고시 15회
- 대전·부산지방 노동청장
- 노동부 노동국장·산업안전국장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4대 총장



문 형 남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란 재점화

인간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므로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죽음에도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과연 나의 마지막은 어떠한 것인가?

보 건복지부는 얼마 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를 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
진하되 추진 방안은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또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다시 존엄사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실 우리에게 존엄사보다 ‘안락사’가 더 익숙하다. 안
락사란 생명을 종결시키기 위해 고의로 약물 등을 투여하
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는 연명치료중지를 뜻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안락
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다시 말하자면 존엄사는 고의적인 치료 포기나 중단의
의미가 아니다. 질병을 앓고 있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치료 했음에도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
할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그만둠으로써 환자가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자연스런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생명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의 발
달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생명을 연장시키는 무의미한 상
황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판결에 찬반 논쟁 불붙어

1981년 리스본에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유
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 채택됐
다. 그 후 세계 각국은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
가 있는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이 논란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 된 계기는 1997
년 보라매 병원 사건이다.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
하거나 호흡에 곤란을 겪는 상황에 이르면 의료기관은 인

공호흡기를 통해 환자가 숨을 쉬도록 도와준다. 만약 이
런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면 호흡곤란으로 사
망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위 사건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환자 가족과 의사가 협
의해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족과 의사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
방조죄의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인공호흡
기로 충분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환자로부터 즉시 위급
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행위는 살
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이
슈가 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당시 뇌사상태에 빠진 환
자에 대해 환자 가족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
고 병원 측에 요구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치료
를 중단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가족의 요구를 거
부했다. 그러자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2009년 대법원이 처음으로 존엄
사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환자가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
공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환자에겐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논지에서 나
온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의학계는 2009년 10월 13일 ‘연명치료 중
지 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대한의학회가 내놓은 연명치
료 중지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존엄사에 대한 가능성
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에 존엄사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힘을 받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명치료 중단 대상과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등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쟁점 사안을 놓고 찬반 논쟁을 벌였지만 18대 국회 때 제출됐던 존엄사 관련법 두 개가 회기 종료로 모두 폐기돼버려 아직 법제화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법제화 시 적합한 규정 확립해야

의학계가 발표한 ‘연명치료 중지 지침’에 나와 있는 존엄사의 대상은 한마디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말기 암환자, 뇌사 환자, 임종 환자,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그리고 6개월 이상 식물인간 상태였던 환자 등이 이에 속한다.

또 환자가 미리 사전의료의향서에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동의한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과 신념에 비춰 치료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사람의 사망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할까? 이것은 이른바 ‘뇌사논쟁’이다. 전통적으로 인류는 사람의 사망 시기를 심장이 멎는 순간으로 봐 왔다. 생명의 원천이며 상징인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것이고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명백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은 뇌의 존재를 발견 했다. 뇌가 인간의 의식세계를 주관한다는 인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뇌의 작용여부에 따라 삶과 죽음을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통적인 생각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됐다.

여기에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최신 의료기기들은 뇌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아도 심장을 계속 뛰도록 할 수 있는 세상을 열었다. 이것은 소생할 가망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기계의 힘을 빌려 심장을 뛰게 한다는 이유로 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인류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고 삶과 죽음에 대한 논쟁 또한 치열해졌다. 게다가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계의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이 문제는 인류의 커다란 숙제가 됐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의학은 타인의 장기를 이식해 꺼져가던 생명을 다시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정지로 올라섰다.

모하케도 장기이식은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혹은 사망 직후의 장기만이 이식이 가능한 기술이다. 따라서 장기이식에선 소위 말하는 식물인간의 장기가 매우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비록 자신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장기를 이식해 타인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보탬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장기이식은 생명 윤리라는 인간의 오랜 전통적 사고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에 뜨거운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간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지만 자연의 순리에 따른 죽음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비록 가족이라도 자신의 생명을 가족이 함부로 판단해 결정하는 사회에서는 분명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

먼저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의료업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논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존엄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의 범위나 존엄사의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죽음, 최근 다시 벌어지고 있는 존엄사 논쟁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어떤 것이 보다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일지 생각해볼 수 있는 사회문제이다.

● He Is...

- 1999년 제 4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 연수원 31기 수료
- 2002년 법무법인 청지 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 한국소비자원 자문변호사



이 성 환

법무법인 청지 변호사

성공하는 리더는 혼자 뛰지 않는다

저자 : 존 어데어

출판사 : 이정



이 책은 리더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위해 쓰여 졌다. 저자는 효과적으로 동기부여 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세 가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기부여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을 할 때 무엇이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 시키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일반적인 차원의 동기부여와 개별적인 차원의 동기부여를 모두 알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기량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이 책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스스로를 위해 자발적으로 열심히 뛰도록 만드는 방법을 모두 3부로 나눠 이야기 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일곱 개의 실용 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동기부여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전략은 모두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열심히 뛰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줄 것이다.

제2부에서는 현장과 이론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고 있다. 즉 제2부는 제3부에서 다루는 인간의 본성을 보는 견해가 바탕이 된 동기부여 이론들과 제1부에서 다루는 강도 높게 동기 부여된 팀을 만들기 위한 집중전략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여러 동기부여 이론을 저자가 창안한 삼원모델을

활용해 리더들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또한 리더십의 핵심을 명료하게 정리해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끝으로 제3부에서는 7가지 원칙의 근거가 되는 동기부여의 개념과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핵심 메시지

어떻게 하면 100%의 충성을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편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세 가지가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관심사의 해답은 제1부에서 제시하는 ‘리더가 지켜야 할 7가지 원칙’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리더는 조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조직원들이 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7가지 원칙을 습관화해 조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리더인 자신을 따르고 본받게 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관심사에 대한 해답은 제2부의 내용을 심도 있게 탐구해 봄으로써 얻을 수 있다. 리더는 구성원들과 함께 뛰어야 한다.

리더 한 사람의 에너지가 아니라 팀원 전체의 시너지로 목표를 향해 달려야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더는 구성원의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 모두의 가슴이 뜨거워져 함성하여 목표를 향해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팀의 사기는 충천할 것이고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세 번째 관심사에 대한 해답은 제2부에서 찾을 수 있는 데 바로 리더십 회보에 있다. 일터는 가장 소중한 사회이다.

하루 중 거의 절반 이상을 생활하는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다면 정말 일할 만이 나지 않을 것이다.

행복한 일터로 만드는 건 전적으로 리더의 몫이다. 가장 필요한 것이 경청이다.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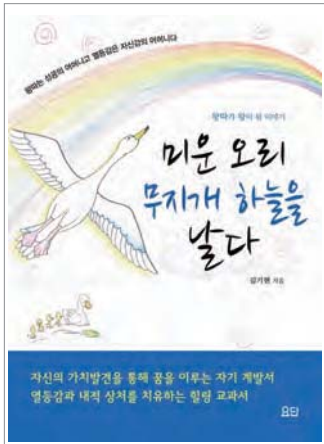
그리고 칭찬을 해 줘야한다. 특히 구성원들 앞에서 직접 말로 하는 칭찬을 구성원들을 춤추게 할 수 있으며 리더를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방법들이 리더십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리더는 조직원들과 함께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가야만 한다. 조직원 스스로가 리더를 따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건 바로 리더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같이 뛰어줄 때 가능한 것이다. 경청과 배려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게 리더의 몫이다.

미운 오리 무지개 하늘을 날다

저자 : 김기현

출판사 : 요단



이 책은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로 자신의 가치발견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기 계발서다. 저자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왕따로 태어났고, 지난 50년을 왕따로 살았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책이다. 이 책은 안데르센의 명작

‘미운 오리새끼’를 인간 존엄의 가치와 크리스천의 정체성 회복, 그리고 사명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 책은 먼저 ‘미운 오리 새끼의 꿈 여행’에서는 아기 오리의 출생과 왕따 이야기, 꿈을 이루려면 떠나라, 꿈을 품고 인내하라,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라, 자아발견과 꿈을 이룬 감격 등 다섯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새끼’에서 보듯이 오리엄마 밑에서 자신과 다른 오리들 틈에서 쫓겨 되는 시련이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백조야! 무지개 하늘을 훨훨 날아라’는 주제에서는 장점을 찾아 자신감으로 살아라, 내 안에 숨겨진 1%를 찾아라, 백조의 일곱 색깔 무지개의 삶 그리고 미인대칭 대통령이 꿈을 팝니다 등 네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역시 <미운 오리새끼>에서 보았던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바뀌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이 자살로 이어지는 등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해 있다. 작년 12월 대구 모 중학교 학생의 자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학교 내 왕따 문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 왕따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직장 왕따라는 취업포털 사람들의 올 연초 발표 자료를 보면 사회 곳곳에서

왕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왕따는 열등감을 낳고, 열등감은 우울증을 낳고, 우울증은 자살을 낳는다는 저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결국 왕따 문제의 출발점은 열등감에서 비롯된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의 열등감일 수도 있고, 왕따를 시키는 사람의 열등감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열등감을 해결하는 것이 왕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메시지

이 책에서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왕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왕따가 열등감에서 비롯된다는 저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열등감은 선진사회로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병폐 중 하나가 심각한 상대적 열등감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잘사는데, 옆집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못사는 것처럼 느끼는 게 상대적 열등감이다. 학교에서 나타나는 왕따현상이나, 직장에서 나타나는 왕따현상도 따지고 보면 결국 상대적인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지만,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저자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친절, 배려, 칭찬과 같은 것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한 자녀가 대세인 지금의 가정에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이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한다. 부모가 숭선수범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줘야만 자식이 보고 배울 수 있게 된다.

왕따 없는 세상,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역시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또한 부모가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만 자식이 모범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명심해야 될 것이다.

●저서...

- 현대경영학이해(청목출판사)
- 현대국제경영(법문사)
- 전자상거래원론(세학사)
- 국제통상정책론(도서출판 두남)
- 글로벌경영론(도서출판 두남)



전 형 구

강동대학교 교수



혈당 때문에 단맛을 포기하셨다면?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백설 타가토스로
관리하세요!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타가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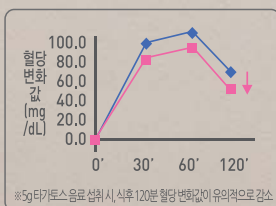
PREMIUM QUALITY
BEKSUL TAGATOSE



6g

EASY CUT

백설 타가토스는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미료 타입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제 백설 타가토스로 당 흡수는 줄이고, 단맛은 되찾으세요



타가토스 인체적용시험 결과

식사 후 에리스리톨을 넣은 음료수와 타가토스를 넣은 음료수를 마신 뒤
혈당 변화 값을 측정한 결과, 혈당이 약간 높은 사람들 대상 시험에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타가토스 ■ 에리스리톨 (0칼로리 감미료)

출처: 보고서 "인체에서 타가토스 섭취 시 식후 혈당 및 공복 혈당에 미치는 연구"
단,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 섭취 시 주의사항: 과량 섭취 시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타가토스



전 ,
우 유 를
넙 어 도
향 이 깊 은
커 피 가
종 아 요

맥 심
화 이 트
골 드



맥심만의 SPR(Specialized Profile Roasting)공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유에 잘 어울리는 고급원두를 직접 선별, 로스팅하여 깊은 맛과 향이 살아있습니다
동서식품의 독자적인 기술로 무지방우유 함유 프리마를 만들었습니다
몸에 설탕의 흡수를 줄여주는 자일로스 슈거를 넣었습니다

연아의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Maxim
WHITE GOLD
COFFEE MIX

Maxim
WHITE GOLD
COFFEE MIX

대한민국 나눔온도를 높여주세요

‘저 눈송이가 모두 사랑의열매였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랑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새벽부터 할머니와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려가는
7세 소년의 꿈입니다.

손 내밀어 주세요.
이들의 겨울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나눔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사랑의열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수출하다 세계 112개국 150조원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필요한 이노베이션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Windows 8을 권장합니다.

HOW TO LIVE
SMART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분리 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냐며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PC는 새롭게 진화한다는 것을

세상을 바꿀 PC의 진화 삼성 ATIV 스마트PC



수려한 화면과 빠른 반응속도  Windows 8



모드 전환을 바꾼 하나로



5면으로 자유롭게



터치 기반의 Windows 8

삼성 ATIV 스마트PC는
노트북 모드와 스크린 모드를 바꾼 하나로
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새로운 PC입니다

삼성전자

SAMSUNG

Samsung ATIV smart PC